

2023 공공기관 입사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2023. 12.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입사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CONTENTS



I. 고졸 채용

1. 나도 모르는 새 쌓아 온 나의 가치	6
2. 164번의 치열했던 도전	10
3. 꿈은 그 꿈을 실현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15
4. 남들과 다른 길의 종착지이자, 시작에 이르기까지의 여정	20
5. 나는 멈추지 않는다	24
6. 암흑 속을 걷는다는 것은	29



II. 블라인드 채용

1. 직무능력중심채용의 증인, 나는 30대 중반의 중고신입니다	36
2. 안녕하십니까? 대졸공채로 입사한 휴학생 신입사원입니다!	41
3. 직무능력중심 채용이었다, 그래서 자신있었다	47
4.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不殆), NCS를 알고 나를 알면, 채용 부서기 끝! 52	52
5. 느낌보인 나도 했으니, 다음은 당신 차례가 되길	57
6. 배움이 쓰임이 있을 것, NCS 직무능력중심의 '취린이' 채용 가이드	62



Ⅲ. 장애인 채용

1. 비전공자 뇌병변 3급 장애인의 ICT 공공기관 근무기	70
2. 내 삶에 변화가 되어 준 장애인 전형, 너도 할 수 있어!	74
3. 당신의 차이를 기회로 이용하자!	78
4. “극복”이 아닌 “적응”의 연속	83
5. 희망의 불씨	87
6.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	91



Ⅳ. 지역인재 채용

1. 두 번째 기회	98
2. 備(갓출 비)수도권 인재로 거듭나 모두와 어깨를 나란히	103
3. 차별을 기회로 만들어 주는 제도	107
4.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111
5. 명확한 목표를 갖게 해 준 지역인재 채용	115
6. 문제를 해결하며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	119



Ⅴ. 청년인턴

1. 경력 無, 직무경험 無, 절박한 마음으로 시작한 청년인턴이 가져다준 취업	126
2. 청년인턴을 통해 찾은 꿈, 남의 길에서 나의 길로	130
3. 독서실 인턴, No! 실무형 인턴, Yes!	135
4. 파도를 멈출 수는 없어도,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울 수는 있다	139
5. 입사를 원한다면 인턴(intern)으로 인턴(in turn)하자	144
6. 느리고, 적고, 그래서 깊다	149



공공기관 입사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I

고졸 채용

- 1 나도 모르는 새 쌓아 온 나의 가치
- 2 164번의 치열했던 도전
- 3 꿈은 그 꿈을 실현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 4 남들과 다른 길의 종착지이자, 시작에 이르기까지의 여정
- 5 나는 멈추지 않는다
- 6 암흑 속을 걷는다는 것은

나도 모르는 새 쌓아 온 나의 가치

주택도시보증공사 | 김○○



안녕하세요. 고졸 용접공에서 공기업 금융계열 직무로 전직한 주택도시보증공사 김○○ 주임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들려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히 26살 인문계고 출신 고졸 용접공이 노력 끝에 금융 공기업에 입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3년간 준비 과정에서 꿈을 위해 노력하며 나도 모르게 쌓인 나만의 가치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고졸’, ‘용접공’과 같은 고리타분한 타이틀에 연연하는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열정과 노력을 다하는 사이 나도 모르게 쌓인 나만의 가치와 역량이 있다면 누구나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렇기에 고졸 용접공인 저도 해낸 이야기를 들으며 꿈을 가진 여러분도 자신감을 갖고 꿈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나도 모르는 새 쌓은 나만의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이야기. ‘내 편을 만들어볼까?’

하고 싶은 것도, 꿈도 많은 여러분이 만약 가고자 하는 기관이 생겼다면 ‘내 편 만들기’가 그 첫걸음입니다. 학교 또는 직장을 다니던 우리가 공공기관 입사를 꿈꾸기 시작하면 너무 막막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지...? 뭐부터 시작해야지...? 이렇

때 내 편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바로 지금부터 그 내 편을 만든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극적으로' 관련 기관과 접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방', '인문계고', '용접공'이란 환경을 가졌던 저는 HUG 관련 정보를 얻을 창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4시간 거리의 HUG의 채용설명회, 지역사회 공헌 행사 등에 참가하고 가까운 HUG 지사에 방문하는 등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어디든 찾아다니며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 인터넷 검색엔진이 아닌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에 참석하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를 타고 또 타고 들어가 보면 결국 신문, 유튜브, SNS, 챗봇 등에 각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와 선배, 현직자들의 꿀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려와 달리 모두 저에게 도움을 주려고 발벗고 나서 주었습니다. 그 결과 HUG 채용 전형과 기업 정보, 선배들의 수험 및 직장 생활 꿀팁을 얻었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취업전략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적극적인' 고졸 용접공의 도움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적극적인 자세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모두 '여러분의 편'이 되어줄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 '차근차근 전략'

내 편을 만든 후 정보를 얻었다면 가장 중요한 필기합격을 위해 '차근차근 전략'을 수행해야 합니다! 학교 또는 직장을 다니는 우리가 필기 합격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 관리와 멘탈 관리입니다. 그래서 일과 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쉬운 자격증부터 하나씩 해치워 나가며 자신감을 얻는 '차근차근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제한적인 시간과 관련 경험이 적은 점을 극복하고자 '차근차근'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제한된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기숙사에 들어

가 출퇴근 시간을 없애고, 점심시간에도 공부할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관련 지식과 경험이 전무했던 저는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해 주말에 학원을 다니는 등 이용할 수 다양한 제도를 알아 보고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인문계 출신에 상업 계열 관련 경험이 없던 저는 자신감이 떨어지고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우선 상대적으로 쉽고 재밌는 컴퓨터 관련 자격증 하나만을 목표로 삼아 취득했습니다. 그 이후 재미 없는 한국어 자격증, 생소한 회계 자격증 등을 '차근차근' 하나씩 취득해 나가며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재미'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어 멘탈을 관리했습니다.

그 결과 일과 취업준비를 병행하며 벌인 3년간의 장기 레이스 끝에 7개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필기 전형에 합격했습니다. 학교, 직장 등 제한된 환경에서 꿈꾸는 여러분들의 가장 큰 적은 조급한 마음입니다. 항상 이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씩 차근차근 전략을 세운다면 꿈을 위해 한 발자국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나도 모르는 새 쌓인 나의 가치'

어려운 필기시험을 합격해 9부능선을 넘고 면접만 남겨 둔 당신!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고 '내 자신의 숨겨진 가치'를 찾는다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HUG 면접관이 고졸 용접공인 제 면접 중 가장 만족한 답변은 뭐였을까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명과 암' 같은 직무 관련 이야기? '주택도시보증금 운용방향과 리스크 관리' 같은 전공지식? 모두 아닙니다. 그럼 과연 뭐였을까요?

면접관은 제가 HUG의 직무와 무관한 용접공 일을 하면서도 꿈을 이루기 위해 주경야독하며 얻은 끈기와 인내, 가장 힘들었던 파견근무를 극복하며 얻은 직무에 대한 성실한 태도와 경험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린 나이에 학교에 다니면서 또는 회사에 다니면서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 어른이 되어 가고 역량과 경험을 쌓으며 여러분만의 가치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기업과 면접관이 원하는 건 바로

그 여러분만의 가치입니다.

저 역시 제가 부족한 '전문지식', '직무관련경험'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증점적으로 준비했지만, 결국 제 합격을 결정한 건 고졸 용접공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온 나만 가질 수 있었던 나만의 가치였습니다. 여러분도 면접에서 부족한 부분에 집중하지 않고, 여러분도 모르는 새에 쌓인 여러분의 가치를 만들고 찾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 가치를 인정받고,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164번의 치열했던 도전

국민건강보험공단 | 신○○



안녕하세요. 5년이란 시간 동안 총 164번의 공공기관 지원을 통해 2021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하반기) 고졸 채용 전형에서 최종 합격을 하여,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신○○ 주임이라고 합니다. 저의 첫 공공기관 합격은 2018년이었으나, 두 번의 타 공공기관 이직을 통해 현재는 2021년에 합격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만족하며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서 저의 수기로 공공기관 고졸채용 준비생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21번의 도전, 너무나 높았던 필기 합격이라는 벽

고등학교 3학년, 많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공공기관 채용 입사 지원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당시 전공이 전기·전자였기에 고등학교 3학년 이전에 전기기능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높은 성적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공공기관 취업 준비반에서 NCS 문제도 풀며 첫 공공기관 입사 지원 준비를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2016년 3월, 드디어 제 인생 첫 공공기관 채용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연습했던 난이도와는 차원이 다른 필기 시험 문제를 경험하면서 첫 필기시험 탈락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번째, 열 번째 등 계속되는 서류와 필기 불합격 속에서 교내 선생님들의 저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 동안 21번의 공공기

관 지원을 했지만 서류를 합격해도 매번 필기에서 탈락하면서 마지막에는 담임 선생님의 권유로 중소기업 생산직으로 취업하였습니다.

🔍 졸업 후 59번의 도전, 노력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

졸업 후 20살, 성인이 되고 한 모든 결정에 대해 책임이 따르기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였지만 여전히 공공기관에 대한 미련은 사라지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보던 동기부여 영상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 있습니다. “바둑 판에 의미 없는 돌은 없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 말처럼 과거의 실패가 모여 언젠간 큰 성공으로 돌아오리라 전 믿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3개월 만에 중소기업을 퇴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청년인턴(고졸 채용) 5개월을 병행하면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한국사 2급을 취득하는 등 서류 전형에서부터 다시 저의 부족한 부분을 차근차근 채워나갔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틀도 개선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서론 부분이 길었던 문제점을 새로 발견되면서 자기소개서 맨 앞 줄에 결론을 먼저 제시하는 두괄식 작성법을 적용하여 저만의 자기소개서 틀도 만들어 갔습니다.

필기 전형에서는 나만의 분석 노트를 만들어 보기로 하였습니다. 필기시험에서 답안지에 마킹을 끝내고 나면 항상 약 2~3분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번 시험에서는 NCS 문제가 어떤 유형이 나왔는지, 어려운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훑어보면서 문제 유형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종료된 후 해당 문제의 키워드나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집 중 비슷한 문제들을 노트에 정리하면서 문제 출제 유형을 스스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18번의 필기시험에 응시하고 분석노트를 정리하다 보니 NCS 10개 과목 중 특정 과목이 나온다고 하면 어떠한 문제가 나올만한지 점점 예상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NCS 시험은 제한 시간 안에 단순히 많이 맞추는 시험인 것을 깨닫게 되면서 어려운 문제는 과감히 포기하고 내가 풀 수 문제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필기시험에서 불합격하더라도 커트라인과의 격차가 점점 좁혀지면서 풀은 문제 수 대비 정답률 또한 상승하고 있음을 직접 실감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졸업 후 59번째 도전이자 내 인생 80번째 도전만에 필기시험 결과를

확인하라는 핸드폰 문자가 왔습니다. 지원사이트 로그인을 한 순간 “축하합니다. 귀하는 필기 전형에 통과하였습니다. 증빙서류 준비 후 면접 전형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상단의 축하 문구가 저를 반겨 주었습니다. 누구에게는 보잘 것 없는 1번의 필기 합격일 수 있으나 저에게 만큼은 79번의 실패를 통해 얻어낸 값진 1번의 필기 합격이었습니다.

합격 후 62번의 재도전, 쉽지는 않았던 이직

수십 번의 도전 끝에 공공기관에 합격했다는 기쁨도 잠시 군대 전역 후 다시 먼지 묻은 NCS 책을 꺼내며 또 한 번의 공공기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첫 합격한 공공기관을 본가에서 출퇴근하였지만 수도권임에도 왕복 3시간 30분이라는 긴 출퇴근 시간과 적성에 맞지 않는 현장 업무로 인해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군대 전역 후 2년 반 만에 NCS 문제를 풀다 보니 문제가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으며 서류 전형 합격 스펙도 상향평준화되어 이전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괜찮아. 79번의 실패도 이겨냈는데 이번엔 그 전에 합격할거야.” 라며 제 자신을 믿었습니다. 회사 재직 중에는 NCS 코드가 발급되는 사무업무 관련 직업교육 6개를 틈틈이 수료하면서 스펙을 쌓았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했기에 마음을 더 독하게 먹기로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기술직과 사무직 둘 다 지원을 시도하였으며 서류 적부로 모든 지원자에게 필기시험 기회를 주는 공공기관 채용공고면 무조건 지원하여 주말에는 항상 필기시험을 보러 다니기 바빴습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30분이라는 점을 활용하여 가방 속에 얇은 NCS 이론 요약본을 들고 다니며 전철 안에서 NCS 10개 과목 이론을 소설 읽듯이 읽으며 이론을 외웠습니다. 이 외에도 회식 후 집에 11시를 넘어 도착했을 때도 조금 쉬었다가 평소 어려워하던 NCS 문제 1~2문제라도 풀어보고 잠을 잤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2021년 상반기 타 공공기관 사무직 필기 합격과 더불어 최종 합격으로까지 다시 이어지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 마지막 38번의 도전, 5년 동안의 결실

한 번의 이직 후 근무한 지 2개월이 넘었을 때 2021년 하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채용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예전에 청년인턴을 했던 곳이기도 하며 막내였던 저를 많이 챙겨줬던 좋은 기억이 있기에 기회가 될 때 지원해 보고 싶었습니다. 인턴을 했을 때 알게 된 현직자 분들에게 다시 연락을 하여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황과 자기소개서 첨삭을 받았습니다.

간절함이 통했는지 2018년 이후 매년 떨어지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류 전형에 합격하였으며, 시중에 파는 NCS 봉투모의고사를 새로 구매하여 정해진 시간을 체크하고 풀면서 2021년 상반기 때의 필기시험 감각도 유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필기 전형은 커트라인 대비 5문제를 더 맞추면서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형인 대망의 면접에서 저는 제 스스로에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지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두 번의 공공기관 재직 경험과 국민건강보험공단 5개월 청년인턴 경험을 활용하다 보니 면접관께서 질문하신 답변에 전부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고 나왔습니다. 특히 상황(PT)면접에서는 청년인턴 시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본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경험해 본 것을 바탕으로 말하였고 면접관께서 저의 답변에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관문인 최종 합격 발표 날, “귀하는 2021년도 하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규 직원 채용에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라는 문구를 보는 순간 과거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속으로 ‘이 순간 위해 지난 5년 동안 100번이 넘는 실패와 다양한 근무 경험을 한 것이구나...’ 라며 깊은 생각에 잠김과 동시에 내가 가고 싶은 회사에 합격했다는 사실에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 바둑 판 위에 의미없는 돌은 없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명언 중 하나입니다. 총 164번의 공공기관 지원을 경험하다 보면 수많은 실패들도 분명히 나중에는 큰 성공이라는 결과물로 되돌아 온다는 것을 직접 실감하였습니다. 공공기관 고졸 채용은 첫 시작이 고등학교 3학년인 19살이다 보니 많은

지원자들이 어린 나이에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심리적으로 힘든 부분이 더 클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80번의 도전 끝에서야 공공기관 필기 합격을 처음으로 해 본 사람입니다. 즉 공공기관 채용을 준비하시는 똑똑한 여러분은 분명 저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합격이 가능하리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첫 도전에 합격하는 경우는 드물 수 있겠지만 제가 필기 전형에서 분석노트를 만든 것처럼 여러분도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여러분만의 방법을 찾아 개선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최종 합격이라는 문을 열고 공공기관 현직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취업 준비생 분들에게 곧 좋은 결과가 있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03

꿈은 그 꿈을 실현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최○○



“너는 꿈이 뭐니?” “... 없어요.”

꿈이 없다고 하면 괜한 눈치를 받는다. 나 역시 꿈 없이 살아가던 대학생이었다. 이런 나도 공공기관 입사를 꿈꾸고, 이루게 되었다. 약 10번의 탈락의 고배를 마시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좇을 수 있던 까닭은 공평한 채용 제도 덕분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대학교 2학년이었지만, 자퇴하고 공공기관에 골인하게 된 이야기를 전하여 고졸 채용이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알리고 싶다.

🔍 내 꿈은 선생님이 정한다

고등학교 담임선생님께 받은 첫 질문은 ‘꿈’이었다. 잔인하게도 나는 꿈이 없었다. 고민해 보라고 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도 꿈은 생기지 않아 매년 담임선생님들께서 꿈을 정해 주셨다.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나는 이것을 꿈이라 믿으며 살았다.

거짓된 꿈을 품고 19살 때 고졸 채용에 지원했으나 세상은 공평했다. 더 간절한 자가 합격의 글자를 보았고, 꿈이 없는 나는 불합격의 연속이었다. 내신이 좋고, 자격증도 많아서 서류 전형은 자신 있었는데, 필기가 고난이었다. 간절함이 없으니 공부하지 않았고, 불합격하는 일이 반복됐다. 20살까지도 취업하지 못하여 결국 포기하고, 21살 때 대학교

에 입학하게 되었다.

🔍 공공기관 인턴십으로 꿈이 생겼다

대학교 1학년을 마친 겨울 방학 때 공공기관에서 인턴십을 하였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통화로 제도를 안내해 드리는 업무를 맡았다. 무작정 화만 내거나 자꾸 말을 거는 분들이 많아 이 업무는 내게 스트레스로 다가왔다.

그때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 “전화 끊고 싶은데 어르신들이 자꾸 말 걸고 그러죠? 우리는 말할 사람이 많은데 그분들은 대화할 상대가 우리밖에 없으셔서 그래요. 조금 참고 들어 주는 게 우리 일이지 뭐.”

지금껏 잘 응대하지 못하고 화만 냈던 스스로가 부끄러워졌다. 부장님의 한 마디로 맡은 업무에 대한 사명감이 생겼다. 변화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응대하니 많은 분께서 고맙다는 말씀을 해 주셨다. 업무에 애정이 생겨 2개월이라는 시간이 짧게 느껴졌고, 국민과 평생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사업을 꾸리며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공공기관에 갈 거야!’ 두 달간의 인턴십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22년 만에 꿈이라는 걸 꾸게 해 주었다. 또한 일하는 것이 매우 즐거워 취업을 갈망하게 되었다.

🔍 입사 수기를 통해 자퇴를 결심할 수 있었다

공공기관 입사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을 찾아 보니 다들 많은 자격증과 풍부한 대외활동 경험이 있었다.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였는데, 이미 대단한 사람이기에 무엇을 해도 될 사람들이었던 것이라 느꼈고, 스스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다.

그때 고졸 채용 수기가 눈에 띄었다. 다들 만족하는 모습에 다시 한번 고졸전형에 도전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인턴십 경험 및 자격증을 살린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며 용기가 생겼다.

고졸 전형은 대졸 전형보다 경쟁률이 훨씬 낮기 때문에 대학교 졸업 후 입사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할 것이라 판단했다. 그렇게 한 학기의 고민 끝에 대학생의 신분을 벗게 되었다.

정보의 바다를 활용해 얻은 NCS 꿀팁

자퇴 후 매일 독서실에서 NCS를 공부했다. 20살까지만 하더라도 필기 공부에 열정이 없었는데, 내 꿈을 두고 공부하니 문제를 풀어갈수록 흥미가 생겼다.

그러나 문제집을 5권쯤 풀었을 때 문제들이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자퇴생이기에 도움받기 애매한 위치였던 나는 막막해졌다. 이때 많이 도움됐던 것은 취업 관련 '온라인 카페' 및 '오픈채팅방'이었다. 통합기본서 혹은 문제은행 방식의 문제집만 풀었었는데, 영역별 문제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리영역에서의 시간 단축을 위해 특히 노력하였는데,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적힌 문제집을 많이 보았다. 정답이 무엇인지보다 풀이를 단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문제집에 직접 문제를 풀지 않았다. 연습장에 문제를 풀며 책은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였고,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돌려보아 풀이를 익혀 가며 놓친 부분을 점검하였다. 덕분에 자신 없던 수리영역에 가장 자신감이 붙을 수 있었다.

지원 회사의 이전 필기유형을 파악하기도 했는데, 내가 입사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모듈형이라는 후기가 많았다. 이론을 정리한 필기 노트를 만들어 노트에 적은 부분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외웠고,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 보며 이론서에 나와 있지 않은 것도 외우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NCS 합격을 할 수 있었다.

혼자여도 함께 준비한 면접

면접 준비에서 가장 처음으로 한 것은 나를 돌아보는 것이었다. 스스로 최대한 자랑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어떤 것을 자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였다. 1~2일 정도 조그만 일이라도 다 적어 놨던 것 같다. 예상 질문에 답변을 쓰며 혼자 연습하다가 함께 준비하

는 게 좋을 것 같아 면접스터디를 알아보았다.

풍부한 경험이 있을 것 같아 대졸자와 함께 면접스터디를 진행하였다. 실제로 다양한 경험을 들을 수 있었고, 스터디원의 답변을 인용해 나만의 대답을 만들 수 있었다.

처음에는 다른 회사에 지원하는 분들과 스터디를 진행했다.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다음에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지원한 다른 직렬분들과 진행했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스터디를 하다 보니 미처 찾아보지 못했던 회사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두 번밖에 만나지 못했지만, 오픈채팅방으로 정보 및 답변들을 공유하며 유용한 것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

직무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여 관련된 편람이나 법률도 읽어 보았다. 예상 질문에 답변을 정확하게 써두지 않고 키워드만 미리 뽑아둔 채 질문에 맞게 문장을 만드는 팁도 얻었다. 정확한 워딩이 생각나지 않아도 임기응변을 통해 답변할 수 있게 되었다.

대망의 면접 날, 내가 준비한 질문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조금 당황하였지만 공공기관 인턴십 등의 경험과 앞서 준비한 과정 덕분에 답변할 수 있었고, 좋은 결과를 받게 되었다. 고졸자 차별에 대한 걱정이 없진 않았는데, 걱정과 달리 다들 따뜻하게 대해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기도 하신다. 덕분에 한가원 막동으로 만 2년째 열심히 일하는 중이다.

공공기관 취업에 뛰어드는 고졸자들에게

진심이라는 것이, 꿈이라는 것이 사람을 바꾸고 실현하게 한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할 수 있다!'를 되뇌었다. 취업해야 하는데 자꾸 실패한다면, 두 가지를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이 취업에 진심인가?'이다. 정말 이 일을 하고 싶은 건지, 다들 하려고 하니 까 좋아 보여서 그런 건지, 취업할 때가 됐는데 막상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지원하는 건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진심과 노력을 누군가는 알아준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이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기왕 하는 취업, 유명한 데로 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메이저 기관일수록 경쟁률이 매우 높다. 그만큼 필기도 면접도 잘 보는 사람들이 많이 지원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관 이름이 아닌 희망 직무다.

국가에서 ‘잡알리오’를 통해 공공기관 채용 공고를 원하는 검색 키워드별로 볼 수 있도록 해 두었다. 이 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기관의 채용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어느 기관이든 상관없이 지원해 보길 바란다. 스펙을 쌓고 직무 전문가가 된다면, 원하는 기관으로 이직하는 것이 한층 수월해질 것이다.

공공기관 고졸채용은 고졸자에게 정말 좋은 기회이다. 많은 사람이 이 기회를 알게 되어 고졸 취업자가 많아지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 그만큼 고졸 취업에 만족한다. 대졸자보다 3~4년 앞당겨 실무를 빠르게 접할 수 있고, 공부하고 싶다면 선취업-후진학제도를 통해 대학교에 입학할 수도 있다.

꿈이 무엇이든 스스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모두 꿈을 이루길 소망한다. 아직 꿈이 없더라도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길지 모른다. 다양한 것을 경험하며 꿈이 생기길 기다리면 된다. 주변과 비교하지 않고 본인의 속도에 맞게 꿈을 이뤄 나가면 되는 것이다.

대학교 2학년인데 고졸 취업을 하게 된 나처럼.

남들과 다른 길의 종착지이자, 시작에 이르기까지의 여정

한국토지주택공사 | 김○○



저는 2023년 10월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123.6:1의 경쟁률을 뚫고 6급 고졸 건축군 전기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여기에 오기까지 수많은 선택, 노력, 열정들이 있었고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만 18세의 이른 나이에 공공기관 입사라는 쾌거를 이루어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시절 우수한 성적에 근거하여 주변 지인, 선생님들께 서는 자사고나 일반고에 진학하여 대학을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하셨습니다. 대학에 진학하는 것도 당연히 인생에서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의 시대는 전문화, 기술의 고도화를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마이스터고에 진학하여 전공 전문성을 특화하는 것이 제 인생 커리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주변 사람들의 예상을 뒤집고 마이스터고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학교에서 마이스터고에 진학하는 사람은 저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3년 뒤 여러 사람 앞에서 증명해 보였습니다. 물론 '일찍 공공기관에 입사한 것이라는 결론에 매몰되어 자만 또는 착각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다른 경쟁자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간절한지, 이 취업시장이 얼마나 잔인한지 학우들의 사례를 통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필기 시험에서 0.1점 차이로 탈락한 학우, 최종 면접에서 아쉽게 탈락한 학우.... 이러한 사례는 들을 때마다 안타까웠지만 한편으로는 더욱 학업에 매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123.6:1의 경쟁률을 뚫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입사하게 되었는지, 그 여정과 어떻게 헤쳐 나갔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스펙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기업의 대부분의 채용 절차는 서류 - 필기 - 면접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중 첫 관문인 서류 전형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스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졸 채용에서 모든 회사의 서류 전형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1. 전공 분야 기능사 2개 이상, 2. 한국사 1급, 3. 토익 700점 이상, 4. 컴활 2급 이상'의 네 가지 요소면 대부분의 서류 전형을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고졸 채용의 서류 전형은 적부로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서류 배수를 도입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스펙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고졸 채용 서류 전형에서 토익 700점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서류의 5% 가점을 부여하였습니다. 다른 서류 가점 사항이 고등학교 3학년으로서는 대부분 얻기 힘든 가점들이었기에, 이는 서류 전형 통과에 핵심이었습니다. 토익 점수를 높여 안정적으로 서류 전형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준비를 해놓지 않았다면 필기를 아무리 열심히 준비했다라도 서류 전형의 문턱에서 좌절했을 것입니다. 더불어 필기 전형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기업의 과년도 채용 공고들을 파악하여 어떠한 가점이 필요한지 알고 그 가점을 위한 스펙을 준비하는 것이 먼저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NCS는 꾸준함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NCS는 재능 아니야?', 'NCS는 해도 안 늘어'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틀렸습니다. 모든 시험이 그렇듯이 문제에서 핵심을 찾아내는 것이 PSAT 유형의 문제에서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의사소통능력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비문학 지문에서 각 문단별로 핵심 키워드를 빠르게 찾고 이를 취합하여 중심 내용을 만드는 연습을 많이 하면 충분히 점수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이 의사소통능력에만 국한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최근 수리능력에서 도표해석 유형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흔히들 하는 실수가 문제와 전혀 관계 없거나 한눈에 봐도 필요 없는 부분을 계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들만 보더라도 ‘핵심’을 찾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능력은 재능이 아닙니다. 후천적으로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기르는 방법으로는 지금 당장 책을 펴서 읽는 것입니다. 이게 뭘 똥판지같은 소리냐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 따르면 1년간 성인이 읽는 책은 평균 4.5권에 불과합니다. 365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5권도 채 못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책을 읽는 것에 무관심하다는 것인데, 저는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PSAT형 NCS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곱씹으며 읽는 과정에서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은 자연스럽게 길러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듈형 NCS는 어떻게 점수를 향상시켜야 하는가? 모듈형의 점수를 늘리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암기입니다. 모듈형이란 NCS 직업기초능력 단위 학습 자료를 기반으로 출제되는 문제 유형을 말합니다. 이 말인즉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NCS 모듈형(교수자용)만 모두 암기한다면 모듈형은 만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수자용은 그 양이 방대하여 모두 암기하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따라서 시중의 모듈형 기본서를 바탕으로 학습한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배포하는 예제 문제를 모두 풀어 봅니다. 이후 모르는 문제들은 교수자용 자료와 대조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별도 정리하며 보완해 가는 방법이 짧은 시간 안에 빈틈없이 암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면접은 내가 말을 얼마나 잘 하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으며,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좋은 회사는 한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습니다. 한국 토지주택공사의 경우 2023년 채용 용역 예정 가격을 약 34억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만큼 인재를 채용할 때 기업에 부담이 될텐데, 당연히 회사를 잘 알고 진심인 사람을 뽑고 싶을 것입니다. 말은 지식을 전하는 도구일 뿐 지식이 없으면 말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화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면접관들은 하루에도 수많은 면접자들과 마주합니다. 따라서 피로가 누적될 텐데,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핵심을 먼저 말하는 두괄식을 잘 사용하는 면접자에게 호감을 느낄 것입니다. 요약하면 지식을 말로써 얼마나 잘 풀어내느냐가 면접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성(직무)면접을 대비할 때는 회사에 대한 지식을 평소에 많이 쌓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저 또한 경험에 대한 질문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홈페이지와 최근 보도자료에서 무슨 사업을 진행하는지, 지원 직군의 직무는 무엇인지, 그에 대한 필요한 능력은 무엇인지 등을 주로 학습하였습니다. 그 덕에 면접에서 관심 있는 세 가지 사업을 설명하라고 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알고 있는 지식을 잘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AP(Analysis & Presentation)형 PT 면접을 대비할 때는 회사와 관련한 모의 주제를 선정하고 시간에 맞추어 보고서를 작성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 흔히 하는 실수가 최대한 많은 내용을 자세히 적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세 첨부 파일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지, 핵심 보고서에 들어갈 내용이 아닙니다. 핵심 보고서에는 '현재 상황, 문제점, 해결 방안, 예상 효과, 결론'의 순서로 목차를 구성한 후 소제목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쓴 보고서를 발표할 때, 사측에서 제공해 준 자료에 있는 세부 수치를 암기하였다가 발표할 때 곁들여 준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수치와 자료를 소수점 단위까지 정확하게 암기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 제가 거쳐 온 여정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방법들을 작성해 봤습니다. 현재 각자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테고, 목표를 이루었다고 생각하여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각자 인생의 종착역까지를 구성하는 길은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자신과 가는 길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이 가고 있는 길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 길은 오롯이 본인이 선택하고 책임지고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어둠 속을 걷고 있다고 느낄 사람들도 또한 자신만의 길을 지나왔고 개척하는 중이며 끝내 그 길을 밝힐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이 글을 개척자들에게 바칩니다.

나는 멈추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양○○



안녕하세요. 2022년도 하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졸 채용으로 입사하여 현재 징수 1팀에서 지역가입자 압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후, 1년 6개월간 직장과 병행하며 2022년도 하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이직 과정을 공유하여 공공기관 입사를 준비하는 모든 고졸 취준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최종목표, 공공기관 취업

중학생 시절, 공부에는 하나도 관심 없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인문계에 진학하여 좋은 대학에 갈 자신이 없었던 저는 친언니를 따라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취업을 목표로 내신을 가장 우선으로 관리하였고, 직업 관련 특강과 체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특강 중 “선배와의 만남”을 통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선배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게 되었고 학급 임원, 학생회, 동아리, 교내 활동,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하게 참여하여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Q 취업 압박, 흔들리는 고3 취업생

고등학교 3학년 하반기가 되면서 채용 공고가 많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취업에 성공하여 실습을 나가는 친구들을 보며 저 또한 불안했고, 스스로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 불안과 압박에 휩쓸려 최종목표였던 공공기관이 아닌 중견기업에 지원하게 되었고, 첫 면접에서 최종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중견기업 입사 전까지 공공기관에 계속 지원하여 노력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 취업이라는 목표에는 달성 실패했지만,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직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업무역량을 인정받아 우수사원상도 받았지만, 공공기관 입사에 미련이 남아 있던 저는 맡은 업무에 완벽히 적응되었을 무렵, 공공기관 최종 합격자 수기를 보며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많은 공공기관에서 직무 중심 채용인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었고, 1년 반 동안 사기업에서 쌓은 다양한 직무 경험이 공공기관 채용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재학 당시 목표였던 공공기관 취업을 다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Q 두 배 더 어려운 직장 병행 이직

직장과 병행하다 보니 근무 시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이 부분은 타 지원자보다 불리한 점이라고 생각하였고, 시간을 쪼개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서류 전형

출퇴근 시간을 활용하여 공단 보도자료를 통해 핵심사업과 현재 이슈를 조사하였고,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부족한 자격증을 준비하였습니다. 채용 시즌에는 퇴근 후 여러 기업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등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여러 공공기관의 서류를 작성하면서 두괄식 작성법을 익힐 수 있었고, 문항의 중요 부분을 파악하여 물어 보고자 하는 내용에 경험을 녹여 작성하였습니다. 두괄식 결론-상황-행동-결과-배운 점 및 입사 후 포부 순서로 기본 틀을 잡았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누가 읽어도 상황이 그려질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지만, 핵심 내용은 다 담고자 하였습니다.

필기 전형

첫 필기시험에서 42점을 받았습니다. 필기 때문에 도전하기도 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듯 저도 채용 과정 중 NCS 필기시험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서류는 무난하게 합격하는 편이었지만, 필기시험은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기업마다 필기유형을 찾아보고 기초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평소에는 기본서로 기초를 다지고, 서류 합격한 이후 해당 기업의 문제집 또는 봉투 모의고사로 필기를 대비하였습니다. 문제를 많이 접하다 보니 풀 수 있는 문제, 버릴 문제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1분에 1문제씩 풀어야 하는 필기시험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여러 기업의 필기시험에 응시하면서 수리 능력이 가장 취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서를 조금 바꾸어 의사소통→문제 해결→수리 순서로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에서 정답률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면접 전형

취업 준비를 시작하고 1년 정도 지난 후 예상하지 못했던 기업에 필기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조사와 면접 후기를 찾아보면서 예상 질문을 뽑아 답변 스크립트를 작성하였습니다. 경험 정리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라 감을 잡기 어려웠고, 면접 스테디를 하면서 다른 지역 지원자보다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필기 합격하여 기업조사와 경험 정리를 우선으로 준비하였고, 면접 스테디를 통해 모의 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경험 정리는 스크립트가 아닌 키워드를 작성하여 면접장에서 바로 떠올릴 수 있도록 간단하게 작성하였고, 비슷한 질문끼리 묶어 한 가지 경험으로 상황에 따라 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실제 면접장에서는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직무역량을 강조하였고, 직무와 연관된 답변으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년 6개월 노력 끝에 얻은 환승 이직

“○○○님, 축하합니다! 귀하는 2022년도 하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규직원 채용에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이 한 문장을 보기 위해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직도 최종 합격했던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누구보다 옆에서 믿어 주고 응원해 주셨던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딸이 된 것 같아 너무 뿌듯했습니다.

직장을 병행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이 매우 힘들고 필기 탈락과 최종 탈락을 겪으며 좌절도 많이 했지만,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빠르게 준비하지 못한 저를 꾸짖어 주고 싶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사하여 소중한 동기들과 즐거운 회사 생활을 하고 있으며, 저보다 뛰어난 선배님들과 함께 업무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고졸 채용 100% 활용하기

공공기관으로 이직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고졸 채용’ 전형이 있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채용제도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직무 경험이라는 유리한 점을 찾아 나름대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나가서 좋은 회사에 들어간 선배들 없어.”

사기업 재직 당시, 퇴사를 고민하고 있을 때 팀장님과 면담 시 들었던 말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꼭 해내야겠다는 다짐과 함께 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본보기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 고등학교 때부터 꿈꾸던 공공기관 최종 합격이라는 목표에 달성하였고, 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누구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재직자 전형을 통해 대학에 입학하여 조금 더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수기를 읽는 이직을 준비하는 고졸 취준생뿐만 아니라 모든 고졸 취업준비생 여러분께 작은 희망과 힘을 얻길 바라면서 글 마치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모든 고졸 취업준비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암흑 속을 걷는다는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 | 이○○



안녕하세요. 저는 공업계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행정직으로 올해 4년째 근무 중입니다. 제가 입사수기를 쓰게 된 계기는 졸업을 앞두고 공기업 취업시장에 뛰어들려는 예비졸업생,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 뛰어들 미래의 공직자분들께 현재까지의 일련 과정을 서술함으로써 고졸 채용만의 장점, 취업준비를 하면서 생긴 노하우, 입사하고 나서의 마음가짐 등 공기업을 준비하는 고졸자분들에게 길잡이가 되고 싶어 이 합격 수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 누구나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공기업 취업에 도전한 저는 오만함과 나태함 그 자체였던 거 같습니다. 준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공기업 취준생이면 누구나 선망하는 기업 중 하나인 한국조폐공사와 한국전력공사 필기를 동시에 붙였으니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 공기업 생각보다 쉽네?'라는 오만함을 가져 어영부영 대충 준비하다가 면접 전 3박 4일로 해외여행을 갔고 면접 전날 귀국해 면접을 보러 갈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이때 붙었으면 좋았겠지만, 남들이 선망하는 자리는 준비된 자만 있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일 이후 스스로의 과오를 반성하고 본격적으로 공기업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 끊임없이 움직여라, 절대 멈추지 마라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하면서 공기업 준비를 위한 정보, 내가 부족한 지식,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보 탐색) 우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채용이 진행될 수 있기에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고졸 채용만이 들어간 채용 정보 및 채용 공고 알림 등을 받아 채용 일정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채용 관련 사이트에 들어가서 일정을 확인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었습니다.

(역량 강화) 1년에 한 번 하반기에만 주로 하는 고졸 채용 특성상 한번의 실패를 겪게 되면 원하지 않는 공백기가 생겨 그 시간을 활용하고자 전공이 아닌 행정직에도 도전하기 위해 컴퓨터활용능력 및 한국사 자격증 취득에 도전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고졸 채용만이 가지는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직렬 준비생들께서는 ‘내 전공이 기술이니까 기술만 준비해야지’라기보다는 우선 행정직도 같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고졸 사무직 채용전형에서 전문적인 지식 및 자격을 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NCS점수로만 필기 불합을 가리는 경우가 많고 면접 또한 인성 및 상황 면접으로 분별하기에 제 전공인 기계·전기와 행정 다 준비하였고 행정직으로 합격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기술직렬로 취업하고 싶으신 분들도 먼저 취업하시고 이직이라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직장이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에서 준비하는 것은 본인의 의지 문제이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인간관계능력 및 문제해결능력 습득)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사회생활이 서툴기 때문에 경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직무경험을 할 수 있는 청년인턴제도가 가장 이상적이고, 아니면 집 근처 아르바이트도 괜찮습니다.

저는 특히 공공근로제도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및 공공시설에서 업무보조 작업을 하는 단순 아르바이트인데, 공무원분들께서 하시는 업무, 민원을 응대 하시는 방법 등 훗날 우리가 공직자가 되었을 때 하게 되는 민원 응대와 크게 다르지

않을 업무를 돈 받으면서 몸으로 배운다는 것은 본인에게 큰 거름이 될 것입니다. 저 또한 공공근로를 하면서 컴퓨터 사용이 미숙한 어르신들을 옆에서 직접 도와 드리고, 알려 드리면서 민원 응대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면접준비를 필기 합격 후에 하시는데 면접은 10~20여 분의 짧은 시간 동안 내가 살아온 방식, 태도, 행동을 풀어 내는 시간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악성 손님들을 만나면서 위기대응능력, 문제해결능력, 즉 임기응변을 기르고 그것이 면접에서 내가 찢찢매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면접전형에서 ‘민원인을 기쁘게 한 경험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을 받아 공공근로에서의 경험을 말하여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공부하면서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Q 저는 말하는 감자예요, 그런데 열심히 합니다!

처음 입사하면 의욕이 넘치고 업무를 주도해 나가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의사결정에는 큰 책임이 따르고, 국민의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돈 관련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면이 있기에 신입사원인 여러분께서는 일을 시키기보다는 사수 옆에서 배우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입사원에게는 크게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기본적인 것만 잘 지키고 시켜 주시는 것만 잘 수행하면 됩니다. 먼저 인사 잘하기, 모르는 건 즉각 양해를 구해 물어 보고 도움을 받으면 감사 표현하기, 사수에게 도와드릴 건 없는지 여쭙 보기 등 여러분께서 업무에 잘 적응한 모습을 보일수록 상급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상급자들은 열심히 하고 적극적인 사람과 함께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흐르지 않는 물은 썩기 마련

많은 취업준비생분들이 “합격하면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 또한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당장 회사에 적응하기 위해 업무내

용을 정리해 둔 편람 숙지 및 업무 유관 법 조문 숙지 등 어찌면 취업준비를 할 때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기계발을 위한 자격증 취득, 승진시험이 있는 경우에는 승진요건 충족 등 공부는 끊임 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저 또한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운영 중인 사내대학에 입학해 3년째 학습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엔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약 5개월간 공부하였고, 현재는 감정평가사 도전을 위해 준비 중입니다. 고졸 채용을 통해 공공기관에 입사하시는 미래의 후배분들도 공공기관에 입사했다고 안주하지 말고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학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일과 학습을 동시에 행한다는 건 무척이나 괴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통 없이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한 걸음 움직이는 것도 다리에 신경을 가하는 행동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 만큼 그 한 걸음이 거인의 도약이라는 것을 훗날 뒤돌아봤을 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 지나고 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약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취업준비를 하면서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특히 1년 중 하반기에 한 번만 몰아서 하는 고졸 채용의 경우에는 더욱 그 공백기가 길게 느껴지실 겁니다. 저 또한 그 기간 동안 매일매일이 괴로움, 자괴감의 연속, 심지어는 극단적인 생각을 할 정도까지였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이 흑백같았고 나중에는 암흑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것 같았지만, 혼자 작은 방안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방문을 열면 얼마나 거대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 채로. 암흑 속에서 계속해서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합격했을 때의 모습, 합격하고 난 후의 미래 등 성공한 미래를 계속해서 꿈꿔 왔고 그 꿈을 원동력으로 노력했기 때문에 합격이라는 방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도 저처럼 보이지 않는 미래, 암흑 속을 걷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진해 나간다면 원하는 과실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미래의 공직자 여러분들! 합격이라는 방문을 힘차게 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기관 입사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공공기관 입사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II

블라인드 채용

- 1 직무능력중심채용의 증인, 나는 30대 중반의 중고신입입니다
- 2 안녕하세요? 대졸공채로 입사한 휴학생 신입사원입니다!
- 3 직무능력중심 채용이었다, 그래서 자신있었다
- 4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不殆), NCS를 알고 나를 알면, 채용 뿌시기 끝!
- 5 느림보인 나도 했으니, 다음은 당신 차례가 되길
- 6 배움이 쓰임이 있을 것, NCS 직무능력중심의 '취린이' 채용 가이드

직무능력중심채용의 증인, 나는 30대 중반의 중고신입입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김○○



“2021년 정규직 채용 공고 최종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근무 중에 받은 합격 통보에 바로 화장실로 달려갔다. 심장이 쿵쿵쿵 뛰었고, 재차 로그인해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해도 최종합격이었다.

저는 30대 중반에 4개월 된 아기가 있는, 10명 남짓한 스타트업에서 내열성 소재 합성 연구와 기계설비 엔지니어링을 담당하는 엔지니어였습니다. 그 흔한 자격증도 없이 공공기관으로 이직을 결심할 수 있었던 계기는 직무능력중심채용이라는 제도와 연구에 대한 자신감의 콜레버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저의 입사수기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공공기관으로의 입사·이직을 희망하는 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서류전형

‘직무능력’ 중심

NCS 채용에 대해 찾아보면서 고스펙 중심이 아닌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어필하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채용제도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서류부터 면접까지 모든 전형에 걸쳐 직무적합성에 집중하여 준비했습니다.

저는 전자산업이 발달하면서 일상 생활이 화재에 더욱 쉽게 노출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연구직 채용공고에 끌렸습니다. 직무 분석을 위해 소방 기술연구에 활용되는 실험설비들과 최신 이슈를 찾아보았으며, 내가 다룰 수 있는 기계 설비와 분석장비, 특허와 관련된 내용들을 매칭시켜 내가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고, 직무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소개서에 어필했습니다.

서류에서는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동안 배웠던 지식과 걸어 온 길들을 일관성 있게 요약하여 과장하지 않고 녹여냈습니다.

TIP. 경험노트

경험노트란 학교에서 배운 수업내용이나 조별과제, 프로젝트나 인턴 등 내가 걸어 온 길을 기록해 보면서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 간략하게 요약하는 노트입니다. 대단한 경험·경력이 아니더라도 그 속에서 무엇을, 왜 느꼈는지 담백하게 쓴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전달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꾸준히 기록해 둔다면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필기전형

나는 아빠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4개월 된 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아들을 씻기고, 집안일을 하고 나면 와이프가 아이를 재우러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저녁 9시부터 저의 필기전형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나의 경쟁자들은 하루 종일 공부할텐데...’라는 걱정이 앞섰지만 그럴수록 더욱 시간을 쪼개서 공부했습니다. 주말에는 아기 낮잠을 재우면서 프린트물을 입에 물고 이론을 외우기도 했고, 시험일 막바지에는 점심시간에 화장실에 앉아서 오답노트를 본 적도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

저는 NCS 문제를 시간 내에 모두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8090전략이 있었는데, 80%의 문제를 90%의 확률로 맞추자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렇게 72점을 목표로 내가 풀 수 없는 유형을 빨리 스킵하는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기본서를 정독한 뒤, 자주 나오는 개념을 암기했습니다. 실전문제에서는 해설지를 꼼꼼히 보면서 내가 왜 틀렸는지 복기했으며, 운으로 맞춘 문제는 오답 처리했습니다. 오답률이 높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는 철저히 배제했으며, OMR카드에 답안을 마킹하고도 시간이 남았을 때만, 배제한 문제들을 풀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NCS 시험 75점, 전공시험 78점으로, 200점 만점에 153점으로 필기 전형에 합격했습니다. 필기 전형까지 통과하고 나니 직무능력중심 채용이 실제로 체감되었고, 나도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토론면접(1차 면접)

중간만 하자

유일하게 저의 전략(?)이 통했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면접은 5명 중 3명이 합격하는 합격률 60%의 전형이었기에 저는 중간 이상의 포지션을 안정적으로 선점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면접의 특성상 다른 지원자들이 본인들의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 노력하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강한 주장은 큰 리스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는 대화의 맥락을 잘 파악하는 것과 상대방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발언을 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했습니다.

준비 과정

최신 이슈 중에서 기술·경제·사회 문제로 나누어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휴대폰 녹음기를 켜고 혼자서 주제에 대해 찬·반 입장에서 녹음을 해 보았습니다. ‘어…음…’을 반복하는 것과 미괄식으로 말하는 습관을 고치기 위해 밤마다 와이프와 연습했습니다. 스테디

를 해도 좋지만 가족이나 친한 친구 등 나에게 진실된 조언을 해 줄 사람과 같이 해 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 토론면접에서 바로 앞의 지원자의 말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경청하는 자세와 핵심을 잘 짚고 있음을 어필했고, 말끝을 흐리지 않고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제가 정말 3등을 했는지, 몇 등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1차 면접을 통과하고 최종 전형에 갈 수 있었습니다.

🔍 최종 면접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의 검증 단계

최종 합격을 하고 나서 든 생각입니다만, 서류 전형에서 거짓이나 과장으로 통과했다면 면접관들을 완벽하게 속이는 게 아니고서야 최종 합격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미 경험이 많은 면접관들은 자기소개서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필기전형과 1차 면접에 투자한 시간이 최종 합격이 아닌 단순 경험으로 남게 됩니다.

진정성과 솔직함

면접이라는 자리가 자신을 어필해야 하는 자리인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너무 자신의 역량이나 성과를 드러내는 데 치중하기보다는 내가 왜 이 직무에 지원했는지에 대한 진정성 있는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면접은 '입사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 왔으며, 입사 후에는 어떻게 조직에 기여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질문을 받았으며, 직무에 대한 질문은 그동안 쌓아 왔던 지식과 기술 등을 종합하여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인성질문이나 일반상식에 대해서는 아는 만큼 대답하고 모르는 것은 솔직하게 나의 부족함을 인정했습니다.

면접장에서 나오면서 마음속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합격에 대한 확신이 없자, 차에 타면서 와이프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 위치가 어떻다느니 하며 탈락의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합리화를 하면서 집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결과적으로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고,

공공기관에서 정말 직무능력중심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가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은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글을 마치며

직무능력중심 채용: 스펙 줄 세우기가 아닌 전문성에 집중한 제도

말 그대로 직무능력중심 채용은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저의 경우 설비엔지니어링에 대한 고민과 연구를 하면서 꾸준히 기록해 온 연구노트들, 그리고 소재분석장비 활용 등이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직무능력중심 채용은 편견이 없습니다. 나의 전문성에 집중하다 보면 그것을 알아봐 주는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모든 공공기관 지원자 분들의 건투를 빕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졸공채로 입사한 휴학생 신입사원입니다!

한국전력공사 | 심ㅇㅇ



“심대리, 나이가 많이 어리던데 대학을 가지 않고 고졸 공채로 입사했나? 아니면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나?” 저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제 나이를 확인하신 후 이와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최근 줄어든 신입사원 채용규모와 그에 반비례하여 늘어나는 취업 준비기간으로 인해 20대 중후반, 30대 신입사원도 심심치 않게 보이는 와중에 24세에 입사한 남자 신입사원은 선배님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만 모두의 예상과는 달리 저는 4년제 대학 2학년 1학기를 마친 후 휴학 중에 ‘대졸 공채’로 입사했으며, 21개월의 군 복무기한을 마치고 육군 병장으로 ‘만기전역’을 하였습니다.

“심대리, 그게 가능한가?”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 블라인드 전형, 너는 누구냐?

지난 2017년 5월, 정부는 「평등한 기회 및 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발표하였고, 그해 7월과 8월 지방 공공기관을 포함한 약 500개 기관의 직원 채용 시 입사지원서에 성별, 나이, 학력 등 평가자로부터 하여금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요소를 배제하고 지원자의 직무능력 자체로만 평가하는 블라인드 전형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제가 입사했던 2021년 상반기 대졸 공채 또한 정식 명칭은 “대학 졸업 수준 공개 채용”이며, 당시 채용 공고상에도 대학 졸업 수준이란 입사 후 처우 수준(기본 연봉)

을 의미하며, 실제 학력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사무직의 경우에는 지원요건에 지원자의 최종학력은 물론, 별도로 출신 학과나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졸업 예정자나 학사학위 취득자 등 학력 제한이 있는 사기업과는 달리 열린 채용과 입사가 가능합니다.

입사 이후에도 실제 최종학력과 관계없이 대졸 수준 공개채용으로 입사한 합격자들과 동일한 연봉과 호봉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같은 직책과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준비를 통해 공공기관에 입사할 수 있었는지 하나씩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내 인생의 Turning point가 된 블라인드 전형

대학교 2학년 1학기까지 마친 후,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군 휴학을 내고 2018년 여름에 입대하였습니다.

입대 후 21개월간 복무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심신상의 이유가 있는 병사들이 병제대 절차를 대기하는 동안 그들을 관리하는 조교병사로 복무하였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상처에 공감하고 소통하며 큰 보람을 느꼈고, 추후 사회에 나간다면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입사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복무했던 당시에는 휴대폰 사용이 불가능하였기에 일과 시간 이후 사이버지식정보방(컴퓨터실)에서 가장 최근에 올라온 공공기관 채용 공고를 확인하였습니다. 운명적이게도 당시 제가 현재 재직 중인 한국전력공사의 2018년도 하반기 채용공고를 확인하였는데, 당시 대졸 공채임에도 고졸, 전문대졸, 대학 재학·휴학·중퇴자 등 실제 학력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다는 문구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전역 후에 입사지원을 해 보는 것을 목표로, 일과 시간 이후와 주말을 이용하여 한국사 자격증, 컴퓨터 자격증 등 필수 자격증을 취득하고 채용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 목표 실현을 위한 초석을 다지다

2020년 2월 전역을 하고 본격적으로 공공기관 취업에 도전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국에 막 창궐하던 시기였습니다. 전역 이후 뭐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던 자신감도 줄어드는 채용인원과 연이은 서류 탈락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 운이 좋게도 2020년 상반기 한국토지주택공사 체험형 청년인턴에 합격하였고 그해 6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동안 국공유지 토지보상 업무보조 역할을 수행하며 우수인턴으로 수료하였습니다. 인턴 경험을 통해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원활한 공익사업 수행을 위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며 공공기관 입사 의지를 되새길 수 있는 값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직원분들과 함께 직무 멘토링, 자소서 및 면접 피드백 등을 통해 실제 기관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직무들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함께 현직자 관점에서의 피드백으로 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 지피(知彼), 내가 맞설 상대를 정확하게 분석하자

인턴을 수료하고 군 휴학이 2021년 1학기까지였기에 복학 전 남은 기간을 본격적으로 정규직 채용에 할애하였습니다. 어학, 컴퓨터, 한국어 등 공공기관에서 가점으로 인정하는 자격증은 대부분 취득한 상태였고, 인턴 경력까지 새롭게 추가하였기에 서류전형은 수월하게 통과되었으나 이제는 필기 전형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기업에 따라 인적성 시험 유형이 상이한 사기업과는 달리 공공기관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라 실제 직무에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직무수행능력평가를 시행하였기에 일률적인 대비가 가능하였습니다.

먼저 정확한 필기시험 출제유형 분석을 위하여 국가직무능력 홈페이지(www.ncs.go.kr)의 채용모델 필기문항을 확인하고, 유형별로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의사소통, 문제해결, 자원관리 등 총 열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각각의 유형들이 나의 어떤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된 항목들이고, 실제 공공기관에 입사한 이후 어떻

게 해당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생각하며 분석했던 것이 필기 공부에 대한 원동력 및 동기 부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출제유형 분석이 끝난 이후에는 기본서를 풀며 빈출문제들에 대한 풀이법을 익혔고,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5급과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문제를 PDF로 다운받아 출력하여 풀이하였습니다.

남들과 차별화된 제 필기공부 포인트는 '해설을 보지 않고 문제를 정확히 이해한다'는 점입니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는 문제에 대한 해설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저는 맞춘 문제도 정답의 근거를 선지 하나씩 찾아내는 연습을 하였고, 틀린 문제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한 문제에 30분 이상씩 할애해 가며 정답의 근거를 찾아내었습니다. 30분이 지나도 정답의 근거를 찾기 어려운 문제는 시험장에서도 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해당 유형은 과감히 포기하였습니다.

이처럼 남들이 보았을 때는 비효율적인 공부방법으로 보이겠지만 철저한 문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저의 공부법은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이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험이 시작된 직후 첫 문제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빠르게 훑어 가며 문제번호에 완벽하게 풀 수 있는 문제는 동그라미, 시간이 소요될 것 같은 문제는 세모, 많은 시간을 들여도 풀지 못할 것 같은 문제는 엑스 표시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제한된 시간 내에 정확하고 빠르게 풀이해야 하며, 오답 감점 또한 존재하는 한국전력공사 필기시험을 전략적으로 풀이하여 100점 만점에 87.5점이라는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기(知己), 나를 정확히 이해하면 승리가 보인다

최종 합격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면접 전형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는 주기적으로 작성하고 있었던 저만의 직무기술서를 활용하였습니다. 이 직무기술서에는 제가 그간 해왔던 학생회, 동아리 등 경험사항과 아르바이트, 인턴 등 경력사항으로 나눈 후, 그러한 경험과 경력을 통해 키울 수 있었던 역량과 성과를 정리하여 기재해 두었습니다.

나만의 직무기술서와 실제 지원하는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무를 정리한 직무기술서를 비교하여 나의 역량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직무를 위주로 준비하였고, 기관의 인재상과 비전 또한 나와 유사한 점을 찾고자 꼼꼼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1년간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도자료를 확인하여 회사의 이슈를 나의 전공이나 관심사와 엮어서 심층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추후 공공기관 면접전형에 응시하게 될 때, 먼저 ‘나’라는 지원자의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통해 지원하는 기관의 어떤 니즈를 충족시킬지를 면접관들께 확인시켜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두 갈래 길 중, 사람이 밟지 않은 길을 걷는 중입니다

미국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을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아름다운 단풍이 든 숲속으로 향하는 두 갈래 길 중, 등장인물은 사람들이 걸은 흔적이 있는 길 대신 사람의 흔적이 없는 길을 택했고, 그것이 등장인물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제 인생에도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복학하기 전까지 마음껏 놀고 여행도 다니다가 남들과 비슷하게 복학하고 졸업하여 취업을 하는 선택지와, 블라인드 전형을 접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대비를 통해 남들보다 조금 먼저 도전하는 선택지였습니다.

저는 후자를 선택한 덕분에 국민들께 고품질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기관의 설립 목적 아래, 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일하고 사이버대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등 자아실현을 성취해 내고 있습니다.

업무와 학업 병행이 가끔은 고되기도 하지만, 오늘보다 더 나은 내가 될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오늘도 퇴근 후 전공서적을 펼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수없는 갈래의 길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내가 선택한 길이 올바르지 못한 길이라며 질책하기도 할 것이고, 자신들과

직무능력중심 채용이었다, 그래서 자신있었다

근로복지공단 | 황○○



🔍 석사를 마치고 공기업 준비에 뛰어들다

대학원에 입학할 때, 나는 미래의 내 모습을 훌륭한 연구자나 교수의 모습 정도로 그리고 있었다. 그러나 아득하게 먼 학문의 길은 그다지 밝아 보이지 않았고, 우직하게 공부만 하기에는 초라한 나의 배경이 자꾸만 학문이라는 이상보다는 취업이라는 현실을 보라며 재촉했다.

대학 시절 가장 큰 목표는 대학원 진학이었다. 그래서 열심히 학점만 쌓았다. 이렇다 할 스펙은 없었고, 수중에 보이는 자격증이라고는 사회복지사 1급, 워드프로세서, 그리고 천진난만 웃고 있는 사진이 박힌 운전면허뿐이었다. 취업에 쓸 만한 이력도 없고, 석사 학위를 바라보자니 취업에 가장 쓸모없는 스펙 TOP3에 석·박사 학위가 포함돼 있었다. 불안했다. 공부만 열심히 해서 좋은 학점만 받으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지내 온 시간이 후회됐다. 현실의 벽은 이상을 쫓는 길 못지않게 두렵고 막연했다. 고민이 계속됐다.

진로에 대한 이런저런 고민의 답은 직무능력중심 채용(NCS)에 있었다. 내가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찾고 그 기관이 요구하는 기본사항을 맞춘다면 승산이 있다고 확신했다. 우선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비록 교수는 못되더라도 학위가 부끄럽지 않을 취업을 하겠노라 다짐했다.

그렇게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듬해 8월, 나는 근로복지공단에 최종 합격했다.

🔍 이상과 현실 사이의 답, 공공기관 직무능력중심 채용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던 때쯤,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당시 나는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하며 재난복지연구인력양성사업단에 소속돼 연구했었다. 자연재해와 인적재해 등 다양한 재난에 관해 공부하고 그 재난 속에서 취약한 사람이 누구인지 고민했으며 우리의 사회적 역할은 무엇인지 토의했다.

대학원 진학과 동시에 관심을 가지던 분야는 고용 및 노동 시장이었고, 노동복지와 재난복지를 공부하며 자연스럽게 '산업재해' 분야에 대해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당연히 졸업논문도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재활서비스를 내용으로 준비 중이었다.

평소 연구를 하던 분야가 사회복지나 산업재해였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취업하겠다고 다짐을 한 뒤 어느 기업에 지원할지는 명확했다. 4대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었다. 모두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분야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었다.

학위는 쓸모없는 스펙일지 몰라도, 지금 하는 공부는 오히려 강점이 되리라 생각했다. 직무능력중심 채용이라는 방식은 대학원에서 하는 것들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직무능력을 기르는 과정처럼 보이게 했다. 스펙이 부족해도 직무능력중심 채용 방식은 불안 속에 희망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기본적인 요건은 갖추어야 했다. 서류전형의 정량적인 평가에서 경쟁력을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격은 갖추어야 했기 때문이다. 가고자 하는 기업들의 채용공고를 확인하면서 공통으로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했다. 통계프로그램이나 기본적인 OA는 익숙하게 다룰 수 있었기 때문에 사회조사분석사나 컴퓨터활용능력 같은 자격증은 어렵지 않게 취득할 수 있었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을 추가로 취득하며 서류 합격의 가능성을 높였다. 졸업논문을 제출하고 학위기를 받는 동시에 본격적으로 취업 시장에 뛰어들었다. 스펙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대학원 조교 활동이나 연구용역 활동을 했던 경험들이 직무능력과 관련이 있었다. 직무능력중심 채용 과정은 나에게 어떤 스펙을 갖추었

는지를 묻는 것이 아닌 우리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어떤 역량이 있고 어떤 경험이 있는지 물었고, 내 경험과 노하우를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었다. 탈락의 고배를 몇 번 마셨지만, 처음으로 건강보험공단의 서류전형에 통과하고서 가능성을 보았다. 그리고 아쉽게도 필기 전형에서는 불합격을 통보받았다. 곧 가장 가고 싶었던 근로복지공단의 채용 공고가 뜰 예정이라는 소문이 들려왔다. 탈락의 실의에 빠질 시간도 없이 다시 준비에 들어갔다.

🔍 채용인원 단 한 명, 그 자리는 내 것이라는 자신감

채용 공고가 떴다. 근로복지공단 채용 공고. NCS 직무기술서를 읽으며 온몸에 전율이 올랐다. ‘재활직’이라는 응시 분야는 정확하게 내가 가진 역량을 투영하고 있었다. 내가 공부했던 학문, 내가 경험했던 일들이 이 직렬에 퍼즐처럼 맞추어졌다. 당연히 재활직 분야 응시하고자 마음을 먹었다. 채용 공고를 다시 살펴봤다. 재활직 응시 분야에서 내 지역에 할당된 채용인원은 단 한 명, 깊고 짧은 고민에 빠졌다. 이내 결심하고 지원 버튼을 눌렀다. 직무능력중심의 채용이라면 단 한 명에게 주어지는 저 자리는 내 것이라 확신했다.

근로복지공단 채용 공고가 뜨기 며칠 전 건강보험공단의 필기 전형에서 탈락했기에 가장 큰 관건은 필기시험이라고 생각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채용 과정은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정 수준만 넘는다면 필기점수와 면접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선발하는 방식이었다. 준비 기간이 짧아 필기시험은 불리했지만, 면접장에만 들어가면 합격할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공부했다.

짧은 필기시험 준비기간 동안 최선을 다했다. 아침 일찍 독서실에 가서 밤늦게까지 NCS 기본서와 기출문제집을 풀며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반복 학습으로 약점을 보완했다.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는 직무능력중심을 기반으로 기업에서 원하는 직무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기업에 필요한 직무능력만 파악한다면 문제 유형에 선택과 집중이 가능했다. 따라서 필기시험 준비를 하며 문제 유형에 쉽게 익숙해질 수 있었고, 금방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여 공부할 수 있었다.

필기시험에 가까스로 합격하고 대망의 면접이 다가왔다. 필기 점수가 높지 않아 면접

에서 확실히 하지 않으면 내년을 기약해야 했다. 면접장에 들어서고 다대일 블라인드 면접이 시작됐다.

“근로복지공단의 재활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갈등 상황을 겪은 적이 있나요? 어떻게 해결했죠?”, “산업재해와 관련한 공부를 했다고 했는데 우리 공단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스펙을 초월한 직무능력에만 집중한 질문이었고, 그것이 나에겐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한 질문이었다. 면접스터디 한 번 하지 않고 들어선 면접이었지만 마치 오랫동안 준비한 듯 내 경험과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 자신감으로 모든 대답을 마치고 후련하게 마지막 인사하며 면접장을 나왔다.

며칠 후 떨리는 손으로 채용 결과를 확인하고 가장 먼저 홀로 두 자녀를 키워 낸 아버지께 전화했다. “합격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많이 우셨다.



입사 그후, 꿈을 잃고 꿈을 꾸다

역사는 정반합의 원리로 흘러간다는 변증법이 인간사 개개인에게도 적용됨을 믿는다. 학문의 길이 유일한 길인 줄 알았던 시절이 있었다. 그것이 부정되는 날 새로운 대안을 떠올렸으며 그 대안은 공공기관 직무능력중심 채용이었다. 목표를 잃어버린 자리에 새로운 목표를 세웠고, 그 결심에 직무능력중심 채용 방식은 자신감을 복돋아 주었다.

근로복지공단에 입사 후 어느 날 타 부서의 부장님께서 나를 불렀다. “혹시 그때 면접 본 ○○○님 맞죠?” 당시 면접관이었던 부장님이 먼저 날 알아봐 주신 것이었다. 부장님과 함께 식사하며 당시 면접에 관해 이야기했다. 많이 기억에 남은 지원자라고 말씀해 주셨다. 자신감이 넘쳤고 다른 이들과의 차별성도 보였다고 했다. “뽀글 잘하셨죠?” 하며 능청을 떨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입사 후 어느덧 3년의 세월이 흘렀다. 면접장을 향하던 자신 있는 발걸음은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계속되고 있다. 회사가 원하는 직무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직무능력이 일치할 때 그 채용은 더 크게 빛이 난다. 나는 여전히 이곳에서 꿈을 꾸고 있고, 직무능력

을 더 개발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나의 역사는 이렇게 계속 발전하고 있다.

아무런 스펙 없이 학위만 있었지만, 직무능력중심의 채용이었기에 자신 있었다. 다른 곳에서는 쓸모없는 스펙으로 여겨졌지만, 이곳에서는 소중한 경험으로 쓰였다.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에서는 쓸모없는 스펙도, 쓸모없는 경험도 없다. 오직 기회만 있을 뿐이다.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不殆), NCS를 알고 나를 알면, 채용 뿌시기 끝!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김○○



‘적의 형편과 나의 형편을 자세히 알면, 백 번 싸워도 결코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으로, 그 유명한 손무의 『손자병법』 구절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손자병법』이라고 하면 그 옛날, 전장을 누비던 장수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전쟁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필독서로 추앙받는 명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 중인 수험생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치열한 수험과정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구절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수험생이 이겨내야 할 적(彼)은 바로 NCS 기반 채용 시스템과 취업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이요, 나(己)는 수험생, 자신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입사 수기를 쓰고 있지만, 저 역시 몇 차례 수험 실패를 맛 본 경험이 있습니다. NCS와 자기(自)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패기만으로 부딪쳐 빚어 낸, 어찌면 예정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던 제가 NCS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노력한 결과 비로소 공공기관에 합격할 수 있었던 수험 과정과 방법을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겨내야 할 수험은 NCS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NCS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공공기관 채용에 활용되는 NCS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약자로, 산업현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 등 능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을 말합니다. 특히 채용 분야에서 NCS를 활용한다는 것은, “우리 기관은 이러이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원해”라고 할 때 ‘이러이러한 능력’을 표준화하여 정리하고, 지원자마다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도구를 개발해 채용 과정에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서류, 필기, 면접의 전체 채용 과정에서 NCS를 활용하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험생은 각 단계의 수험과정을 ‘NCS 맞춤형’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 서류 작성(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 항목은 NCS의 직업기초능력과 기관 고유의 핵심가치, 인재상 등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자가 이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각 문항에서 요구하는 평가요소와 행동지표를 고려해 내가 가진 역량을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럼 직업기초능력 항목 중 의사소통능력에 대해 작성하는 경우를 제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류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때에는 의사소통능력이라는 평가요소에 대해 깊은 고민 없이 ‘경청’, ‘소통’했던 경험을 단순하게 나열하는 방식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합격했을 때의 자기소개서에는 먼저 내가 가진 의사소통의 능력과 종류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주어진 상황에 적합한 능력을 중심으로 내용을 기술하였습니다. 이를테면 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www.ncs.go.kr)에서는 의사소통능력의 하위능력으로 문서이해·문서작성·경청·의사표현·기초외국어능력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 관련 자격증 취득 사실을 통해 문서작성능력(실용 글쓰기), 외국어능력(토익, 오픽)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해당 역량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대안을

제시한 사례들을 기술함으로써 보다 설득력 있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기소개서가 서류 전형 평가자료로 쓰이는 데만 그치지 않고 면접 전형에서도 활용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면접 과정에서는 자기소개서의 기술 내용과 면접의 답변 내용을 비교하여 일치성을 확인하고, 자기소개서 내용을 바탕으로 꼬리를 무는 세부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무 연관성 있는 내용을 진실하게, 또 충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2. 필기시험

[NCS] 수험생들 사이에서 흔히 'NCS 시험은 IQ 테스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부할 내용과 범위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오해로 NCS 필기시험은 공부를 하거나 안하거나 받는 점수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수험생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NCS도 꾸준히 준비하면 그 시간에 비례해 실력이 늘기 때문에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NCS 문제집을 구매해 예제를 풀면서 유형을 익히고, 문제풀기를 반복했습니다. 여러 문제를 풀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정답률이 낮은 등 취약한 부분이 도출되는데, 이때 별도의 오답노트로 정리하고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약점을 보완해 점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전공·직무지식] 제가 응시한 기관의 전공시험은 법정통합으로, 법학과 행정학이 출제 대상이었습니다. 각 응시 전공과 기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문과 계열의 경우 단일 전공보다는 통합전공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부할 양과 범위가 늘어나 수험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영역범위가 확대된 만큼 단일 전공에 비해 문제의 수준과 깊이는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시중에 판매되는 기본서를 바탕으로 기초지식을 차근차근 쌓고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대학에 재학 중인 수험생이라면 전공수업을 열심히 듣는 것이 나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의 필기시험(NCS, 전공)에서 중요한 것은 단편적인 기술이나 공식에만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꾸준한 학습을 통해 내공을 쌓아 간다면 다소 시간은 걸릴지언정 분명히 실력이 늘게 되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면접시험

구조화면접, 상황면접, 토론면접, PT면접... 정말이지 다양한 방식으로 면접이 진행됩니다. 필요로 하는 핵심인재 채용을 위해 각 기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면접방식이 있는 만큼 그 유형별로 다양한 대응 방법이 있겠으나, 면접유형을 막론하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충분히 생각하기’입니다. 면접 답변을 고르고 말로 벨기 전까지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면접관들은 답변 내용이 ‘의도에 맞는 것인지’, ‘논리적인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질문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면접관의 질문이 끝나자마자 막힘없이 답변을 이어가는 순발력을 보여줄 수 있다면 플러스 요인이 되겠지만, 실제 면접에서 주어질 질문을 사전에 모두 예상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차라리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라고 양해를 구하고, 생각을 정리해 질문의 의도에 맞는 답변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답을 할 수 없다면,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고민의 흔적과 사고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면접관의 마음을 흔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NCS 모듈을 활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면접에서는 질문 의도를 파악할 때 직업기초능력·직무수행능력·인재상·핵심가치를 중심으로 구분한다면 그 의도를 조금 더 빠르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 '지원하는 기관'과 '나'를 알고 준비하기

[기관 알기] 내가 지원하는 기관에 대해 자세히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소개서와 필기시험, 면접시험의 모든 과정에서 점수 따기에 매우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관이 수행하는 주요 사업의 내용과 최근 발생한 이슈를 숙지하는 것은 필수사항입니다. 먼저, 자기소개서에 기관 관련 내용을 기술하게 되면 기관에 대한 관심도를 표현함으로써 평가자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에서는 상식 문제로 기관의 일반 현황이나 주요 사업에 대해 묻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면접에서는 일단 기관 최신 이슈가 질문으로 출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데다가, 자기소개서에 기관 관련 내용을 기술했다면 면접관이 이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때 관련 내용에 대해 미리 공부하고 준비한 답변으로 기관 이해도를 어필한다면 좋은 인상을 남기기 좋을 것입니다.

기관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 가지 팁(tip)을 드리자면, 먼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중앙)’와 ‘클린아이(지방)’가 있습니다. 이상의 시스템을 통해 기관운영, 경영성과, 대내외평가 등에 대한 공공기관별 공식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각 기관마다 유튜브, SNS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검색을 통해 손쉽게 정보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도자료와 블로그 등을 통해 기관 정보를 수집하였고 이때의 정보를 활용한 면접 답변을 통해 기관사업 이해도를 어필할 수 있었습니다.

[나 알기] 마지막으로 나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나의 강점과 약점, 나의 성향, 내 역량을 발휘해 문제를 해결한 경험에 대해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악된 강점은 최대한 드러내 어필하고, 약점은 무조건 감추기보다는 보완 노력과 극복 성과를 통해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점 보완 시에는 무분별한 스펙 쌓기보다 수요기관의 니즈에 맞는 직무능력 스펙을 쌓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기술서나 기관자료를 바탕으로 나와 잘 맞는 기관과 직무를 고른다면, 채용 과정에서 나의 강점을 살려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고, 채용 이후 실제 근무 적응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겪은 수험경험을 바탕으로 수험생 여러분께서 알아두셨으면 하는, 그리고 고민해 봄직한 사항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꾸준한 노력은 언젠가 보답을 가져다준다’라는 것을 믿고, 멘탈 관리, 스트레스 관리, 컨디션 관리에 유념하셔서 원하는 기관에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족한 수기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느림보인 나도 했으니, 다음은 당신 차례가 되길

한국가스공사 | 박○○



🔍 느림보 늦파이 취업준비생 ‘시작은 반일까?’

대학 졸업 후 오랜 기간 동안 고시 준비를 하였으나 2차 시험의 문턱을 넘지 못해 취업준비가 상당히 늦어진 저에게 한국가스공사의 블라인드 채용은 기회였습니다. 고시 경험은 대학을 갓 졸업한 대학생보다 해당 전공에 대한 지식 면에서는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0대 중반의 취업준비생은 학교성적, 토익 점수, 자격증, 인턴활동 등 어느 것 하나도 남들에 비해 취업 준비에 있어 나은 점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제가 취업 준비를 시작한 당시 어머니께서 암 투병 중이셨습니다. 이에 저는 간병과 취업 준비를 동시에 해야 했기에 소위 말하는 ‘멘붕’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투병생활을 거뜰히 이겨내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매일매일 힘든 항암 치료를 견뎌내며 큰 주사바늘을 매일 꽂아야 하는 옆 병동의 꼬마를 보면서 저도 다시 용기를 내서 취업에 성공해 보자고 마음 먹었습니다.

공기업의 블라인드 채용은 학벌, 나이 등 소위 말하는 ‘스펙’을 초월한 공정한 채용 절차입니다. 이러한 블라인드 채용 체계에서는 ‘스펙’이 없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능력을 중심으로 준비한다면 저에게도 일말의 가능성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늦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일념으로 취업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 늦었지만 끝난 것은 아니다!

우선, 공기업 취업을 목표로 가스공사보다 먼저 채용 절차를 시작한 공기업 취업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서류 합격, 필기 합격을 하였지만 최종 면접에서 낙방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낙방이라는 결과가 나온 직후 한국가스공사의 신입사원 채용 공고가 나왔습니다. 쓰라린 낙방의 경험은 조바심을 불러일으켰고 심적인 부담은 커졌습니다. 면접 시험도 잘 치루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다시 떠올리며 나에게 부족한 점을 생각해 보고, 이를 보완할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취업을 준비하면서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감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이때가 한국가스공사의 채용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은 생각을 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 공기업마다 상이한 채용 절차의 차이를 적극 활용하기

한국가스공사의 경우에는 여타의 공기업과 달리 NCS 분류 체계를 특화하여 개발하였습니다. 이 체계에서 각 직렬은 별도의 모집과 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특화된 분야가 있다면 공통모집보다 취업준비생에게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가스공사 채용 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소개서를 미리 작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기시험 합격 후에 좀 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면접 준비와 연계하여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필기시험 준비와 자기소개서 작성을 동시에 진행하면 심리적, 시간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가스공사의 채용시스템은 필기시험에 집중하여 결과를 확인한 후 자기소개서와 면접 준비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점으로 다가왔습니다.

🔍 세부전공별 모집의 기회 ‘위기는 기회다!’

저는 고시공부 경험을 제외하고는 취업에 적합한 어떠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다. 늦은 나이에 취업을 준비한다는 점, 필기시험 합격 후 최종 면접에서 불합격한 경험,

간병과 취업 준비를 병행하는 점 등을 생각하면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 나 자신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이 느껴졌으며,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반드시 한국가스공사에 입사하고 싶어서 마음을 가다듬고 모집전형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경영, 경제, 회계 등 세부전공별로 신입사원을 모집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제가 가진 장점이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랜 수험 생활이 저에게 단점으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오랜 고시준비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세부전공별 필기시험에 강점이 될 것이라 판단했고, 이러한 장점을 살려 필기시험 준비를 심도 있게 한다면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직무수행능력평가 시험은 해당 모집 분야 직무에 따라 다양한 과목에서 심도 있게 출제됩니다. 따라서 저의 강점을 살려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을 바탕으로 필기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실제 필기시험장에서 많이 긴장되었지만 실수를 줄이고 아는 것을 빠르고 정확하게 풀자는 마음으로 임하였고 결과적으로 합격 커트라인보다 조금 높은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필기시험 준비는 결코 취업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입사 후 현업부서에 와서도 전공 시험을 준비하면서 학습했던 것들이 실제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예를 들어 국외원천세 신고 방법이나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 등). 이렇게 취업 준비와 필기시험 준비가 시험만을 위한 준비가 아닌란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필기시험 준비가 좀 더 수월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 입사 수기를 읽는 모든 분들이 필기시험 준비가 곧 실무투입 준비라는 자세로 공부에 임한다면 더욱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종관문 '면접'

필기 합격 후의 기쁨도 잠시,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전형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면접이 진행되는 특성상 솔직하고 직접 경험한 일 위주로 제가 속한 직렬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어필하여야 했습니다. 이때에도 이전의 실패의 경험으로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초심으로 돌아가 그동안 공부했던 전공과목들을 다시 살펴보고, 한국가스공사의 현안사항과 인재상 및 핵심가치를 중점으로 면접 준비를 하였습니다. 면접 당일 평소에 입지 않던 정장을 꺼내어 입고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장으로 향하였습니다.

먼저 직무PT 면접은 지원한 직렬별로 연관된 한국가스공사 현안사항을 자신의 논점과 경험을 바탕으로 결과물을 제한된 시간 안에 도출하여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두 번째, 직업기초 면접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인성면접과 직무수행능력을 면접하는 자리였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진실되게 경험을 토대로 작성하고 이를 평가하는 근거나 논리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거짓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한다면 금방 들통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고시 준비를 하면서 쌓아 왔던 전공지식을 어떻게 한국가스공사에서 직무수행에 활용할지를 중점적으로 대답하며 면접을 보았습니다.



합격의 기쁨 ‘느림보의 눈물, 그리고 또 다른 시작’

모든 채용 절차가 끝나고 합격을 기다리면서 마음 졸이던 시간들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던 것이 기억에 선명하게 남습니다. 대부분의 취업준비생들이 그렇듯, 합격의 순간만큼은 잊히지 않습니다. 마음이 심란하여 혼자 산책을 나가서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며 마음 졸였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많은 합격자들이 그렇듯이 저 또한 한국가스공사에 합격한 그날 부모님께 흐느끼며 합격했다고 전화했던 순간이 잊히지 않습니다. 특히 암 투병 중이셨던 어머니께서 “○○아, 이제 한시름 놓았다”라고 하셔서 눈물이 핑 돌고 죄송했습니다. 대로변에서 다 큰 성인이 평평 울며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합격소식을 전할 때의 아련함은 아직도 제 가슴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든 불구하고 희망을 놓지 않고 준비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합격자 발표 그 잠시 동안 파노라마처럼 눈에 선명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능력 위주로 나이와 학벌 등에 구애받지 않고 채용하는 블라인드 채용이 간절하고 실력 있는 사람에게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마치며... '느림보 다음 차례는 바로 당신'

저는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늦은 나이와 보잘 것 없는 '스펙'을 가진 것뿐이지만 한국가스공사의 투명한 블라인드 채용시스템과 직무능력평가의 기회를 잡은 것이 운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취업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합격하면 좋겠지만 저도 실패를 많이 해 봤고, 실패를 발판 삼아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느리고 '스펙'도 없는 저였지만 희망을 가지고 고시 실패를 발판 삼아 블라인드 채용에 도전한 것이 취업이라는 결말로 이끌어 준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공공기관에 취업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그 고통을 느껴 왔었고 실망도 많이 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고 강점에 맞는 공공기관의 채용시스템을 골라 합격의 문을 두드리면 저와 같은 합격의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저의 합격수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느림보인 저도 합격했으니 다음 차례는 바로 당신입니다. 감사합니다.

배움이 쓰임이 있을 것, NCS 직무능력중심의 ‘취린이’ 채용 가이드

한국국토정보공사 | 채○○



“축하합니다. ○○○님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신입사원 채용에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군대를 다녀오고 대학교 4학년에 다니고 있을 스물다섯, 조금 이른 나이에 한국국토정보공사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채용공고를 확인하고 입사지원을 위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필기시험 및 면접 등 최종 합격 통보를 받기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이 아직 기억에 생생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블라인드 및 NCS 기반의 직무능력중심 채용 덕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화려하고 과장된 스펙보다는 현장 경험을 중심으로, 개인의 특성보다는 해당 직무에 대한 역량을 중요시하는 블라인드 및 NCS 기반의 채용을 통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입사까지 당시의 기억을 살려 조심스럽게 수기에 담아 보려고 합니다.



‘배움이 쓰임이 있을 것’

회사를 준비하면서 ‘배움이 쓰임이 있을 것’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배운 지식과 노력이 잘 쓰이며, 알고 익힌 것을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저의 기준과 NCS 직무능력중심의 채용은 부합하는 점이 많았습니다. 회사는 지원자의 직무 관련 업무수행 능력과 역량만을 판단하여 그 기준에 부합하면 채용하겠다는 NCS 채용시스템은 당시 대학교 3학년이던 저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이제 막 취업을 처음 준비했던 취업준비생, 이름하여 ‘취린이’였던 저에게는 NCS

직무설명서와 학습 모듈이 최종 합격까지의 길라잡이가 되었습니다.

블라인드 및 NCS 기반의 채용은 학력이나 배경을 배제하여 어떤 신입건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빼고, 직무역량에 기반해서 평가하고 채용하겠다는 시스템입니다. 즉 기업이 채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역량과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기 때문에 지원자가 불필요한 스펙(Over-spec) 경쟁에서 해소되어, 직무 수행 현장에서 원하는 직업능력과 해당 직무에 맞는 스펙(On-spec)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 채용합니다. 저 또한 해당 직무에 불필요한 어학이나 자격증 등을 배제하고, LX공사에 관련된 직무역량만을 키울 수 있었기에 빠른 취업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나야! 경험 중심 '자기소개서' 작성

입사지원을 위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정말 막막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작성하는 자기소개서의 작성 마감 기한은 일주일, 약 이틀 정도는 손도 대지 못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자기소개서'인데 아직 나를 모르는 상황에서 잘 쓰려고 하다 보니 작성이 될 리가 없었습니다. 차분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기소개서는 '나'라는 사람을 기업에 소개하는 글이며, 최종적으로는 면접관이 나를 보는 첫인상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잘 아는 것'과 '기업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선 나를 잘 알기 위해 나의 일대기를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일대기라고는 했지만, 거창하고 큰 활동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일련의 활동들을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꼼꼼히 적었습니다. 그렇게 나의 일대기가 완성되니 나의 가치관과 장·단점이 정리되어 나도 몰랐던 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조급해 하지 않고 시간을 들여 나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잘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기소개서의 첫걸음은 '나를 잘 아는 것'입니다.

다음은 내가 준비하는 기업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선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인재상이나 비전, 수행하고 있는 사업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가장 기초 중의 기초이니 꼼꼼하게 읽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직무설명서에 기술되어 있는 업무 내용과 직무 요건(지식, 기술, 역량) 등을 파악하여 업무 내용은 숙지하고, 직무 요건은 나의

장점과 매칭시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인근 사무실 탐방입니다. 가장 어려운 도전(?)일 수 있지만, 저는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인근에 있는 LX공사 지사를 방문하였고, 인터넷이나 책에서는 파악하기 힘든 실질적인 업무 프로세스나 각종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현직자분께 상세히 들을 수 있어서 특히 자기소개서 작성 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를 잘 알고, 회사를 잘 파악하고 나서는 자기소개서에 있는 항목들이 수월하게 작성되었습니다. 물론 초안은 무분별하게 작성되어 수십 번의 수정이 있었지만, 소리 내어 읽어 보고 주변 지인들의 피드백을 거치고 나니, 나를 소개하는 꽤 멋진 글이 작성되었습니다.



꾸준함이 결과를 만든다. 첫 번째 관문, 필기시험

필기시험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70%의 비중을 차지하는 직무지식검사와 전공과목과 30%의 비중을 차지하는 NCS 직무능력검사입니다.

먼저 직무지식검사는 전공 비중이 아주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꼼꼼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필기시험은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지식을 물어 보는 시험입니다. 저는 기초지식을 쌓기 위해 시중에 나와 있던 문제집 풀이를 우선하였습니다. 회독을 거치면서 틀렸던 문제들에 대해 꼼꼼하게 오답 노트를 작성했고, 특히 암기가 필요한 과목들은 나만의 요약정리집을 만들어 회독을 반복했습니다. 또한 2인 스터디 그룹을 통해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 서로 문제를 내고 풀어 가는 과정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초적인 개념 정리가 끝난 후에는 자기소개서 작성 시 확인했던 직무설명서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직무설명서는 지원하고자 하는 직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부 직무, 업무 내용, 직무 요건(지식, 기술, 역량) 등 공부의 방향성을 잡아 줄 수 있는 핵심들이 쑥쑥 기술되어 있습니다. 직무설명서를 분석하여 회사의 업무 내용과 직무 요건에 맞는 중요 개념을 더욱 집중적으로 공부하여 직무지식검사를 준비했습니다.

NCS 직무능력검사는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 LX공사 직무설명서에 명시된 직업기초능력 네 가지를 중점으로 준비하였습니다. NCS는 개인별로 편차가 아주 큰 과목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기초만 있다면 꾸준한 문제풀이를 통해 점수 상승이 가능한 과목입니다. 저는 아주 기초적인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NCS 공부를 시작했고, 기본적인 틀을 잡은 후에는 전공 8: NCS 2의 비중을 두어 꾸준히 문제풀이에 집중했습니다. 감을 잃지 않도록 모의고사 형태로 되어 있는 문제집을 반복적으로 푸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면접시험의 전략 '스크립트'

암기가 기본인 필기시험과는 달리 면접시험은 내가 살아온 가치관과 태도, 직업윤리 등 나의 경험들이 크게 작용하는 시험입니다. 지금까지도 당시의 심리적 압박감을 생각해 보면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NCS 기반의 채용이기에 조급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X공사의 면접시험은 크게 상황면접과 경험면접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첫 번째로 '상황면접'은 질문에 대한 핵심 파악, 직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저는 자기소개서에 기술된 나의 경험과 회사 관련 지식을 직무설명서에 있는 업무 내용과 직무 요건(지식, 기술, 역량)에 적용하여 준비하였습니다. 각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내가 담당자로서 업무를 처리할 때의 상황이나 고객의 입장을 가정하여 준비해 보았고, 추가로 조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관계적인 상황이나 공직자로서의 윤리적 상황에 대해 준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경험면접'에서는 앞서 작성했던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한 나만의 '스크립트' 작성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스크립트'는 쉽게 말하자면 모범답안입니다. 내가 했던 경험들을 토대로 한 나만의 모범답안을 작성하고, 이를 꼬리물기 형태로 정리하여 준비했습니다. 경험면접은 지원자의 가치관과 태도, 직업윤리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들이 주를 이루므로 직무설명서에 있는 역량 부분을 토대로 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모범답안 작성이 필수적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자기소개서 작성 시 알게 된 본인의 장·단점을 통해 '나는 내가 잘하는 것을 알고, 내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점을 알고 있는 것이 경험면접에서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상황면접과 경험면접에 대한 준비가 끝난 후엔 '모의면접'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4대

4 면접 시스템에 맞춰 면접시험 전날까지 꾸준히 모의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다양한 상황을 준비했습니다. 피드백을 통해 본인이 잘한 점과 보완할 점들을 숙지하며 차근차근 고쳐 나갔고, 기본적인 면접자세(인사, 미소,アイコン택트, 바른 자세, 적당한 제스처 등)를 체화하였습니다. 면접은 내가 살아 온 가치관과 태도, 직업윤리를 보는 시험입니다. 면접관의 질문에 혹여나 실수했다라도 차분하게 나의 경험들과 장점들을 어필하여 진솔하게 답변한다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스펙 필요 없습니다. 직무에 맞는 능력만 있다면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입사하기까지 그 과정은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최종 합격이라는 꿈에 다가가기까지의 발걸음은 아주 무겁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배움이 쓰임이 있을 것’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NCS라는 방향선을 따라갔습니다. ‘내가 왜 이 회사에 필요한 인재인가’라는 고민을 하며 차근차근 업무와 관련된 능력을 길러 나의 역량을 키워 나갔습니다. 험난한 취업의 길에 NCS가 등불이 되어 주었고, 그 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여기저기 찢러 보기 식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 할 수는 없지만, NCS 직무능력중심 채용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을 쌓아 준비한다면 합격이라는 꿈에 더욱 빠르게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덧 취업한 지 5년 차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기억을 살려 이 글을 쓰는 것은 불안한 현실 속에서 지난 시절의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입사수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꾸준함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오늘의 하루는 당신에게 합격이라는 미래를 가져올 것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냅니다.

공공기관 입사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공공기관 입사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III

장애인 채용

- 1 비전공자 뇌병변 3급 장애인의 ICT 공공기관 근무기
- 2 내 삶에 변화가 되어 준 장애인 전형, 너도 할 수 있어!
- 3 당신의 차이를 기회로 이용하자!
- 4 “극복”이 아닌 “적응”의 연속
- 5 희망의 불씨
- 6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

비전공자 뇌병변 3급 장애인의 ICT 공공기관 근무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류○○


 너는 그냥 공무원이나 해

“너는 그냥 공무원이나 해! 그게 너한테 제일 나은 선택이야.”

이 말은 어릴 적부터 어머니께 가장 많이 들은 말 중 하나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장애를 가진 제가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하시곤 했던 어머니께서는 그나마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있는 공직에 종사하라고 줄곧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스스로 또한 공무원 이외의 진로는 생각해 본 적 없었고 대학도 도서관 사서가 될 수 있는 문헌정보학과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변을 둘러보면 대다수의 선배와 동기들이 공무원을 준비하고 “우리 전공에 그거 말고는 뭘 하겠어.”라며 맹목적인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마치 주변 환경이 저에게는 공무원 이외에는 길이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도서관 계약직을 하며 겪고 본 공무원의 업무와 환경은 그다지 저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민원과 반복되는 사과, 경직된 조직 분위기, 틀에 박힌 업무는 하면 할수록 숨이 턱턱 막히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대학 생활을 보내며 어느새 졸업이 눈앞으로 다가온 4학년 1학기, 그때 제게 있던 스펙은 그다지 좋지 않은 학점의 인문계열 학과 졸업장(예정), 약 2년여 간의 도서관 계약직 경력, 남들 다 가지고 있는 컴퓨터활용과 한국사 자격증 등이 전부였습니다. 이 스펙으로는 사기업은 꿈도 꿀 수 없었고 그렇다고 공무원을 하자니 정말 하기 싫었기에 다른 선택지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진로가 없는지 탐색하던 중 공기업, 공공기관 취업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 당시 저에게는 그것이 마치 사막 속의 오아시스로 가는 지도를 찾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 첫 번째 인턴 경험

저의 첫 번째 공공기관 경험은 2023년 1월, 케이메디허브(Kmedihub) 경영지원부 시설총무팀에서의 근무 경험이었습니다. 대학교 내 장애 학생 지원센터에서 학교와 연계해서 하는 2개월 동안의 인턴 프로그램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공공기관에서의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라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재단 내 자산관리를 담당하는 주임님을 보조하여 자산 등록 리스트 최신화 작업을 맡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리스트가 점점 업데이트될 때마다 제 안의 효능감과 자존감 또한 같이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장애인이라는 걸 잊고 그저 한 명의 팀원으로서 소임을 수행할 수 있었고, 이 경험은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 NIA와의 만남

2023년, 최고의 선택 중 하나를 말하라면 단연코 그것은 NIA 체험형 청년인턴에 지원한 것입니다. 4학년 2학기가 끝나갈 무렵 공공기관 취업을 갖 시작한 저는 조금 더 긴 기간의 인턴 경험을 쌓고 싶었고 우연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체험형 청년인턴 공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ICT 기관인 NIA에서 관련 전공자도 아닌 사람을 뽑아 줄까 싶어 망설였지만 마침 장애인 제한경쟁 직렬이 있었고 도전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카페에서 노트북을 켜고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NIA는 나에게 다양한 첫 경험들을 선사했는데 그중 하나를 꼽자면 첫 자소서 작성과 첫 회사 면접이었습니다. 지원동기, 관련 업무 경험 등을 작성하면서 이때까지의 발자취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자 앞으로 어떠한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한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것이 경험이자 역량으로 이어지는 양분이었습니다. 그렇

게 자소서를 작성하고 면접을 거쳐 NIA 경영기획실 인사총무팀에서 6개월간의 청년인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NIA에서의 체험형 청년인턴

NIA에서의 인턴 경험은 새로운 경험과 성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우선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 본 공문 작성은 앞으로 공공기관에서의 업무에 튼튼한 뿌리가 되어줄 값진 경험이 되었습니다. 또한 급여 업무지원, 복지 프로그램 기획 지원 업무 등의 여러 인사 관련 업무들을 보조하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턴 동기들, 회사 팀원분들과의 대화 한마디 한마디, 일본, 일초의 시간이 모두 저의 소통과 관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크나큰 양분이었으며 매시간이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주변 팀원분들께서 일하시는 모습은 취업 준비의 강력한 동기로 삼게 되고 인턴 동기들이 노력하는 모습들은 좋은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정말 인턴 생활의 모든 요소가 스스로 발전하게끔 하는 에너지와 재료가 되어 '어제보다 나은 나'를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Q 정규직 채용 도전

“이번에 장애인 제한경쟁으로 정규직 채용공고를 냈는데 지원해 보는 것이 어때요?” 인턴 생활에 만족하며 열심히 회사를 다니던 어느 날, 수석님의 이 한마디가 저를 또 다시금 새로이 도전하도록 했습니다. NIA에서 정규직 채용으로 장애인 제한경쟁 인원을 뽑는다는 것을 확인한 후, 저는 곧바로 자소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턴 채용 때와 가장 큰 차이점 하나를 꼽으라면 ICT 기관답게 ICT를 활용한 사업 기획안을 적으라는 항목이었는데 간접적으로나마 정규직으로 입사하면 하게 될 업무의 편린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현재 어떤 ICT 기술이 트렌드이고 이것이 활용되는 방식들을 알아보며 내가 ICT 업무를 하는 것이 적성에 맞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로도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쓰기 위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이 아이디어가 실행 중인지 검색하며 부단한 노력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한 필기시험으로 응시했던 소프트웨어 검정인 탑싯(TOPCIT)은 부족했던 저의 IT 기초지식을 메워 주는 좋은 공부

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경영학부터 기술 분야까지 다양한 소양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제 것으로 체화하며 제 안에서 IT 비즈니스 기초라는 작은 새싹이 싹을 틔운 느낌이었습니다. 인턴 동기들과 함께한 면접 준비는 협력하여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퇴근 후 모여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여러 ITC 리포트와 자료들을 정리하여 서로 공유하고 인성 소양 질문리스트를 작성하여 서로의 면접관이 되어 모의 면접을 진행하며 실제 면접에 대비했습니다. 서로의 답변을 듣는 자체로도 생각을 전환할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과정 끝에 최종면접을 치르고 현재는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공공기관을 준비하는 다른 장애인 취업준비생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도전하면 기회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어릴 적부터 장애를 가지고 살아 오며 수많은 절망과 좌절을 겪어 자존감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멈춰 있다가는 발전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공공기관 취업이라는 도전에 몸을 던졌기에 청년인턴이라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기회가 정규직 채용이라는 또 다른 기회로 이어져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기관 취업의 기회는 많고 많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며 도전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좋은 기회와 결과가 찾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내 삶에 변화가 되어 준 장애인 전형, 너도 할 수 있어!

한국환경공단 | 김○○



‘나 이제 어떻게 살지?’

보통 이런 생각을 한다면 대부분 정년 퇴임을 앞둔 사람, 명예퇴직자 등이 먼저 연상되겠지만 이 생각은 스무 살이 되던 해 내가 가장 먼저 한 생각이며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한 걱정이었다.

나는 중학교 2학년 재학 중 뇌종양으로 수술 및 항암치료와 수년간의 재활치료를 통해 뇌병변 장애인이 되었다. 잘 웃고 사람을 좋아했던 15살 이전의 나의 삶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했다. 또한 모델, 스텐디스, 한의사 등 꿈이 많았지만 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수술한 뒤로 먹고 마시는 일, 글씨를 쓰는 일, 일어서 있고 걷는 일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다.

주변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마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을 수 있다. 일반 병실로 옮겼을 때 지금이라도 움직여야 한다고 조언해 준 의사 선생님, 심리적으로 힘들 때 많은 위로가 되어 준 후원단체와 친구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신 부모님 등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조금씩 사회로 한 발짝 내딛을 수 있는 힘과 함께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한 걱정을 해야 하는 스무 살이 되었다.

다행히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까지 한 상황이어서 대학 진로를 결정할 때 받았던 도움과 희망에 대해 보답을 하고 싶은 마음에 전공으로 사회복지를 선택하게 되

었다. 대학교 재학시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무사히 졸업과 함께 사회복지사로 근무할 수 있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행복할 것이란 기대를 품고 시작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요양원의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첫 월급을 받으면서 내가 사회의 일원이 되었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던 시간은 찰나에 불과했다. 매일 운영되는 프로그램 일지 작성, 케어용품 구매 및 관리, 케어일지 검토, 기타 서무행정 등 혼자서 수행하기 버거울 정도의 업무량과 수직적인 조직 생활의 나날이었다. 야근을 금지했으나 어쩔 수 없이 야근하는 날에는 어두컴컴한 사무실에서 숨죽이며 밀린 업무를 처리해야 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곳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지, 왜 그만두지 않는지 의아해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 역시 그만두고 싶었으나 '장애가 있는 내가 여기를 그만두었을 때 나를 받아줄 회사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는 힘들어도, 부당하다고 생각되어도 '남들보다 돋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라는 일념으로 열심히 근무했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코로나로 인해 요양원은 폐쇄되었고 다시 운영하게 되면 연락을 주겠다는 말과 함께 권고사직 처리가 되었다. 열심히 일했지만 3년 만에 직업을 잃었고, 그동안 쌓은 경력으로 30여 기관에 이력서를 보냈었으나 단번에 탈락하거나 서류는 통과해도 면접을 보는 단계에서 탈락 통보를 받기도 했다. 그렇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한도 지나면서 점점 자존감을 잃어 갈 무렵 한국환경공단에서 장애인 인턴을 모집하니 한 번 지원해 보는 것을 권유하는 장애인고용공단의 안내 전화가 왔다. 처음에는 공단이란 말에 현혹되기도 했지만 막상 자기소개서를 쓰려니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작성하면서 많이 갈등하고 고민했던 것 같다. 그때마다 부모님, 장애인고용공단 등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은 격려와 힘이 되어 용기를 가지고 지원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 인턴 채용에 합격했다는 메일을 받았다.

인턴 출근 첫날, 본사로 향하는 길에 어떤 업무를 하게 될지 모른다는 설렘과 함께 잘할 수 있을지 두려움이 앞섰다. 근무하게 될 사무실에는 같은 날 채용된 인턴 2명과 함께 일하게 되었다. 어색하지만 첫날 먼저 인사하면서 같이 친해졌고 훗날 많은 정보를 알려 주면서 나를 변화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

부서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남은 시간에는 자율적으로 공부 및 독서 해도 좋다는 부장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떤 공부를 할지 의논했다. 동기들은 인턴을 마무리한 후 공단에 지원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기에 계획을 세우는 데 막힘이 없었다. 한편 나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아 고민하던 중 같이 공부해서 지원해 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들었고 그때부터 NCS 문제집을 풀고, 환경에 관한 인터넷 기사를 요약한 후 생각을 적으면서 열심히 준비했다. 워낙 준비한 기간이 짧았기에 합격 여부는 불투명했지만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2021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공고에 응시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것을 이미 많은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기에 경험을 쌓는다는 생각으로 지원했던 공고에 서류가 합격하고, 시험에 합격했다. 기대를 안 하고 싶었지만 이미 최종 단계까지 진행되었고 합격할 수 있을 것이란 약간의 설렘을 가지고 면접시험에 참여했지만 최종 결과는 예비 합격자 6번이었다. 기대를 안 했어도 탈락이라는 단어는 마음이 안 좋았다.

이것저것 취업 준비를 하던 6개월이 흘렀을 때, 한국환경공단에서 추가 합격했으며 관련 내용은 메일로 보내준다고 했었다. 뒷이야기지만 전화 후 메일함을 확인하니 메일이 오지 않아 담당자가 잘못 전화한 줄 알았었다. 그날 저녁 메일을 확인한 후 그제서야 실감이 났고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정말 좋아하셨다.

입사 관련 서류 준비 후 첫 출근하는 날 어떤 정신으로 왔는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긴장하고 워낙 길치인 성격에 처음 와 보는 길이어서 맞게 왔는지 걱정이 많았다. 부서를 배정받고 처장님, 부장님 등 인사를 드린 후 자리에 앉았을 때 내 눈앞에 있는 ‘주임님’이라는 이름표. 직장인으로 3년을 근무했지만 내 직급은 사원이 전부였고, 내 목표였던 주임님이라는 호칭이 이제는 내 것이란 생각에 행복했다.

한국환경공단에 취직한 지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 변화된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 처음 제도에 대해서 들었을 때 모르는 것이 많아 전화가 올 때마다 “확인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응답 멘트를 남겼으며, 모든 업무에서 틀렸다. 그럴 때마다 대리님, 과장님께서 일일이 알려 주셔서 조금씩 나아졌고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 간의 분위기의 중요성에 대해 새삼 느끼게 되었다.

입사 수기를 작성하면서 지난 1년을 되새길 수 있었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변화

가 있었던 그때마다 곁에서 응원해 주신 부모님, 친구들, 회사 동료들이 없었다면 아직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어엿한 1년차 주임으로서 '자원순환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본다.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이나 「편의증진법」 등과 같은 장애인 관련 법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실효성이 없는 규정에 불과하며 광범위한 장애인 차별의 문제를 다루기에 부족하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는 직접적 차별과 간접적 차별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적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구별하고, 배제하고, 제한하는 것을 말하며, 간접적 차별은 비장애인에게 적용할 요건을 무조건 동일하게 장애인에게 적용함으로써 비장애인에 비해 불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채용할 때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탈락시키는 것은 직접적 차별에 해당하고, 필기시험 및 면접에서 지체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똑같은 조건에서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은 간접적 차별에 해당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혹은 '소수자'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상의 평등을 선언하고자 2007년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연대' 및 '장애인고용공단'이 설립되어 고용·교육·이동권 등의 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광범위한 장애인 차별의 문제를 다루기에는 부족하기만 하다. 그리하여 이런 제도를 발판으로 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와 숨겨진 차별, 또는 생각하지 못한 차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 오며 '내가 어떻게 해? 못해!'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현재는 '한 번 해 볼까? 나도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아직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도전해 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을 느꼈고 이 감정을 다른 장애인들도 느끼게 해주고 싶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 준 장애인 전형이라는 제도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자원순환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려는 한국환경공단의 일원이 되고 싶다.

당신의 차이를 기회로 이용하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오오



🔍 차이, 다름, 차별

‘당신은 알비노 동물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이 신기해하면서 더 관심을 주고 예뻐한다는 생각이 든다. 단지 색의 차이일 뿐인데 그들은 더 특별하게 생각하고 더 관심을 받는다. 장애는 어떠한가요? 장애는 더 관심을 받기보다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다. 같은 사람인데 동물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이유가 뭘까? 처음부터 장애는 아니었다. 아무 이유 없이 어느 날 한쪽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땐 다섯 살이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였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학교에 들어가면서 장애를 가진 것을 숨겨야겠다고 생각했다. 학교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너 눈이 왜 이래?” 이 말이었다. 티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엔 티가 났나 보다. 이러한 시선 때문에 나에게 장애는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것이었다. 그렇다고 장애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기엔 나도 너무 어렸다. 가족들은 장애는 부끄러운 건 아니라고 하는데 사회적 시선이 날 더 작게 만들었다. 점점 작아지던 날 크게 만들어 준 건 친구였다. 친구와 이야기하고 있는데 넌 내 말을 잘 들어 주고 착한 친구라는 말을 들었다. 학교 다니면서 또래 친구들에게겐 처음 들은 칭찬이었다. 그때부터 난 남들과 어울릴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한 시기이다.

배움은 끝이 없다는 말이 있다. 인생은 끝이 없는 배움의 과정이다. 누구나 대학생이 되면 자격증도 많이 따고, 공부, 운동 등 다양하게 열심히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는다. 과연 이 중에 몇 명이 이것을 실천했을 것인가? 만약 이를 실천했다면 취업 걱정은 없을 것이다. 많은 이들이 쉽게 포기하고 하루만 쉬다고 하면서 계속 쉬는 것이다. 난 공부와 운동 둘 다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이었다. 대신 한 가지 열심히 한 것은 학교 공지사항을 매일 보았다. 공지를 보면서 꼭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하자는 마음이었다. 1학년 1학기부터 매일 빠짐없이 보았다. 꼭 해보고 싶은 것은 해외 관련된 프로그램을 빠짐없이 하고 싶었다. 교환학생과 해외봉사 등을 경험하고 싶었다. 한국에서도 배울 것은 많다. 하지만 해외에는 더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문화를 배우면서 느끼는 것은 더욱 나를 크게 만든다고 생각했다.

교환 학생을 가기 위해 영어와 전공을 공부했다. 만약 여기서 학점과 토익 점수를 보지 않는다면 난 공부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해외봉사를 두 번 가는 결과를 만들었다. 사실 많이들 어렵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꼭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되게 만들 것이다. 가서 느낀 점은 난 꼭 사람을 돕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우린 봉사를 하러 갔지, 무언가를 얻어서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미안마로 해외봉사를 갔는데 다들 습한 기후에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걸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우리가 K-POP 문화 전수, 한글 및 영어 가르치기, 운동회, 한국 음식 같이 만들기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하면서 잊히지 않는 것은 그들의 미소였다. 우리에게겐 어려운 것들은 아니었지만 이런 문화를 접하기 힘든 그들에겐 최고의 선물이었다. 그중에 많은 이들이 K-POP에 관심이 있고, 한국 드라마를 즐겨 본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들의 미소와 관심이 우리의 활력소였다. 물론 모두가 예상한 것처럼 습한 날씨에 힘들었지만 우린 미소를 잃지 않고 봉사를 했다. 어떻게 그들의 미소를 보며 울상을 지으며 봉사할 수 있겠는가. 에어컨도 없고, 수시로 정전이 되고 뱀과 개구리, 많은 벌레와 같이 갔지만, 그것 또한 우리가 한국에서 살아가는 데 감사함을 느끼게 해 주었다. 우린 최소한 시원하고 더 청결한 곳에서 살아 가기 때문이다.

해외봉사를 다녀온 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난 내 모든 대학 생활 및 인생을 살면서 가장 즐거웠던 것은 해외봉사를 갔던 것이었다. 인생을 살면서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냐고 묻는다면 난 해외봉사를 준비하기 시작한 날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만큼 즐거웠고 봉사를 하러 갔지만 나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다. 그리고 나의 비전을 정할 수 있게 만들었다. 나의 비전을 ‘남을 도와주면서 살자!’라고 정했다.

🔍 나의 꿈

비전은 정했지만 목표로 하는 곳을 정하지 못했다. 학교 공지사항을 보면서 꾸준히 참석했던 것은 취업 강의였다. 내가 어디를 가야 하는지, 난 어떤 직무를 할지를 고민하고 있었다. 우연히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라는 곳을 PPT에서 보았다. 그냥 이 회사의 강의를 아니라 공기업을 분류한 표에서 우연히 보았다. 전공이 사회복지였던 난 산림복지는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겼다. 산림 자원을 이용해 남들에게 더 나은 삶을 살게 해 주는 기관이었다. 검색한 이후 난 무조건 여기에 들어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기 위해선 나의 경험이 필요하였다.

🔍 나라에서 준 기회-장애인턴

1. 대학 병원 인턴

역량을 키우기 위해 인턴 경험은 필수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처음은 공기업에 대해 느낌을 알아보자는 마음으로 집 근처 대학병원에 장애인 인턴을 지원하게 되었다. 유튜브도 보고 그 회사를 검색해 관련 부서의 일과 뉴스를 보았다. 면접을 보고 처음 합격 문자를 받았을 때 정말 행복했다. 인턴도 금턴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인턴이 되기 힘든 시대적 환경 때문에 생겨난 말인데, 합격하니 다음에 더 좋은 자리를 갈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겼다. 용기가 생기니 일을 하는 것도 힘이 났다. 출근도 매일 20분 일찍 출근했고 아침에 기분 좋게 환자 분들과 직원 분들에게 인사했다. 원무과에서 고객 응대하는 일을 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응대를 하면서 나의 시각이 넓어진다고 느꼈다. 앞으로 사람

들과 대화하고, 응대를 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열심히 일했다.

2. 진흥원 인턴

사실 내가 가고 싶었던 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인턴을 해 보고 싶었다. 열심히 찾아보던 중 의료기기와 관련된 진흥원에 장애 인턴으로 면접을 보았다. 여기서 는 사무 일을 하게 되었다. 갔을 때 나보다 먼저 있던 인턴 분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모르는 것들은 바로 그분에게 물었다. 이렇게 배운 것들은 그분이 나가고 다른 인턴 분이 오셨을 때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다. 거기서는 병원에서 일했을 때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 일하면서 가장 열심히 한 곳을 뽑으라고 한다면 여기를 뽑을 것이다. 일을 가장 책임감 있게 해서이다. 사실 업무량도 많고 문서능력도 필요로 하는 일이었다. 기간 내에 끝낼 수 없는 양인데 며칠 동안 쉬지 않고 열심히 했다. 마감 일을 갑자기 당기는 바람에 집에 가서도 늦게까지 했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이 앞으로 내가 일을 하면서 마주칠 것으로 생각하기에 대처 능력을 키운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다.



내가 원하던 직장 성공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채용 공고가 떴다. 그전부터 공기업을 준비한다고 NCS 공부를 했다. 사실 모두가 그렇듯 이 공부를 처음 시작하면 막막하고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것이다. 처음엔 그냥 시간 제한 없이 풀 수 있는 것들을 다 풀어 보았다. 공공기관 특성상 시험 과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집 공고를 계속 보면 어떤 과목만 공부하면 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난 경험 면접과 상황 면접만 준비하면 됐다. 경험 면접 준비를 위해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준비한 파일을 꺼냈다. 이것도 매년 나를 되돌아보기 위해 만들었던 파일이다. 고등학교 면접부터, 대학교 졸업 후 국가 고시를 합격하기까지의 경험들이 적혀 있었다. 이 파일에는 그 일들을 하기 전과 후의 일들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경험 면접에서는 자신이 있었다.

면접을 보러 가기 전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계속 듣고 인터넷 카페에 올라오는 합격 자의 수기들도 읽어 보았다. 가기 전 긴장은 많이 되었지만 후회 없는 준비를 했기에 대전으로 올라갔다. 가는 동안 계속 회사의 비전과 경영 방침, ESG 경영에 대해 읊었다.

면접장에 도착해 그냥 머릿속을 비우며 ‘할 수 있다’를 계속 외쳤다. 면접이 끝나고 아쉬우면서도 시원했다. ‘다음이 있다’를 생각했던 것 같다.

‘합격’이라는 문자를 받았다. 기뻐다. 인생에서 가장 기뻐던 것 같다. ‘나도 이제 어른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

입사 후 3주간의 교육이 있었다. 3주 동안 진흥원 내 모든 실장님 및 팀장님을 뵈는 것 같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 교육을 들으니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다. 많은 이야기를 들으니 각오를 다질 수 있었다. 그렇게 3주 동안 회사에 대해 알게 된 것들이 많아 좋은 시간이었다.

황성에 와서 고객지원팀에 들어갔다. 고객지원팀은 숲체원 경영 및 고객응대를 주 업무로 맡고 있다. 사실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해 업무에 만족하면서 일을 한다.



DON'T GIVE UP! - 희망을 가지세요

많은 장애인들에게 감히 전한다. 각자 장애를 극복하고 현재도 지내는 것에 대한 불편함은 다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는다면 각자가 원하는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나도 학생 때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가장 하기 쉬운 한 가지를 꾸준히 한다면 다른 일을 하는 것에 끈기를 가질 수 있다고 자부한다. 각자가 잘하는 일이 다르고 하고 싶은 일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키우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될 것이다. 각자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을 다른 것으로 만회할 수 있는 힘을 키우십시오. 다들 파이팅입니다!!

“극복”이 아닌 “적응”의 연속

한국철도공사 | 강○○



“장애를 극복한다는 것은 없다. 다만 적응하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다.”

이 말은 대학교 시절 알고 지낸 한 선배님이 해 주신 말씀이다. 이 문구는 그 당시 다이어리 맨 앞에 적혀 있을 정도로 나에게 인상 깊은 글귀이기도 하다. 실제로 나의 삶은 적응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삶을 살아가며 적응을 하겠지만, 나의 경우는 조금 다른 적응 방식이다. 유년 시절을 지나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며 치열하게 청각장애를 극복하고자 노력했지만, 신체적 한계라는 벽을 마주할 때가 많았다. 그래도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는다는, 꿈에 그리던 연세대학교에 합격하였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장학사업인 장애학생 도우미를 지원받으며 공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여타 학생들과 다를 바 없이 시험 기간에 공부하며 어느 회사에 지원할지 고민하던 4학년을 마지막으로 취업준비생이 되었다.

하필 취업 준비에 돌입하던 당시 코로나가 터졌고, 모두가 밖을 나가지 않던 암울한 시기에 기업들은 하나둘씩 채용 인원을 줄이기 시작했다. 어찌어찌 최종 면접까지 올라가더라도 쟁쟁한 경쟁자들에 밀려 불합격 소식을 받는 일이 일상이었고, 어떤 사기업의 면접에서는 “귀가 잘 안 들리는데 과연 우리 회사에서 회의를 잘 진행할 수 있겠느냐, 사람과 대화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있음이 틀림없는데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왜 우리 회사가 청각장애가 있음에도 당신을 뽑아야 하는지 당위성을 설명해 보아라,

당신은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설명해 보아라.”라는 말을 듣기에 이르렀다. 당시 면접을 보고 나오면서 집 가는 길에 펄펄 울었던 기억이 난다. 해당 기업의 면접에서 내 청각장애가 걸림돌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듣고 나니 잘 안 들리는 내 귀가 원망스럽기도 했다.

집으로 돌아와 면접 질문 리마인드를 하려 다이어리를 펼치는 그 순간 내 눈에 다이어리 맨 앞장에 적어 두었던 선배의 말이 들어왔다. 나는 그 면접관의 말처럼 장애를 “극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체적 특성인 청각장애를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회사 현장에서 “적응”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구나! 이것이 나를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곧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 청력이라는 약점을 상쇄할 수 있는 강점을 찾아야겠다고 싶어 제일 먼저 주변 사람들에게 진지하게 내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물어 보았다. 그 결과, 나도 몰랐던 몇 가지 강점을 알 수 있었다. 대학교 시절 동아리 회장을 맡아 장애인권 문화제, 배리어프리 영화제 등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적극적인 태도, 실수 하면 많이 자책하지만 그 실수를 다시 안 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 기록을 항상 병행하며 잘 못 들은 부분을 뒤늦게라도 물어 보며 보완한다는 점, 사람 어투에 한 번 익숙해지면 일상적인 대화가 무리 없이 이루어진다는 점, 포토샵·인디자인 등 소리가 필요치 않은 제작용 프로그램은 처음 배워도 누구보다 사용법을 잘 익힌다는 점 등 여러 차별화 포인트를 정립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내가 어떤 곳에서 일하고 싶은지 확실하게 정하는 것이었다. 목표를 정하고 나의 차별화 포인트를 회사에다가 확실하게 어필하며 도전하겠다는 목적이었다. 나의 확실한 관심사는 역시 ‘barrier-free’였다. 나는 동아리에서 장애인권 문화제, 배리어프리 영화제를 주최하고 참여할 만큼 해당 주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다양한 유형의 장애학생들과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여러 기회로 모여서 얘기하는 자리에서 항상 등장하는 교통수단이 있다. 바로 ‘기차’다. 휠체어를 타는 학생들은 모두 기차가 제일 편하다고 입을 모은다. 버스는 애초에 휠체어 좌석 자체가 없어 전동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은 탈 수 없으며,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기사들의 눈치를 많이 봐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렇지만 지하철, KTX와 같은 기차는 전혀 그런 점이 없다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나는 한국철도공사라는 회사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 회사에 들어간다면 나의 장애라는 특성도 일종의 셀링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가격적인 측면에서 버스가 경쟁력이 있지만 기차는 다양한 연령층, 장애 유무를 떠나 정말 모두가 편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선택한다. 그리고 한국철도공사는 KTX에서 얻은 수익을 통해 무궁화와 같은 적자 노선을 보전하는 등 공공성을 보장하려 애쓰는 회사이기에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와 일맥상통했다. 나는 많은 사회적 배려로 이루어진 발판을 딛고 자랐기에 큰 무리 없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었다. 그래서 사회에 다시 도움을 돌려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렇기에 ‘barrier free’라는 주제에 빠질 수 없는 교통수단인 기차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에 지원하기로 결심했다.

한국철도공사에 지원할 당시 내가 작성했던 자기소개서에는 해당 기업의 장애 친화적 면모를 강조하고, 나의 차별화 포인트를 장애인권 문화제, 배리어프리 영화제 등 실제 경험을 통해 적극적으로 어필했다. 아예 내 강점을 세세하게 드러냄으로써 실제로 최종 면접 날에 자기소개서에 적었던 실제 경험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받았다. 내가 자신 있는 분야이니만큼 대답도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다.

이후 4월 합격, 6월에는 정규직으로 임용되어 마산역에서 일하게 되었다. 이제 다음 문제로는 과연 내가 매표 업무, 무전 및 업무 전화를 응대할 수 있을까였다. 다행이라면 채용형 인턴 기간 동안 매표를 배울 수 있었고, 낯설던 역명도 점차 익숙해지면서 어려웠던 고객과의 소통도 갈수록 나아졌다. 가끔 새로운 유형의 문의가 들어오면 알아듣기 힘들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어떤 문의인지 다른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배워 나갔다. 마치 다섯 살 때 처음 특수학원을 다니며 발음을 공부하고 언어를 배워 나가던 그때처럼, 업무에 필요한 단어들을 적고 들으며 적응했다.

그다음으로는 무전에 적응하는 단계가 필요했다. 무전기 특성상 음질이 그렇게 좋지 않아 처음에는 많이 힘들고 무전 자체가 무서웠다. 혹시나 나를 부르는 걸까봐 음량을 최대한 키우고 귀 가까이 대고 있었다. 그러다 한 번씩 방심해서 나를 부르는지 몰랐을 때도 있었다. 그런 일이 반복되니 위축되는 나를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이대로 있을 수는 없어 로컬 관제원 분들 말투를 계속 들어보며 익히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매번 플랫폼 품에 나갈 때마다 무전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무전할지 되뇌이며 내려갔다. 특히 자주

있을 법한 고객 안내 무전부터 비상상황에서는 어떻게 무전해야 할지 계속 생각하며 내려갔다.

예를 들어 “철도 ○○열차 전무님, 고객 한 분 에스컬레이터로 내려가십니다. 마산 안내 이상.”, “철도 ○○역, 상선에 환자 발생했습니다. 119 불러주십시오. 마산 안내 이상.” 이런 식으로 어떻게 무전하면 좋을지 계속 외웠다. 실제로 그렇게 외운 게 도움이 될 때가 정말 많았다. 열차가 탑승하려는 고객을 못 보고 문을 닫으려고 할 때 무전을 쳐서 문을 다시 열게 했을 때도 있고, 정말 여러 상황이 많았지만 처음 겪는 무전도 다른 동료들에게 물어봐 가며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계속 배우고 적응해 나갔다. 다행히 많은 동료들이 오래 걸려도 질책하지 않고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그 도움을 감사하게 받으며, 시간을 들여 배워 나가는 나는 여전히 ‘적응’하고 있다.

희망의 불씨

한국환경공단 | 오오



다른 사람들은 한창 일할 나이인 삼십 대에 아이를 낳고, 다니던 공기업에서 퇴직했다. 회사 일은 재미있었지만 아이 키우는 일과 병행하기에는 부담이 컸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자기 길을 찾게 된 이후 나도 다시 일을 하고 싶어 취업의 기회를 찾아봤는데 적당한 곳이 없었다. 게다가 그 사이 청력이 점점 약해져 중증 청각장애 판정을 받게 되었다.

갑자기 장애가 생긴 게 아닌 서서히 진행된 거라 간단한 전화를 받거나 사람들과 입모양을 보고 대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채용하는 근로지원인에 지원했다. 근로지원인은 장애인이 취업하여 일할 때 그 업무를 도와주는 도우미인데, 나는 수어 자격증을 갖고 있고 전화통화가 가능해 서울농아인협회에 근무하는 청각장애인 직원의 근로지원인으로 일하게 되었다.

근로지원인 일은 내가 지원하는 장애인 직원의 근무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어 출근하지 못하는 날에는 일당이 없어 생활이 불안정했다. 게다가 계약직이라 매년 새로 계약을 해야했는데 상대방이 계약을 연장할지 확신할 수 없어 연말이 다가올 때마다 안정적인 직업이 간절해졌다.

내가 업무를 지원한 청각장애인은 듣지 못할 뿐 아니라 언어장애도 있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는 수어를 사용했고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하거나 말을 할 일이 있으면 내가 대신했는데 그때만 빼고는 비장애인과 다를 바가 거의 없었고 일을 잘했다. 그는

고등학교 때 롯데리아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공장에 다니다가 입시준비를 해서 대학에 진학했으며, 결혼하기 위해 장인을 만나러 갈 때 대화를 하기 어려워 자기소개서를 직접 써서 들고 갔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자신이 조금 부끄러웠다. 잘 듣지 못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나보다 더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 다양한 일에 도전하여 이력을 쌓는 걸 보고 자극을 받았다. 마침 그때 공무원으로 이직할 준비를 하던 그는 나더러 같이 한 번 지원해 보자고 했다. 지원 결과 둘 다 떨어졌지만 실패를 경험 삼아 다시 도전하면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이후 토익시험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준비를 했다. 공부하고 시험을 보는 것은 익숙한 일이라 어렵지 않게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한자능력시험에도 지원하여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한자 2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2021년 초에 취업 공고를 찾아보던 중 아는 분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장애인을 채용한다는 공고가 떴으니 한 번 도전해 보라고 알려 주셨다. 자기소개서, 필기 시험, 면접 등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야 하지만 블라인드 채용이어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았다.

블라인드 채용은 학력, 출신 지역, 성별, 나이 등을 보지 않고 채용하는 공정한 채용 방법인데 내 경우에는 성별이나 나이 측면에서 유리한 데다 코로나 시국으로 마스크를 쓰고 전형을 치뤄야 해서 잘하면 합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부터 장애인을 뽑는 전형이어서 내가 장애인이라는 점을 감추거나 부끄러워 할 필요도 없고 신체의 불리한 조건이 감점 사항이 아니라 오히려 채용 조건라는 사실이 지금까지의 다른 모든 취업 조건과 달랐다.

살아온 시간이 길어 삶의 경험이 풍부해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쓰고 싶은 내용이 많아 줄이느라 애를 먹었다. 취업 컨설팅 회사에서 주는 정보를 참고하지 않고 내 인생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 회사에서 판단하는대로 믿고 맡겨보기로 했다. 그렇게 1차 관문을 통과하고 NCS 필기시험 준비를 하게 되었다. 여러 고난도의 문제를 풀어야 해서 쉽지 않았지만 시험에 떨어져 본 적이 없다는 자신감으로 열심히 준비했다.

필기시험일이 되어 배정된 곳에 가 보니 문제를 푸는 데는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었는데 회사에서 청각장애인을 채용한 사례가 많지 않은지 진행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혔다.

방송으로 시험에 대한 안내방송이 나오는데 준비위원들이 그 내용을 따로 알려 주지 않고 알아듣겠거니 하고 서 있었다. 시험을 보러 온 사람들도 청각장애의 정도에 차이가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방송에서 나오는 안내를 잘 알아듣는지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 이리다가 시험을 제대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손을 번쩍 들고 말했다.

“저는 청각장애인이라 방송에 나오는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으니 칠판에 내용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다. 내 말을 들은 시험감독관은 당황하여 방송에서 나오는 내용을 칠판에 써 주었는데 다행히 제 시간에 시험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때는 코로나가 창궐한 기간이라 마스크를 쓰고 있어 입모양을 보고 질문을 할 수 없어서 답답했지만 그동안 거쳐 온 다른 시험과 비슷하려니 생각하고 시험지를 받아 문제를 풀고 나왔다.

결과를 받아 보니 필기시험은 좋은 성적으로 통과했는데 면접이 걱정되었다. 젊은 사람들은 모임을 꾸려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준비를 한다던데 나는 나이도 많은데다가 특별한 준비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회사에 대한 내용을 모두 외웠다.

면접은 여러 명의 면접관들 앞에서 보는데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어 질문 내용을 알아듣지 못하면 어떻게 답변을 하나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인사부에 문의하니 어떻게 도와 주면 되겠냐고 해서 질문 내용을 듣고 문자로 통역해 주는 문자통역사를 구해 달라고 부탁했다. 면접장에 들어가니 노트북을 앞에 둔 사람이 내 옆자리에 앉아 면접관들의 질문을 워드로 작성해 주었다. 덕분에 마음 편하게 면접을 마칠 수 있었다.

2021년 8월 1일 자로 임용되어 한국환경공단에 첫 출근을 했다. 회사에 가 보니 청각장애가 있는 신입직원이 온다고 해서 직원들은 입모양이 잘 보이는 투명마스크를 준비해 놓고 있었다. 투명마스크는 공기가 잘 통하지 않아 숨쉬기가 어려워 특별히 나를 위해 그 마스크를 써 달라고 하기가 미안했다. 그래서 대화할 때 잠시 마스크를 내려 주면 내가 알아들을 수 있고 나를 부를 땐 어깨를 툭툭 두드리거나 책상을 두드리면 돌아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정보를 알려줬다. 가능한 한 많은 직원들한테 식사를 같이 하자고 청해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친해질 기회를 만들었는데 그 결과는 성공적이어서 거의 대부분의 직원이 내 장애의 정도에 대해 잘 알게 되어 어려움을 덜었다. 부장님도 내가 업무를 처음 배울 때 찢찢매고 힘들어하는 걸 보시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테니 마음

편히 일하라고 응원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습직원으로 멘토링을 하면서 장애인으로 회사에 적응하는 과정을 발표할 기회가 있었다. 부서장들 앞에서 나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이전 직장에서 일한 경험을 살려 장애인을 고용할 때 장애인고용공단에서 근로지원인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을 발표하니 모두 처음 듣는 이야기인지 반가워했다. 내용이 인상적이었는지 발표할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졌는데 내 사례 발표로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고용기회가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꺼이 응했다.

내가 지금 회사에서 맡고 있는 일은 서무와 회계 업무다. 회계 업무는 오래전에 다른 회사에 다닐 때 하던 업무여서 금방 익숙해졌다. 전화로 고객 상담을 하는 일은 잘 못 알아들어 곤란한 상황에 빠질 우려가 있어 제외되었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주 만족스럽다. 직원으로 채용되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준 많은 분들께 감사하며 입사할 때의 마음으로 늘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사 수기를 쓰면서 다시 한번 다짐해 본다.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

도로교통공단 | 지오



쉽 없이 달려왔던 20대, 어느덧 이제는 30대를 맞이하며,
남들보다 일찍 사회에 나온 저는 도로교통공단 청년인턴을 거쳐 직원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경험들을 통해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 모든 일들을 이겨 낼 수 있었는지 이 글을 통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공공기관 취업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9살 때부터 저는 어머니와 한 살 어린 남동생과 함께 생활해왔기에 20살 후반까지도 집안에 화장실이 없는 가정형편 속에 살아 왔습니다.

또한 3살 때 가족 모두 교통사고를 당해 3일간 혼수상태 후 깨어나 걸음마를 다시 시작해야 했고, 일상 생활을 하며 성장하다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시력 검사를 하니 한 쪽 눈이 신생아 시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여러 검사와 시력 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시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성장기가 지나고 고등학교 때 시각장애등급을 받아야 했으나 어머니의 만류로 등급을 받지 않고 사회생활을 해 왔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하셨던 친구이자 언니같은 긍정적인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보니 저 또한 밝고 긍정적인 아이로 자랐고, 초·중학교를 거쳐 좋은 스승님들을 만나 취타대, 탭댄스 등 예술적으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며, 봉사활동도 하며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음악과 마음으로 치유해 줄 수 있는 심리상담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 대학교를 가기 위해선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했어야 했지만, 가정형편으로 인해 돈을 빨리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상업고등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업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더 넓은 범위의 활동들을 통해 사고가 넓어졌고, 현실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꿈을 이뤄 보고자 고교 선생님과 함께 진로를 정하며, 두 곳의 대학교에 수시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그동안 동생과 저를 묵묵히 뒷바라지해 주셨던 어머니께서 새벽에 혼자 소리 없이 울고 계신 뒷모습을 보게 되었고, 모든 걸 주셨던 어머니의 그 희생을 작게나마 알게 되면서 저는 꿈을 포기하고 19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에 남들보다는 조금 빠르게 사회생활에 발을 디게 되었습니다.

낯설기만 했던 첫 사회생활이었지만,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예의와 밝고 긍정적인 인 마인드를 통해 회사직원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었고, 좋은 직속 선배의 배려 덕분에 빨리 회사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라는 저희 집 가훈이자 제 좌우명처럼 직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 왔고, 그후 파견근무로 대학교에 상주하며 직장생활을 이어 나갔으며, 회사 사정으로 인해 5년간의 첫 직장생활은 끝을 맺었습니다.

어느덧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켜야 하는 직장인이 되어 있었고, 첫 직장을 나오고 바로 새로운 직장들을 알아보며 면접을 봤고, 그후로 약국 보조업무, 콜센터 업무 등으로 직장생활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20대 후반이 되었고, 집안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미처 관리하지 못했던 왼쪽 눈은 한 살 때의 시력에 머물러 있어 오른쪽 눈에 의지한 채 지내다 보니 오른쪽 눈마저 시력이 점점 떨어졌고, 시각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장애인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시선들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니 장애를 가졌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힘들어 할 수도 있었겠지만, 어머니 덕분에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던 저는 담담히 받아들였고, ‘더욱 밝게 세상을 살아가겠노라’ 생각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되고 동사무소를 통해 알아 온 장애인의 혜택 용지 한 장.

그 용지를 보니 가정 형편상 자동차운전학원 다닐 돈이 없어 시험 보지 못했던 운전면허를 무료로 가르쳐 준다는 내용이 적힌 용지를 보자마자 용기를 내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도로교통공단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장애인운전면허센터에 연락을 하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필기시험을 합격하게 되었고, 기능 연습을 배우러 다니던 저를 가르쳐 주셨던 직원분께서 저의 밝은 성격을 칭찬해 주시며, 관심이 있다면 도로교통공단 직원으로 함께 일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갖춰 놓은 것 하나 없이 치열하게 살아 왔던 제 삶에 그 말씀은 새로운 궁금증과 설렘으로 가득해졌습니다. 그후 저는 공공기관 취업을 알아보게 되었고, 마침 도로교통공단 인턴 채용공고를 확인하여 바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선 월급이 끊기면 안 됐던 저는 기존의 직장생활을 하며 인턴 준비까지 해 왔었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생활을 도와주시듯 감사하게도 운이 좋게 인턴에 붙게 되었고, 저의 새로운 인생의 막이 시작되었습니다.

잊지 못할 2021년 11월 1일.

도로교통공단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시험부 청년인턴 입사.

5개월의 인턴생활은 제게 매일이 행복한 꿈 같았습니다.

면허자격 취득을 위한 첫 관문인 학과장 및 현장 감독관으로서의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며 근무했습니다.

평소에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해 주시는 선배님들께서 민원인을 대할 때는 정확한 기준과 절제된 감정으로 민원인을 대하는 모습들을 보며 내가 운전면허시험장 직원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턴에서 직원으로 꼭 입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계기가 있습니다.

제게 영원히 잊을 수 없을 60대 할아버지의 편지 한 장.

학과장에서 근무하던 중 저는 평소와 똑같이 민원인 분들을 대하며 근무를 하고 있었고, 오후가 되고 할아버지 한 분이 학과장을 다시 찾아 저를 찾으시며 할아버지께서 편지 한 장을 주셨습니다.

“선생님, 녀 고맙고 감사합니다.

65년 살면서, 선생님 같이 친절하고 저에 마음 감동 받았습니다.

핸드폰 끄지도 못하고 선생님 도움 깊이 감사합니다.

시험에 불합격 했지만, 선생님의 도움이 너무 큰사람이네요.

선생님, 저는 월요일 다시 시험 볼꺼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배운 것 없어 죄송합니다”

잊지 못 할 편지 한 장.

시험 보러 오셔서 핸드폰 끄게 도와 드리고, 컴퓨터로 하는 학과시험이다 보니 클릭하는 법 알려드렸을 뿐인데, 불합격을 하셨어도 감사하다 해 주시는 그 말씀이 어찌나 감사한지 집에 돌아와 한참을 울컥하여, 그동안 부족했던 제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처럼 저의 작은 배려와 서비스가 민원인에게 시험장, 더 나아가 공단에 대한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제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고, 체험형 청년인턴을 하면서 도로교통공단 입사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인턴이 끝나 갈 때쯤, 도로교통공단에서 처음 장애인 전형으로 교통직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고 바로 지원하여 교통직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청년인턴으로서 그 어느 지원자보다도 도로교통공단 대구운전면허시험장에서의 업무를 직접 해 보며 쌓은 역량이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기에 그동안의 경험을 정리해 나갔고, 필기시험 준비와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그 결과 감사하게도 서류-필기-최종면접까지 합격하며 도로교통공단 대구운전면허시험장 민원부 교통직에 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험부 청년인턴을 하며 민원인을 만나고 겪어 왔던 직무경험과 19살 때부터 그동안 사회생활을 해왔던 직장에서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제는 민원부 직원으로서 면허시험과 발급 및 면허에 관한 전반적 프로세스에 대해 이해하며, 더 나아가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연령·성별 등 사람의 특징에 따른 대처를 하는 법을 배우며 더욱더 행동 하나하나에 책임감과 자부심을 느끼며 감사한 선배님들과 함께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열심히 근무하며, 정규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많은 분들로부터 진심으로 응원받고 도움받았던 그 감사함 잊지 않고, 어디에서나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는 그 말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꿈조차 꾸지 못했던 저도 해낸 걸 보면서 동기 부여가 되고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지치지 말고 끝까지 가다 보면 분명 해낼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취업준비생들 파이팅!



공공기관 입사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IV

지역인재 채용

- 1 두 번째 기회
- 2 備(갓출 비)수도권 인재로 거듭나 모두와 어깨를 나란히
- 3 차별을 기회로 만들어 주는 제도
- 4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 5 명확한 목표를 갖게 해 준 지역인재 채용
- 6 문제를 해결하며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

두 번째 기회

한국토지주택공사 | 박○○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3년 채용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10월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다가 공공기관 입사 시기 공모전이 열린다는 홍보물을 보고 언제쯤 취업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지 고민하는 비수도권 대학 취업준비생들이 제 사례를 보고 힘을 얻길 바라며 합격수기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 남들보다 늦게 생긴 동기

저는 고등학생 때 뚜렷한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고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 동기도 약했습니다. 좋은 대학을 간다고 해서 제 인생이 스펙터클하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입시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결과를 내지는 못했고 성적에 맞추어 지방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보니 주변 사람들이 대학 이름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입학한 대학에 따라 이후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맡든 남들보다 훨씬 성실하게 잘 해낼 자신이 있었지만 이런 선입견 때문에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와 마찬가지로 동기를 잃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러던 제가 공공기관 지역인재 전형에 대해 알게 된 것은 대학교 졸업학년 때였습니다. 공공기관 유치지역 대학 출신 학생들에게 일정 비율을 배정하고, 대학에 대한 편견 없이 역량만으로 지원자를 평가하는 지역인재 전형이 제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라고 생각해 다시 용기를 갖고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대학 입학 때부터 공공기관 입사를 준비한 것이 아니었기에 다른 지원자들을 따라잡기 위해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 취준 시작부터 합격까지

제가 대학교를 나온 지역에선 공공기관 입사를 준비하는 지원자의 비율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크게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째, 기업의 정보나 준비 방법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채용 공고만으로 알 수 없는 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 오픈채팅방과 공공기관 채용 관련 네이버 카페를 활용하고 특히 합격생 및 현직자의 조언을 눈여겨 익힌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둘째, 멘탈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공공기관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 드물다 보니 어려움을 하소연하거나 협력할 사람이 없어 회의감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저는 합격자 수기를 골고루 찾아보며 모두들 비슷한 고민을 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끼고 저 역시 합격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1. 인턴

실무 경험을 얻기 위해 산학협력과정을 통해 사기업에서 6개월간 인턴으로 일했습니다. 인턴 활동의 장점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직접 익힐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인턴이라는 신분 때문에 뚜렷한 업무를 맡기지 않지만 그 덕에 스스로 업무 방법을 익히고 자료를 찾아 보며 제 직렬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관공서와 공공기관의 협업 과정을 참관하며 공공기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지를 배운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인턴에서 익힌 실무 지식은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직무 관련 경험을 답변해야 할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자면, 제가 인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익힌 것이 매뉴얼화였습니다. 모든 업무에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고 제가 경험한 상황을 매뉴얼화하여 같은 업무를 수행할 때 시간을 절약하고 연관업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만들어 제 매뉴얼이 부서에 도입되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런 점을 솔직하게 풀어 낸 것이 역량을 증명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2. 서류 전형

서류 전형은 흔히 취준생들이 꼽는 ‘기본 자격증’만 갖춘다면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그러나 기사, 컴퓨터활용능력, 한국사능력검정, 어학시험 등 종류가 많아 자칫하면 기본 자격증 취득에만 많은 시간을 소모할 수 있습니다. 채용 전형의 본 게임은 필기와 면접이기 때문에 자격증은 단기간에 목표를 정해 취득하여 이후의 전형 준비에 힘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취득해야 할 자격증이 많기 때문에 저는 한 번에 하나씩 집중적으로 공부하여 취득했습니다. 서류전형을 위해 준비한다고만 생각하지 않고 제 전공 지식이나 실무에서도 유용할 것이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기초 실력을 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기사 자격증 취득 시 공부한 것들은 필기전형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컴퓨터활용능력자격 취득 시 배운 엑셀 사용법은 신입사원 연수교육에서 다룰 정도로 실무에서 중요했습니다. 덕분에 연수 과정도 큰 어려움 없이 마칠 수 있었습니다.

3. 필기 전형

필기에서는 보통 NCS와 전공 두 가지를 공부해야 합니다. NCS는 문제풀이 감각이 중요하고, 전공의 경우 학습량이 많기 때문에 두 가지를 매일 꾸준하게 공부하는 성실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채용 전형 중 가장 합격률이 낮은 전형이기도 하기에 누가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공부하느냐가 합격 여부를 가른다고 생각합니다.

필기 합격까지는 어느 정도 학습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좌절을 맞볼 수 있지만, 실력이 오르면 공부량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계속 합격할 수 있으므로 가장 성과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NCS의 경우 매일 소량의 문제를 풀고, 시험 1~2주 전부터는 모의고사를 풀며 실전 감각을 키웠습니다. 시간 관리가 중요한 시험이기에 남은 시간에 따라 문제풀이 순서를 변경하거나 자신 있는 유형의 문제를 먼저 푸는 등 맞춤형 전략을 세워 실제 시험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전공과목은 먼저 이론을 노트에 정리해 회독하며 개념을 철저하게 다졌으며 문제를 2~3회 반복하여 풀면서 유형을 숙지했습니다. 공공기관 전공 필기시험의 경우 이론문제와 계산문제 모두를 다루기 때문에 어느 쪽도 소홀하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4. 면접 전형

처음 면접 단계에 임하면 이제 거의 합격이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 만큼 소홀히 준비하기 쉽고, 탈락을 맞보게 되면 그 충격으로 슬럼프를 겪을 수도 있는 위험한 전형입니다.

그러나 면접만큼 자신을 자유롭게 어필할 수 있는 전형 역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이 정해진 전형이 아니기에 자신의 강점을 강조하는 것에 중점을 두면 필기 전형보다도 수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준비생들은 일목요연하게 말하는 연습이 되어 있지 않아 처음에는 훨씬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첫 면접 때 혼자서 준비하다 탈락한 이후 한계를 느끼고 면접스터디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근거지가 지방이라 스터디원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아 2시간 거리의 인근 대도시로 이동하고는 했는데, 그럼에도 반드시 면접스터디에 참여하기를 추천합니다. 나도 모르게 사용하는 말투나 감점될 수 있는 습관을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고, 서로가 모의 질문을 하며 다양한 성향의 질문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혼자 준비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업마다 인재상이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지원한 기업에서 선호하는 인재상 중 나의 강점을 도출해 어필하는 연습을 계속했고 그 결과 네 번째 면접만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이름에 주눅 들지 않고 자신 있게 공공기관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 이를 통해 다양한 인재를 발굴한다는 취지 덕분에 저는 인생에서의 두 번째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하지 않았던 노력을 취업 준비 과정에서 곱절로 하면서 제가 아직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지역인재의 가능성을 믿고 계속해서 우수한 사람을 뽑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께 다시금 감사드리고 싶으며, 지방대학 출신자의 잠재력을 믿고 뽑아 주신 것에 최선을 다해 보답하고 싶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하나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지역인재 가점이 해당 기관의 유치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더 많은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조금 더 기회를 확장한다면 보다 많은 능력 있는 지원자들이 저처럼 두 번째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동기 부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얼마 후 제가 졸업한 대학교에서 취업멘토 자격으로 후배들에게 준비 과정을 설명하고 조언해 줄 예정입니다. 제 사례를 보고 다른 비수도권 대학의 학생들도 노력하기만 한다면 공공기관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備(갓출 비)수도권 인재로 거듭나 모두와 어깨를 나란히

한국수자원공사 | 성○○



31살, 남들이 보기에는 늦은 나이일지 몰라도 어디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그 시선들이 부러움의 대상으로 바뀔 수 있다. 지역적 소외감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준 ‘지역인재 채용’에 대해 고마움을 담아 입사 수기를 작성하려고 한다.

🔍 태어났을 때는 “지역”(인재)

경기도와 가깝지만 수도권은 아니면서 그렇다고 특색이 짙은 지방 느낌은 또 아닌 약간 애매한 곳이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충청도라는 곳이다. 충청도 역시 지방이지만 국가 정책으로 인하여 중앙공기업 대부분이 아래 지방으로 내려가 지역인재로도 발탁되기 어려운 지역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한국수자원공사는 본사가 대전에 위치한 곳으로 집 주변에서 학교에 다니던 내게는 운명 같은 회사로 느껴졌다. 여기에 나의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쌓는다면 몇 년이 걸리더라도 합격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 사회 초년생, 지역“인재”로 거듭나기 위한 첫 번째 걸음

성인이 되자마자 임대한 뒤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만났다. 그때 느낀 것은 ‘집 주변에

서만 살아 왔던 나는 정말 우물 안의 개구리였구나'라는 것이었다. 마침 처음으로 사회에 나온 김에 더 큰 곳에서 경험을 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전역하자마자 바로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났다. 비수도권 출신이기에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고 한 단계 더 큰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워홀 생활을 하고 내게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어떠한 부정적인 상황이 닥쳐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다. 집을 구하지 못해서 공항이나 길거리에서 잠을 잔 경험, 일하는 곳 사장님이 몇 달 치 월급을 안 주고 도망가서 굶은 경험, 함께 일하는 직원에게 사기 당한 경험 등 온갖 수모를 겪어 봤지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기회는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국 워홀 생활 동안 원하는 목표를 이뤄냈고, 비자가 만료된 뒤에는 근방에 있는 뉴질랜드로 떠나서 생활하며 취업 준비의 발판을 마련했다.



대학생, 지역“인재”로 거듭나기 위한 두 번째 걸음

워홀을 통해 경험이 주는 가치를 알게 되어 복학 이후 더 많은 경험을 쌓기 위해 학업 보다는 공모전이나 아르바이트하면서 대학 생활을 보냈다. 꼭 앉아서 공부하는 것만이 취업 준비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특히 지역인재로 당당하게 채용되기 위해서는 지방에 살기 때문에 받는 당연한 특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가 얼마나 그 지역에 관심을 가지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고, 회사에 입사해서 더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진심을 가지고 일할 것인지 그러한 진정성도 보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모전에 많이 지원했다.

그중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공모전에 참가했다. 직접 그곳에 방문하여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을에 필요한 것과 애로사항 등을 조사하였고, 마을회관에서 함께 잠을 자기도 했었다. 또한 지금 다니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대학생 서포터즈도 지원하면서 물에 관한 긍정적인 내용을 정보가 부족한 지방 분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도 고민해 보고 직접 실행에 옮겨 본 경험도 있다.

이러한 나의 관심이 “지역인재”라는 채용제도와 큰 시너지를 내면서 누구보다 효과적인

으로 활용하여 취직에 성공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내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남들보다 학업에 집중하지 않아 낮은 점수에 맞는 학교로 진학했다. 남들 노력할 때 게으르게 행동했던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채용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더욱 노력했고 대학 진학 이후 오히려 그 반대가 되어 남들 놀 때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경험을 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다.

❓ 취준생, 지역“인재”가 완성되는 마지막 발걸음

다른 나라를 경험하고 공모전을 참가하면서 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아졌다. 국내 유일한 물 관련 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였고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을 위한 일을 한다는 것도 매력적이었다. 자연스럽게 한국수자원 공사 입사 시험에 맞춰 취업 준비를 시작했다. 앞서 말한 긍정적인 생각으로 2년 동안 20개 이상의 서류 및 필기시험 탈락, 그리고 단 세 번의 최종면접 탈락을 겪고도 한국수자원공사에 입사하게 되었다. 오로지 최종 목표는 이곳이었지만 많은 유형의 문제를 접하고 면접 경험을 늘리기 위해서 다른 회사에도 많이 지원했었다.

NCS 같은 경우는 최근 이슈가 되는 사회적 문제나 경제와 관련된 지문이 많이 나와 여러 번 접하면서 익숙해질 수 있었고, 전공은 몰랐던 부분을 다시 한번 공부하여 실수하지 않도록 연습할 수 있었다.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준 회사들에 미안하지만 수준 높은 문제들을 공짜로 풀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응시했었다. 또한 함께 시험을 보는 응시생들은 나태해질 수 있는 나에게 좋은 자극제가 되어 주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결국 한국수자원공사 필기시험에 합격하게 되었고 마지막 최종 면접만을 앞두고 있었다. 경쟁자들 또한 지역인재로 응시한 분들일 수 있지만 앞서 말한 나의 경험은 누구보다 지역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기에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가득했다. 결과적으로 최종 합격하여 이렇게 입사 수기까지 작성하는 시간이 되었고 우리 지역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는 사원이 되었다.



한국수자원공사 지사가 굉장히 많지만, 학교 주변에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건물을 보면서 친구들에게 “나 저기 회사 갈 거야”라며 입버릇처럼 말하고 다녔었는데 정말 회사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때 내가 손으로 콕 찍어서 말한 회사 건물 사무실에 앉아 일을 하게 되었다.

지역인재 채용 덕분에 끝까지 도전할 수 있었고 도전하는 과정을 의미 있게 만들어 갈 수 있었다. 나에게 있어 지역인재 채용은 단순히 한국수자원공사에 입사할 수 있게 해준 것이 아닌 내가 이 회사에 적합한 인재로 거듭나기까지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었고 비수도권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도전할 수 없었던 것들을 도전하게 해 준 고마운 채용제도라고 생각한다. 소외된 지역이라는 불합리한 조건 속에서도 미래를 위해 노력하여 “인재”로 거듭나 당당하게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해 준 “지역인재 채용” 고맙다!

차별을 기회로 만들어 주는 제도

한국중부발전 | 천○○



Q 같다(공통점 찾기)

처음 만나는 사람과 대화할 때 보통의 사람들은 어색한 분위기를 극복하고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많이 합니다. 나이, 관심사, 출신 지역, 출신 학교 등을 물어 공통점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본인과 같은 내용이 있으면 훨씬 더 원활한 대화의 포문을 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공통점 찾기는 선입견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이른 나이에 취업한 저는, 개인으로 보지 않고 출신 지역과 학교를 범주로 묶어 평가 절하하거나 과대 평가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었습니다. 사회에 나와선 공통점 찾기가 더욱 중요해짐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와 공통된 점을 갖고 있다는 점이 주는 편안함과 안도감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았습니다. 저 또한 첫 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행동했습니다.

제가 다르다고 느끼기 전까지는.

Q 다르다(보이지 않는 벽)

대학 졸업 전, 이른 나이에 취업한 저는 전혀 연고가 없는 지역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느낄수록 더욱더 저는 공통점

찾기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 찾기는 저를 더 이방인으로 만들 뿐이었습니다.

제가 나갈 수 있었던 동문 모임, 향우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전에 다녔던 회사의 여러 동문 모임을 보며 재학생이 1만명이 넘는 학교에서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모임을 갖고 하나가 되는 게 신기하게 느껴지면서도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20대의 저에겐 너무나 크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처럼.



남다르다('나라는 브랜드)

어느 곳에도 속할 수 없었던 저는 '나'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남들과는 다른 직원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1년간 OA능력을 높이고자 회사를 마치고 공부를 했고, 자발적 야근 등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회사를 위해서 근무하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출근하고, 남들보다 더 늦게 퇴근했습니다. 1년 동안은 티가 나지 않았지만 2년부터는 점점 높은 실적을 냈고 3년 차가 될 때는 가장 높은 실적을 내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해 연봉인상률 40% 가까이 기록하고 많은 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보고서와 기획안을 작성하였고 실무에 많이 활용하였으며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사기업에 근무했기 때문에 제 노력의 결과물은 항상 회장 '개인'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대한 아쉬움은 날이 갈수록 크게 느껴졌습니다. 제 노력의 결과물이 '국가'와 제가 자라 온 '지역'에 도움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고, 현재의 회사로 이직하는 것을 목표로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지.



차별을 기회로

무엇을 위한 삶을 살지에 대한 고민의 답을 찾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고 자란 고향과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부합하는 회사가 바로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인 한국중부발전이었습니다. 본사와 핵심 발전소가

모두 고향에 위치해 있어 제가 나고 자란 고향에 기여할 수 있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으로 국민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회사를 목표로 계획을 수립했고 입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사기업에 입사할 때와는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해당 지역의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본사이전지역 채용목표제가 도입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채용에서 블라인드 및 직무능력중심의 채용으로 변화한 점이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이전에 사기업에 입사할 당시 중요하게 평가되었던 것은 전공과 학벌, 나이 등 소위 말하는 스펙이었습니다.

이른 나이에 취업해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큰 강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경험에 강점이 있었던 저는 면접에는 자신이 있었으나, 필기시험에는 다소 부족했습니다. 지역인재 채용목표제가 없었으면 면접단계를 진행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니 지금 와서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다행히 지역인재 채용의 도움을 받아 면접단계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면접단계에서 저는 날개를 펼칩니다.

노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늦은 시간까지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을 찾아가며 전담 노무사와 일하며 법적 지식을 쌓고 문제해결능력을 키웠던 경험은 자기소개서에 그대로 녹아들었습니다.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사내카페와 구내식당을 공간 구성에서부터 메뉴까지 전반적으로 개선했던 경험은 직원들과의 소통과 업무 기획 능력을 배양할 수 있었고 발표면접에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대외활동을 통해 만났던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은 저의 소통능력과 리더십을 높이 주었고 토론면접에서 제 의견을 전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신입으로는 다소 부담스러웠을 나이였지만 연령 제한이 없었고 개인 신상은 블라인드였기 때문에 동일한 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채용단계마다 지역인재 채용 목표 인원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토론면접과 발표면접, 자기소개서 기반 인성면접을 마치고 초조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던 발표일이 되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스크롤을 올린 저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커트라인 점수와 평균 점수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획득했기 때문입니다. 지역인재 채용이 없었다면 절대로 이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지역 출신이라 차별받았지만, 이곳에 입사할 때는 또 다른 기회가 되었습니다.

차별을 기회로

🔍 현재의 나와 지역에서 내가 그리는 미래

여기저기서 ‘천주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직장상사, 동기, 후배를 가리지 않고 저를 찾습니다. 입사한 지 벌써 4년 가까이 되었고 현재의 저는 동료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경험과 전 직장에서 쌓은 직무능력을 바탕으로 현재의 회사에서 성과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동기와 후배에게 보고서 작성방법과 업무에 적용 가능한 OA 활용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전반적인 업무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신입사원으로는 받기 어려운 기관장 상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역인재 채용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지역인재 채용제도는 차별을 기회로 만드는 제도라고 생각하며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국방기술품질원 | 이○○



Q 꺾이지 않는 마음에 꽃을 달아 준 지역인재 채용

6년 이상 살얼음 같던 취업 준비 과정을 겪은 저에게 지역인재 채용은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지역과 수도권의 정보 격차, 인프라의 차이로 취업 준비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준비 기간이 점점 길어짐에 불안함도 조금 있었지만 꺾이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도전하였으며, 지역인재 채용이 그 끝에 꽃을 달아 주었습니다. 이 수기가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에 도전하는 모든 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국방 분야 연구원이 되겠다는 꿈

어릴 적부터 국방 무기 분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나가는 헬기나 항공기를 보고 기종을 맞출 정도로 좋아하였으며, TV를 켜면 만화나 예능보다 그 나이대에는 잘 보지 않는 『국방일보』나 방산 관련 다큐멘터리 채널을 주로 시청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방산 분야 종사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역대학을 졸업하고 공공기관 취업준비생이 취득해야 할 스펙은 대부분 갖추었습니다. 이후에는 대부분 수도권에서 열리는 취업박람회와 기업설명회를 찾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하고 기업 분석을 하였습니다. 교통비와 숙박비 등 꽤 돈이 들었지만, 아르바이트로 마련하였고 준비 기간 동안 300번 이상 채용 지원을 하였습니다. 대부분 서류에서 탈락하였으나 절망은 하지 않았습니다. 탈락할 때마다 취업 준비 전 공부를 등한시한 업보라 생각하고 그 차이만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더 노력하였습니다.

🔍 노력의 끝에 꽃을 달아 준 지역인재 채용

필요한 스펙은 모두 갖추었고 지원→탈락→피드백→공부→지원 순의 루틴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실무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틈틈이 인턴과 현장실습을 지원하여 역량을 쌓았습니다. 제일 가고 싶었던 방산 분야, 그중에서도 국방기술품질원에 지역인재 채용이 도입되었습니다. 서류지원을 하였고 NCS 시험을 거쳐 드디어 최종 면접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6년 만이었습니다. 합격발표 메일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옆에 있던 동생을 붙잡고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하루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입사하게 되었고 4년이 지난 지금도 일이 너무 좋고 재미있습니다. 물론 업무를 함에 있어서 힘든 순간도 있지만 고통의 취업 준비 기간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과거 공부를 등한시한 것처럼 다시는 후회가 없도록 퇴근 후 2~3시간씩 공부를 하며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산 분야의 큰 업무와 나라를 위해 일할 기회를 준 지역인재 채용 정책에 감사하며 국가와 기관에 누가 되지 않도록 매사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 취업 준비 과정에 대한 제언

대부분 실패만을 겪었기 때문에 공공기관 취업 준비에 대해 조언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상황인 취업준비생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몇 가지 적어 보겠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최선을 다해라” 등의 조언은 제외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취업 준비나 인생은 도전→실패→피드백→도전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매일 최선을 다할 순 없습니다. 이 말의 뜻은 최선을 다하되 공부가 안 되는 날이

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무원 한국사 강사 전한길 선생님이 늘 언급하신 “돈오점수(頓悟漸修)”처럼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왜 넘어졌는지를 깨닫고 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하는 과정에서 점차 발전하게 됩니다. 취업 준비를 넘어 인생을 사는 데도 이 생각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사고나 천재지변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살아감에 있어 별별 일을 다 겪게 됩니다. 일을 하게 되면 그런 순간은 더 많아집니다. 이러한 주변의 영향으로 흔들리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하면 됩니다. 어제 공부를 못했다고 마음에 담아 두지 말고 지금부터 다시 하면 됩니다. 공부하고 넘어지면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공부 시작하고 그 연속입니다. 메타인지를 통해 계속 나 자신을 돌아보고 피드백하며 나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취업 준비를 하며 제일 후회되는 점은 매사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살아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군대에서도 업무를 맡으면 뺄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했고 대학교 때 조별과제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기에 최선을 다했으면 나의 역량이 더 발전해서 취업 준비 기간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조별과제 같은 경우에도 다 내가 해야 한다더라도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돌아와서 나 자신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으며 지금은 해야 할 일에 늘 열심히 하려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분야 연구원이 되며

살얼음 같던 기간을 겪은 저에게 지역인재 채용이 다가오는 의미는 특별합니다. 취업 준비 기간 동안 많은 생각을 하며 끝없이 공부하여 발전하고 남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끝을 지역인재 채용이 축복해 주었고 덕분에 헌신과 발전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방산 기관의 연구원이 되었습니다. 이에 감사하며 나라에 헌신하고 회사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복한 삶의 기회를 얻게 해 준 지역인재 채용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많은 지역의 우수 인재들이 혜택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지역인재 제도 개선

지역인재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도권이나 기타 명문대 우수 인재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은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의 인재들이 합격 후 연고지와의 거리 등의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인재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역차별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나 역차별과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인재 채용 딜레마를 최대한 줄이는 개선방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인재 지원 조건을 지역대학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공무원 지역 채용처럼 연고지와 출신 대학 모두를 고려하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방에서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한 우수 인재의 역차별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전형 난이도를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공무원 7급 지역인재 수습직원 전형처럼 대학교 재학 때부터 학점, 스펙 등을 평가받고 학교 추천으로 약 6개월 수습직원 과정을 거친 후 지역인재로 채용된다면 수도권 명문대 우수인재들과의 역차별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며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문장을 참 좋아합니다. 지역인재 채용이 저에게 큰 기회가 된 것처럼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오기 마련입니다. 모두 노력 끝에 꽃이 축복 하길 바라며 이 수기가 미래의 공공기관 지역인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명확한 목표를 갖게 해 준 지역인재 채용

한국주택금융공사 | 조○○



진로고민을 덜어내 준 지역인재 채용

대학생이라면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취업고민이 2018년 대학교 2학년이었던 저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지방 대학생 문과 출신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직장은 많지 않았기에 해당 고민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금융공공기관들의 부산 이전으로 부산의 대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평소 금융과 경제에 관심이 많던 저에게는 더욱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1년간 지속해 오던 진로고민은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일원으로 근무해야겠다는 명확한 목표가 생기며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정보 격차의 해소

당시 대부분 금융공기업이 서울에 거점을 두고 있었기에, 지역에서 해당 취업정보를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역인재 채용으로 금융공공기관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였지만, 준비과정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준비과정이 필요한지가 명료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과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찾아보았지만, 제한된 정보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2년의 시간

이 흐른 후 대학교 선배, 주변 지인 등이 금융공공기관에 취업을 하며 정보 격차가 조금씩 해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교 같은 과 혹은 동아리에 금융공기업 현직자와 연결되어 있는 선배들이 계셨고, 직접 그분들과 연락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습니다. 저의 경우도 경제·시사 동아리에 가입하여 주택금융공사에 재직 중인 선배님들을 만나며 양질의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을 준비 중인 동급생들과 필기 및 면접 공부를 함께 진행하며 서로 비약적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역인재 전형이 비단 부산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도 기회가 간다면 이와 같은 순기능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 미취업자 문제를 해소하고 수도권에 모든 것이 과밀화되어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양한 공사 채널 이용

청년 채용에 대한 공공기관들의 관심이 높아지며,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수도권·비수도권 입사 1년 차 미만 직원을 대동하여, 직원이 재학하였던 대학교로 출강을 하여 취업강의를 진행하는 재밋지에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최근에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실 현직자들의 합격수기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청년인턴 채용을 통해 공사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사 업무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공공기관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보니 기회가 된다면 지원하여 경험해 보는 것이 추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지속적인 레이스

취업 기간은 사람마다 차이가 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소 1년은 소모되는 장기간 레이스인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사를 위한 과정에서 장기간 학업할 수 있는 습관이 중요할 것입니다. 장기간 학습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

에게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인들이 본인보다 먼저 취업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 정신적으로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극복을 위해서는 일상을 단순화하고 해당 공부에만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학업에 집중은 하되 간헐적으로 친구 혹은 가족과 대화를 나누어 휴식 시간도 보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주 2회 필기 및 면접 스터디를 진행하며 도서관에서 벗어나, 함께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과 공부 및 대화를 통해 서로 정신적 지지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는 취업이라는 장기레이스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공부 외에도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할 것이 시사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금융기관의 특성상 경제·시사·금융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에 따라 업무의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상품도 출시되곤 합니다. 따라서 취업준비생은 항상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를 지속적으로 최신화하는 데에는 일간신문을 읽는 것이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한 시간 정도의 투자로 경제의 큰 맥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금융공공기관들이 필기 전형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사논술, 금융논술 과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정책제언

지역인재 채용은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의를 가지는 제도였지만, 수도권 취업준비생들에게 역차별을 가져다준다는 평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쿼터제로 지방 대학생이 채용되며 수도권 채용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만을 누그러뜨리고 제도가 안정적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더욱 공평하고 형평성 있는 채용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필기시험 등의 난이도를 적절하게 조정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평균점수 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지역인재 전형이 정착된다면, 장기적으로 수도권 과밀화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입사 수기를 작성하는 날, 저는 주임에서 대리로 호칭이 변경되었기에 더욱 뜻깊었습니다. 1년 조금 넘는 시간이 재빠르게 흘렀고, 취업 준비 생활을 잊어 갈 즈음 다시 상기시키며 추억 아닌 추억에 잠길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30년 넘지 않은 인생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 중 하나가 취업 준비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년 반 동안 추석 당일, 설 당일을 제외하고는 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스스로 무언가 한 가지를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에 보람을 느끼고 뿌듯합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고 결과가 과연 좋을까에 대한 의구심과 회의감 등이 몰려 왔었습니다. 취업준비생 대부분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과정을 정신적으로 이겨내지 못하면 준비 기간이 길어지며 매너리즘에 빠지는 친구들도 수없이 옆에서 지켜보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약 2년 정도 고통스러운 기간이 유지되었지만, 이 과정을 무사히 극복한다면 좋은 기회 혹은 결과가 취업준비생 분들에게도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 역시 10개넘는 기업에서 탈락하며, 힘들었지만 금방 털어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멘탈 회복 기간을 최대한 짧게 가지려 했고, 이 노력으로 번아웃이 오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신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원하는 기업에 입사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며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

한국관광공사 | 최○○



삶의 여정에서 때로는 궤도를 이탈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 새로운 목표 지점을 찾아 나아가는 과정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방향을 잃고 좌절했던 순간의 경험을 통해 어떻게 다시 원하던 목표를 이룰 수 있었는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Q 삶에서 당면한 문제와 해결방법

첫 번째 문제: 지방대학의 한계

저는 학창시절 공직자의 삶을 꿈꾸었지만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고, 수능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성적에 맞추어 지방에 위치한 학교의 비인기 학과를 선택하였습니다.

해결방법: 지방대학만의 인프라와 특성을 활용하자

서울의 대학들은 교육 인프라와 기회에 있어서 풍부한 환경을 제공하는 반면, 지방대학은 제한된 인프라와 기회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경쟁에서 밀리기 쉽지만, 이는 동시에 독특하고 도전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로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지역기업과 연계된 산학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현장경험을 쌓으며, 제가 가진 강점과 약점을 스스로 파악하고 진로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지방학교 특성상 중국인 유학생들이 많았고, 이들이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서로의 외국어 공부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는 외국어 자격증 시험 비용이 지원되었고, 외국인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어학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스키장, 지역축제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직무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아닌 단순히 흥미를 가지고 참여한 활동이었으나 예상치 못하게 이러한 경험은 한국관광공사 면접을 준비할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대외적환경의 제약

대학 재학 중 쌓은 어학능력과 직무경험을 활용하여 물류기업에 입사하였습니다. 국제 물류 업무를 담당하며 글로벌 시야를 넓힐 수 있었지만 업무환경은 가혹하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회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물류업계 전반이 큰 타격을 받았고, 직원들이 돌아가며 휴직하게 되었습니다.

해결방법: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자

불안정한 고용환경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기계발과 안정된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학창시절에 꿈꾸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포기하였던 공공기관 입사에 도전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에서 공공기관 스터디를 만들었습니다. 수도권이 아니었기 때문에 스터디 구성부터 쉽지 않았지만 4명의 스터디원을 모집하였고, 주 1회 만나며 필기준비를 함께 하였습니다. 스터디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피드백해 주고, 스터디원들과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동기 부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기시험 준비는 전공공부를 집중적으로 하였습니다. 경영학, 회계학, 재무관리 등 사무행정 직렬에서 필요한 전공과목의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고, 이론을 이해한 후 문제풀이를 진행하였습니다. NCS는 시험장과 똑같은 환경에서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고자 하

였습니다. 스터디원들의 목표기업 봉투모의고사를 함께 풀었고, 문제풀이 방법을 서로 공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만의 독자적인 강점을 찾으려 하였습니다. 물류 관련 기업에서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물류, 무역 등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목표 달성에 대한 성취감과 얻을 수 있었고 공공기관 입사준비를 올바르게 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 목표기업 채용정책의 변경

당시 가장 입사하고 싶었던 회사는 한국관광공사였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으로 응시할 수 있었으며, 해외에서의 근무기회가 있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0년 채용부터 중국어 직렬이 사라지며 합격하지 못하였습니다.

해결방법: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목표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 들고 정말 좌절하였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쌓은 지식과 경험으로 물류 관련 공공기관에 일반전형으로 합격하였습니다.

타 공공기관에서 사업기획 및 홍보 담당자로 근무하며 다방면으로 성장하였지만 한국관광공사 입사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기관 홍보가 아닌 한국의 매력을 알리는 보다 전문적인 홍보업무를 수행하고 싶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로의 두 번째 입사 준비는 저의 단점을 보완하고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강화하는 등 전략적으로 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필기시험 공부와 동시에 면접을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영어면접을 대비하기 위해 회화공부를 집중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관광 분야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니 운도 따라 주었습니다. 마침 2022년 채용부터 다시 중국어 면접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지역인재 가산점의 도움을 받아 2023년 상반기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지역인재 채용전형의 필요성

고용에 대한 불안감으로 미래를 걱정하던 순간 지역인재 채용은 어두운 터널 속에 보이는 한줄기 빛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지역의 취업준비생들은 공공기관 입사 준비를 위한 정보 수집부터 스터디 모집, 필기시험 응시까지 여러 부분에서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난관은 지역의 인재가 가지는 자신감 결여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인재 채용제도를 통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공공기관 입사를 준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제도를 통해 가지게 된 자신감으로 최종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인재 채용제도에 큰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 학생들과의 경쟁에 부담을 느끼고 공공기관 입사 지원에 주저하는 지방대학 출신 취업준비생이 있다면, 지역인재 채용제도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준비해 보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제도를 믿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감을 얻었으면 합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개선의견

지역 출신 학생들에 대한 인턴 채용이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가산점을 높이거나 채용 비율을 확대하는 방법보다는 스스로 업무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이를 통해 자신감을 얻게 도와주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입사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공공기관 입사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V

청년인턴

- 1 경력 無, 직무경험 無, 절박한 마음으로 시작한 청년인턴이 가져다준 취업
- 2 청년인턴을 통해 찾은 꿈, 남의 길에서 나의 길로
- 3 독서실 인턴, No! 실무형 인턴, Yes!
- 4 파도를 멈출 수는 없어도,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울 수는 있다
- 5 입사를 원한다면 인턴(intern)으로 인턴(in turn)하자
- 6 느리고, 적고, 그래서 깊다

01

경력 無, 직무경험 無, 절박한 마음으로 시작한 청년인턴이 가져다준 취업

서민금융진흥원 | 김○○



🔍 내 인생을 바꾼 선택, 서민금융진흥원 청년인턴 입사

공공기관 입사를 결심하고 취업 준비에 막 뛰어들었던 작년 8월, 적은 나이가 아니었지만 진로에 대한 고민이 깊어져 또래들이 가지고 있는 직장 경험이나 화려한 스펙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취업 사이트에서 우연히 공공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 인턴 채용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인턴 경험이 도움이 될까? 공공기관 인턴은 일 경험을 못 한다던데,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내세울 수 있는 스펙 한 줄에 급급했던 저는 우선 입사지원서를 제출했고 운 좋게 합격하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17번의 업무 경험으로 취업의 기틀을 다지게 해준 청년인턴

실질적인 업무 경험을 하지 못한다는 소문 때문에 청년인턴 지원을 망설이던 고민은 기우였습니다. 입사 후 부서를 배치받은 첫날, 팀장님께서 저에게 업무 경험을 해 보고 싶냐고 먼저 물어보셨었습니다. 당시 스펙 한 줄 외에도 자소서와 면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제 경험이 절실했기에 열심히 업무에 임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4개월의 인턴 생활 동안 대출 관련 Raw 데이터 관리, 재무제표 분석, 대출 관련 전산 시스템 개발 기획 보조와 같은 사무 업무뿐 아니라 청년도약계좌 등 청년금융정책을 논의하는 간담회에서 청년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고 직원 분들의 따뜻한 배려로 금융재단, 핀테크 세미나 등 각종 현장 견학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핀테크 세미나에서는 통신비 납부와 톨게이트비 연체 이력 등 각종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신용평가모형을 만드는 기초를 이해하며 금융 산업과 관련한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실제 고객과 대면할 수 있었던 지점(센터)에서 업무 경험을 했을 때에는 고객을 도와드리고 어깨 너머로 상담을 하는 것을 보며 고객 응대를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금융과 데이터 관련 업무 그리고 고객 응대까지 다방면으로 업무를 경험한 덕분에 금융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과 나만의 고객 응대 기술을 갖출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취업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 외에도 서민금융진흥원에서의 인턴 경험은 제 취업의 또 다른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막연히 공공기관에 입사하는 것이 목표였던 이전과 달리 다른 공공기관이 아닌 꼭 서민금융진흥원에 정규직으로 입사하고 싶다는 뚜렷한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이는 인턴을 하며 맺게 된 좋은 직원 분들과의 소중한 인연,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 있는 수평적인 조직문화, 취약계층을 돕는다는 뜻깊은 사업 때문이었습니다.

 정규직 입사를 위한 열정으로 일궈 낸 우수 인턴

서민금융진흥원 정규직 입사라는 목표를 갖게 된 후 저의 마음은 하루하루 애가 타기 시작했습니다. 인턴기간 동안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해, 금융 업무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스스로 현직자 인터뷰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업무가 아닌 일방적이고 사적인 저의 부탁이었기에 무작정 직원 분들에게

부탁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우선 각 부서의 사소한 업무를 도와주며 대리님들과 친분을 쌓거나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렸다가 같이 타는 식으로 팀장님, 부장님들께 눈도장을 찍은 후 점심 식사를 청하며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뷰 한 번을 위한 매 순간이 고난이었지만 친절하게 인터뷰에 응해 준 직원분들 덕분에 11개 부서의 인터뷰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과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계획했던 현직자 인터뷰가 다 끝나고 인턴 생활이 한 달도 남지 않았던 즈음에 입사 지원 시 가산점이 부여되는 우수인턴 선정을 위해 '업무 프로세스 개선'이라는 주제로 PT면접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주제였지만 많은 업무를 경험했던 저는 도전해 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몇 달 동안 업무를 하며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점을 주제로 잡고, 현직자 인터뷰로 확인받은 이 개선방안의 비용적 효율성까지 모두 녹여 내어 PT를 진행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발표는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호평을 받았고, 저는 인턴 마지막 날에 우수인턴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우수인턴은 스스로 현직자 인터뷰까지 기획할 정도로 열정적이었던 인턴 생활의 결실이었습니다.

인턴 마지막 날, 인턴 수료증과 우수인턴 표창장을 모두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인턴 경험 덕분에 자신 있게 정규직 입사에 도전할 수 있다는 뿌듯함과 직장 경력이 없던 제게 공공기관 청년인턴은 최고의 기회였다는 생각에 만감이 교차하였습니다.

인턴 경험을 살려 신입사원으로 재입사하다

인턴 수료 후 3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서민금융진흥원 입사를 목표로 필기 공부를 하던 중 서민금융진흥원 채용공고가 올라와 지원했습니다. 100대 1이 넘는 경쟁률이지만, 청년인턴의 경험을 믿고 담담하게 필기를 합격하고 면접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면접에서도 크게 긴장되지 않았습니다. 청년인턴을 했기에 그 어떤 지원자들보다 제가

공사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사에 대한 개선점을 묻는 1차 PT 면접에서는 청년인턴을 하며 느꼈던 바를 솔직히 이야기하며 무난히 합격했습니다. 또한 자소서를 기반으로 진행된 최종면접에서도 열정 넘치게 일하며 우수인턴까지 된 이야기와 함께 위기와 대인관계 관리에도 자신이 있다는 것을 인턴 당시 있었던 에피소드와 엮어 적절히 어필했고, 결국 최종 합격하여 6개월 만에 서민금융진흥원 신입사원으로 금의환향할 수 있었습니다.

🔍 청년인턴, 스펙 한 줄 그 이상의 가치

지금도 업무 중 문득 딱 1년 전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면 피식하며 혼자 웃곤 합니다. 1년 전 여기, 이 자리에서 인턴이었던 저의 모습과 함께 그때의 행복했던 날들이 생생히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미 경험해 보았기에 아주 빠르게 회사에 적응했고, 제 몫을 해내는 일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준 청년인턴 제도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돌이켜 보면 취업에 있어서 청년인턴은 저의 유일한 사다리이자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저와 같이 청년인턴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자신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스스로가 제대로 업무경험을 해 보고 싶다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청년인턴은 스펙 한 줄이 아니라 자기소개서부터 면접까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앞으로도 청년인턴 제도가 더욱더 확대되어, 취업 준비에 막연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당당하게 이 사회의 멋진 구성원이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꿈에 그리던 이 자리에서 청년인턴이었던 저를, 이제는 신입사원으로서 저를 따뜻하게 품어 준 이들과 함께 애사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제 몫을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인턴을 통해 찾은 꿈, 남의 길에서 나의 길로

국민건강보험공단 | 김○○



‘너는 꿈이 뭐니?’ 어릴 적부터 솔하게 들은 질문에 저는 부친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공무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무엇보다 주도적으로 이뤄 본 것 없이 남들이 먼저 가 본 편안하고 안정적인 길을 선택하며 살아 왔던 저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거창한 희생의식이나 개인적인 삶의 목표와 부합한다는 이유로 직업을 선택한다는 것은 자기개발서에만 등장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다들 저마다의 길을 찾아 나설 때마저도 저는 친구들이 선택하고 선배들이 입사했던 공공기관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공공기관 취업 준비를 해서’,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어서’, ‘수평적인 조직문화라서’라는 이유로 선택한 제 꿈에 ‘나’는 없었습니다. 남들이 가는 길을 좇으려다 번번이 불합격의 고배를 마셨던 제가 청년인턴을 통해 꿈이 생기고 삶의 목표가 생기고 주도적으로 ‘나의 길’을 그려간 끝에 합격장을 손에 쥔 경험을 들려 드리고자 합니다.

도피처에서 발견한 삶의 이정표

여러 자격증을 취득하였음에도 번번이 불합격 통보를 받으면서 선택한 것은 청년인턴이라는 도피처였습니다. 운 좋게도 한국가스안전공사 체험형 인턴에 합격하여 일하게 되었습니다. 맡은 업무는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LPG 가스 및 노후 호스 점검, 설문조사,

지원사업 홍보였습니다. 문과였던 저에게 행정 업무의 비중보다 현장에서 보내는 비중이 압도적이었던 업무는 추후 공공기관 입사 스펙에 아무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포기도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업무를 하며 마주한 다양한 경험은 생각지도 못한 기회였고 주도적인 제 삶의 첫걸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도심과 떨어져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시골에서 LPG 가스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 제가 LPG 가스 점검을 위해 방문했던 가정들은 열악한 환경이 많았습니다. 가스 호스 노후 상태도 심각한 경우가 많았으며, 실제로 가스 누출이 확인되는 경우도 잦았습니다. 하루하루 점검을 나갈수록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 노출된 많은 사람이 있다는 생각에 조바심도 났고, 노후 가스 호스 교체, 타이머록 지원 등으로 예전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 보람도 많이 느꼈습니다.

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발견하고 업체에서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 고맙다고 손 잡아 주시는 할아버님, 점검 끝나고 갑자기 쏟아지는 비에 잠깐이라도 쉬고 가라고 하시며 처마 끝에서 함께 앉아 고맙다고 연신 말씀하시던 할머니와의 담소까지. 청년인턴 경험은 그동안 겪지 못한 새로운 경험의 연속이었으며, ‘사람들과 호흡하고 도움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공공기관에 입사하고 싶어졌습니다.

🔍 남의 길이 아닌 나의 길을 찾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업무를 하다 보니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간의 점검표와 전년도 체험형 인턴의 점검표를 비교하며 엑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모두 방문 대비 부재 세대가 너무 많았으며, 방문 자체를 거부하는 비율도 높아 점검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사전 홍보의 중요성을 알았으며 홍보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방문 예정 마을 이장님께 부탁하여 사전에 공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담당 대리님께 인턴 물품구매 예산을 할애하여 현수막 제작을 부탁하여 마을 입구에 미리 걸어 두기도 했습니다. 결국 부재 세대로 인한 재방문 시간이 줄어들었고, 일일이 방문 목적을 설명하던 것이 사전 홍보로 대체되어 점검 및 교육 시간도 단축할 수 있었습

니다. 결과적으로 최초 목표 점검 가구 수 대비 점검률을 100%를 초과 달성하며 인턴을 수료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를 맡으면서 행정 및 사무 업무가 아니라는 점에 불평하던 저였지만, 오히려 현장을 다니며 데이터 분석과 홍보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취업을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려던 제가 많은 사람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통계적 역량을 키우고 싶어졌습니다. 출장 복귀해서 점검표를 엑셀에 옮기면서 하루하루의 성과를 눈으로 보고 부족함을 찾고, 퇴근하고 독서실에 가서 통계 자격증 공부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저에게 도움받았다며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는 사람들, 그 마음에 보답하고자 조금이라도 더 남아 근무하고 고민하고 점검률을 향상했던 경험들이 그 원동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하니까’, ‘좋은 직장이라고 하니까’라며 등 떠밀려 준비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고 싶어서 공부하다 보니 열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나의 길’로 첫 걸음마를 뗏습니다.



경험이 근거가 되는 나만의 차별화된 스토리

가스안전공사 청년인턴 이후 달라진 것은 방향성이었습니다. 건강과 안전에 관심이 생겼으며, 단순히 ‘공공기관에 입사하고 싶다’가 아닌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기준이 정립되었습니다. 입사지원 동기가 명확해지고, 스펙을 위한 자격증이 아니라 나만의 스토리가 뒷받침된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자기소개서의 방향과 내용은 기존과 전혀 다른 것이 되었고, 그 이후 서류 합격률은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결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입사, 건강보험공단으로의 이직에 성공하였습니다.

토론 면접과 경험 및 임원 면접으로 나뉜 최종 면접에서 청년인턴의 경험은 빛을 발했습니다. 특히 토론 면접에서 안전 이슈에 대한 주제가 나오게 되었는데, 청년인턴을 하며 불안정한 상황에 직면한 많은 사람을 대면했던 경험이 근거가 되며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험 및 임원 면접에서도 청년인턴을 통해 정립된 명확한 지원 동기와 이를 위해 노력했던 부분, 현장에서의 경험들이 뒷받침된 답변으로 당당히 합격장을 쥐었습니다.



꿈을 향한 두 번째 도전 - 안정적인 삶이 아닌 주도적인 삶

처음 정규직으로 입사하였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행정직으로 채용되어 현장보다는 사무실에서 다방면으로 안전 직렬과 보건 직렬 직원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청년인턴 때 복지의 사각지대를 직접 방문하고 개선하는 업무를 하며 느낀 보람에 매료되어 공공기관에 입사를 희망하였기 때문에, 현장에서 호흡하는 안전 직렬과 보건 직렬 동료들을 동경하며 갈증은 더 커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변의 만류를 뒤로하고 퇴사 후 건강보험공단으로 이직하였습니다. 현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일하며 다치거나 아픈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직접 만나며 그들의 삶을 옆에서 듣고 다방면으로 공단의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주목하는 고용의 안정성, 보수의 안정성,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 등 안정적인 삶의 영위만을 추구하였다면 첫 직장에서 워라벨을 누리며 업무 이후의 나의 삶에만 주목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청년인턴의 경험을 통해 남들이 가는 안정적인 길이 아닌 내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꿈이라는 동기로 준비한 주도적인 삶이 저를 또 다른 도전과 합격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

‘지원자의 꿈이 무엇인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 공단의 경험이 왜 필요한가?’

과거 청년인턴을 준비하며 최종 합격의 문턱에서 고배를 마시게 했던 면접관의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질문이 청년인턴 제도의 의미를 관통하는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을 던진 면접관 역시 지원자의 꿈이 ‘공공기관 입사’라는 명사를 답변하기를 바라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에게도 꿈은 공공기관 입사라는 ‘명사로서의 꿈’이 아니라,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많은 사람을 지원하고 돕는다는 ‘동사로서의 꿈’이었습니다. 청년인턴 경험으로 꾸게 된 ‘동사로서의 꿈’은 입사만을 위한 자격증 취득이 아닌 입사 후 나의 역량에 주목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 주었고, 결국 공공기관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청년인턴 경험이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기회였던 것처럼, 공공기

관 입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청년인턴 제도를 통해 새로운 경험들을 겪으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만의 길을 찾을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독서실 인턴, No! 실무형 인턴, Yes!

한국토지주택공사 | 윤○○



2022년 12월 30일, '전세임대1부 청년인턴 윤○○' 이름표를 파티션에서 떼어 냈습니다. 4개월간의 인턴 근무를 마무리하는 날이었습니다. 정든 사무실 책상 위를 바라보며 '신입사원으로 꼭 다시 입사하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1년 여 시간이 지나 꿈을 현실로 이룬 지금, 청년인턴의 가치를 입사 수기를 통해 재조명하고 싶습니다.

청년인턴 경험은 고된 취업 준비 기간의 버팀목이자 길잡이로 남아 있습니다. 필기시험에서 탈락해 좌절할 때마다 인턴으로서 느꼈던 보람과 긍지를 떠올리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직무 역량 면접 또한 인턴 근무 경험에서 배우고 느낀 점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독서실 인턴'. 공공기관 청년인턴이 근무 기간 중 자습만 하다가 수료한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오명입니다. 그러나 직접 경험한 청년인턴은 회사의 실제 업무를 가까이서 관찰하고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인턴으로서 기른 역량과, 그 역량이 어떻게 취업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실무형 인턴'이라는 키워드로 풀어내고자 합니다.

 **블라인드 채용: 공정성과 기획의 다른 이름**

2022년 하반기 LH 체험형 청년인턴은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전국에서 총 570명을

선발했습니다. 서류 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 평가를 100% 반영해 합격자를 선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자격 및 교육 사항이 미비했던 저로서도, 자기소개서에 공사와 사업에 대한 진솔한 관심을 드러냄으로써 서류 전형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 또한 블라인드 채용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게 진행했습니다. 화상 면접 방식으로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꼼꼼한 사전 안내 덕분에 차질 없이 준비한 답변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면접을 시작하기 앞서 면접자가 면접관의 얼굴을 확인해 제척 사유 여부를 파악하는 등 공정성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면접 전형에 최종 합격한 뒤 LH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 전세임대1부로 업무 배치를 받았습니다. LH가 시행하는 전세임대 사업 과정 중 퇴거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보조했습니다. 퇴거 당일 주택의 보증금 회수가 완료되면 이를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알리는 역할이었습니다. 아울러 전세임대 사업 제도 전반에 관한 문의 전화를 응대했습니다.

① 보고하는 능력: 업무를 내 것으로

청년인턴으로 근무하며 우선적으로 기른 능력은 바로 ‘보고하기’였습니다. 일과 중 마주하는 복잡다단한 업무 상황에서 보고 절차는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인턴사원으로서 전산 시스템에서 보증금 완납 여부를 확인하거나 까다로운 민원 전화를 수신할 때, 담당 직원분께 관련 내용을 정확히 보고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무 경과를 간결한 언어로 옮겨 신속히 전달하는 능력이 필수임을 실감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보고 방식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구두 보고를 비롯해 보고서, 메일, 메시지, 메모 등 상급자에게 업무를 보고하는 여러 틀을 익혀 나갔습니다. 물론 근무 초반에는 고객이 제기한 민원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담당자에게 잘못된 내용을 전달하는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깨너머로 직원들을 관찰하며 부서 내 다양한 보고 방식을 체득하려 노력했습니다.

작은 업무라도 정확히 보고하는 연습을 거듭하자 업무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주어진 업무를 능동적으로 이해해야만 이를 정확한 언어로 옮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새롭거나 낯선 문제를 상급자에게 보고하며 자연스럽게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

는 능력을 길렀습니다. 실제 2023년 LH 신입사원 채용에서는 AP형(Analysis& Presentation) 발표 면접 방식을 도입했는데, 청년인턴 업무 경험을 통해 기른 보고하는 능력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② 기업 관점의 사고: 고민을 확장하다

청년인턴으로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업무 경험은 바로 ‘기업(기관) 관점의 사고’입니다. 공공기관의 고객은 넓은 의미에서 국민 모두이므로, 저 또한 청년인턴 근무 전에는 고객의 입장에서 LH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공사 고객으로서 어떤 사업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어떤 지원 정책이 있는지를 찾고자 했습니다. 취업 준비를 위해 기업 분석을 할 때도 사업 공급자 관점보다는 사업 수요자 관점에서 기업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인턴 기간 중 공사의 업무를 직접 보조하며, 공급자 시각에서 질문을 던져 볼 수 있었습니다. ‘LH는 어떤 목적으로 전세임대 사업을 하고 있을까?’, ‘왜 다른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LH가 이 사업을 해야만 할까?’와 같은 고민이 이어졌습니다. 스스로 답을 내려 보고 주변 직원들께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 즉 기업 관점의 사고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관점 전환은 공사 사업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청년인턴으로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심어 주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민원 응대 업무에 몸과 마음이 지칠 때, 전세임대 사업으로 안전하게 거주하고 있는 주거 취약 계층을 떠올렸습니다.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공사의 역할을 사업 공급자 관점에서 되새기며 입사를 위한 꿈을 키웠습니다.

③ 현직자와의 유대: 웃기만 스쳐도 인연

인턴사원으로 근무하며 실무 담당 직원들과 형성한 유대감은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부서 내 주임, 사원, 대리, 차장 등 부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청년인턴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전문적인 직장 상사의 모습으로, 때로는 친근한 인생 선배의 모습으로 먼저 다가왔습니다. 담당 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틈을 내어 인턴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었습니다.

입사한 지 오래되지 않은 젊은 사원, 대리님들은 신입사원 채용을 위한 노하우 전수도

잊지 않았습니다. 특히 필기 전형 관련 서적이나 실전적 문제 풀이 전략을 추천해 줌으로써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래 직원 분들의 생생한 취업 후기와 실무 적응기를 들으며 '나도 어서 저런 모습으로 근무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함께 근무한 인턴 동기들도 인연의 끈을 이어 나갔습니다. 인턴 근무 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서로 신규 채용 정보를 공유하고 자기소개서 작성을 독려했습니다. 그 결과 청년 인턴 근무 당시 바로 옆자리에서 근무하던 동기와 LH 12기로 함께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 초심으로 돌아가자: 청년인턴의 가치

신입사원으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지만, 마음가짐은 청년인턴 시절과 다르지 않습니다. 작은 업무라도 꼼꼼히 보고하는 자세를 유지하겠습니다.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관점에서 업무를 이해하는 실무자가 되겠습니다. 곁에 있는 동료들과 건강한 유대감을 쌓아 나가겠습니다.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4개월은 '독서실 자습'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다양한 실무 경험을 통해 조금씩 성장하는 스스로를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실무형 인턴'으로서의 경험을 양분 삼아 최종 합격이라는 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그 가치가 더 조명받길 바라며 오늘도 치열하게 경험을 쌓아 나가는 청년인턴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파도를 멈출 수는 없어도,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울 수는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김○○



🔍 “인턴을 세 번이나 하셨네요, 그 안에서 어떤 걸 느끼셨나요?”

수기 공모전이라는 주제를 보고 최종 면접 때 받았던 질문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약 2년간의 교육봉사활동 이후 교육으로 도움을 베풀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대학생할 내내 임용고시라는 목표만을 향해 달렸지만, 비전공자에게 임용고시라는 벽은 너무나도 높았고 그렇게 저는 진로 설정을 하지 못한 채 졸업을 하였습니다. 졸업 직후에는 숨쉬는 법도 모른 채 바다 한가운데 던져진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 물 속에 아무 준비 없이 던져지면 허우적거리다 더 깊이 가라앉곤 합니다. 저 역시 바다 가장 깊은 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 많은 고민과 좌절감을 느끼던 찰나에 공공기관에 대해 알게 되었고, 어쩌면 교육보다도 더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기관에 목표를 두게 되었습니다. 막상 목표를 정하고 나니 생소한 NCS제도, 필수라 불리는 각종 자격증, 자기소개서에 적어 낼 많은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또다시 좌절에 빠지기 전 직접 직무 경험을 하며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청년인턴’이라는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청년인턴을 통해서 바닷속에서 숨을 쉬고 헤엄을 치는 방법을 배워 여러 가지의 멋진 경험을 하고 나온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막상 서류를 제출하기에 앞서 고민을 하던 중 ‘영문과를 졸업하였으니 그나마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원하게 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에 감사하게도 합격하여 첫 인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막연히 바람 속에서만 생각했던 ‘대리님, 과장님’ 등의 호칭부터 기안문을 접하고 결재를 받는 일까지 바라 왔던 일의 첫 시작이었지만 모든 것이 어색하고 긴장되기도 했던 첫날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실수를 하여 폐를 끼칠까 많이 걱정하였지만 대리님께서 업무 과정을 설명해 주시며 그 안에서의 인턴 역할을 상세하게 알려 주셔서 빠른 시간 안에 조직에 적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트라에서 주로 맡았던 업무는 고객관리 등록업무였습니다. 지자체 내에서 엑스포 개최 등 그곳에서의 수출박람회를 개최, 기획하고 지역 내의 수출업체들을 단계적으로 관리하며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에 지자체 내 고객관리는 단순해 보이지만 탄탄한 프로젝트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였습니다. 고객관리 등록을 위해서는 수출기업 해당 사장님들과의 통화는 필수였는데, 이러한 통화과정 속에서 코트라에서 전화 드렸다고 하면 한층 반가운 목소리로 항상 좋은 프로그램으로 수출의 발판을 만들어 주어 아주 큰 힘이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공공기관이 큰 영향력을 퍼트릴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깨닫고 한층 더 진로에 대한 마음을 다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첫 인턴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인턴이라 소외되지는 않을까 생각했던 걱정이 무색할 만큼 다들 존중해 주셔서 공공기관 기업문화 중 수평적인 조직생활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먼저 경험해 보았기에 해 줄 수 있는 취업에 대한 조언, 이른바 꿀팁 등을 많이 배웠습니다. 인턴이 끝난 뒤에도 이루어진 대리님들의 아낌 없는 조언들과 인턴 생활에서 겪은 경험들로 녹여 낸 자기소개서로 감사하게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최종 면접의 기회를 얻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면접에서 불합격하였고, 많은 좌절감을 느꼈지만 너무나도 뚜렷이 알게 된 저의 단점들을 보완하여 합격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마음을 다잡으며 첫 번째 인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빛을 따라 헤엄치다

두 번째로 앞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자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발령받은 부서는 조금 생소하지만 용지매수·보상 수탁사업 업무를 수행하며 국가공익사업 추진에 기여하는 보상사업부였습니다. 이곳에 함께 배치받은 인턴은 6명으로, '수용과정 서류검토 및 정리' 업무를 맡았습니다. 각각의 공구(지역)마다 토지 수용, 등기부등본, 신청서 등 약 11개의 필수 서류들을 받고 각 증명서의 유효기간과 상세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꼼꼼함이 필요했습니다. 6명의 인턴사원들과 함께 매일 서류를 정리하며 등기부등본을 보는 법 등 생소한 것에 대해 서로 노하우를 나누었고 처음 시작할 때보다 확연히 단축된 업무 시간을 보며 NCS 개념 중 문제 해결에 대한 저만의 생각을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에서 저의 단점이었던 경험이 우리나라 답변이 아닌 추상적인 답변만을 준비해 간 것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에서 문제 해결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마치 큰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였던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어 쉽게 답변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이 확실히 구분 지어지는 공공기관에서의 인턴이 독특한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NCS는 지원자에게 어떠한 문제 해결 능력을 바랄까? 생각해 보니 사소한 일이라도 관점을 바꾸어 생각하는 노력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같은 양의 서류를 정리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본다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조금은 더 빨리 정리할 수 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NCS의 개념에 대해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정립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인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빛을 향해 헤엄치다

앞서 경험했던 인턴 경험들도 훌륭했지만, 면대면으로 민원인과 소통하는 업무는 어떨까라는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호기심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새롭게 채용하는 '직무 특화형 인턴'에 지원하였고, 직접 민원을 상대하는 영업점에 배치되었습니다.

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임대 보증 보험 업무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방 민원이 굉장히 많은 만큼 걱정 반 기대 반으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은 대민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어떤 기관이든 빈도의 차이일 뿐 민원인과의 소통이 수반됩니다. 특히나 HUG처럼 민원인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일회성으로 방문하는 곳에서는 직원 한 명의 응대가 회사 전체의 인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말 한마디가 갖는 책임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직원 분들이 임대 및 전세 보증 관련 민원을 매끄럽게 상담하는 모습을 보며 맡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나 지식도 중요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HUG에서 근무하며 찾아오신 민원인의 문제를 팀원들과 같이 고민하고, 해결방법을 찾아내어 결국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웃으며 돌아가는 민원인들을 보며 느낀 뿌듯함은 대민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이 맞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확신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반기 입사원서를 냈고 다시 한번 당당히 자신감이 붙은 상태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직원 분들에게 민원 업무의 고충 등에 대해서 생생하게 듣고 저 또한 인턴 생활 중 민원인 상대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체계적으로 준비한 결과 마침내 합격이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냥 기쁠 줄만 알았던 합격 소식에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부모님께 먼저 연락을 드리라는 팀장님의 말씀에 합격 소식을 전하며 비상구에 쪼그려 앉아 영영 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반복되는 불합격 소식과 같이 아무런 성과도 없이 한 해 한 해가 지나간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인턴 생활을 하며 저와 같은 고민을 나누고 아낌없이 해 주신 많은 조연들 덕분에 고단했던 취업 생활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 마치며

인턴을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배우고 깨닫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15개월에 걸쳐 세 번의 인턴을 하는 동안 인턴을 하는 것보다 취업에 매진하는 것이 어떻겠냐고들 입을 모아 말하였지만 저에게는 이 15개월은 정말 돈 주고도 살 수 없을 정도로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토지 수용 보상, 수출박람회 기획, 건설 기업 보증

등 살면서 청년인턴 제도가 아니었다면 겪어볼 수 없었던 업무를 수행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인턴으로 많은 곳을 경험해 보며 어떠한 업무가 적성에 맞는지 느껴 여러 공공기관 중에서 확실한 목표를 정하고 그곳에만 매달릴 수 있었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타 공사에서 근무했더라도 적성을 찾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돌아가는 듯 보여도 취업을 향한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었다는 것을 알려 드리고 싶어 조금 길게 인턴 생활을 풀어 보았습니다. 저의 글이 바닷속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해엄을 칠 수 있는 표지판이 되기를 기원하며, 마지막으로 그동안 인턴 생활을 하며 만났던 모든 인연들에게 받았던 감사한 마음을 앞으로 저희 공단에서 인턴 업무를 하는 취업 준비생 분들께 베풀고 싶습니다! 쉽지 않은 길을 가고 계신 취업준비생 모두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입사를 원한다면 인턴(intern)으로 인턴(in turn)하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박○○



인턴(intern)으로 인턴(in turn)하기

누구나 그렇듯 저도 방향을 모르던 때가 있었습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이 서너 갈래로 흩어져 갈피를 잡기 어려울 때, 인턴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맞는 일인지 직접 경험해 보고 입사 시 차별화된 경험으로 쓰이면서, 인턴 근무는 자신을 들여다보고 회사로 들어가게 한 인턴(in turn)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모두가 알게 되길 바라며 저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공기업 입사를 희망하게 된 때는 대학 3학년 겨울이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근로장학생으로 근무하며, 타인에게 희망을 주고 싶은 저의 직업관을 공기업에서 풀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산업재해로 한순간에 직장을 잃고 막막한 상황에 처한 이들을 위해 일하는 직원을 바라보면서 직업으로서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주는 일을 하면 보람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강의실과 두꺼운 전공 책 어디에서도 찾지 못했던 진로를 현장에서 찾은 후부터는 공기업 입사만을 생각하고, 입사에 필요하다는 자격증 취득과 토익공부로 남은 4학년을 보냈습니다.

Q 애쓰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는 기간, 취준

분명 공기업 입사를 꿈꾸었지만 모든 일은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졸업 후 빨리 취업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심했고 진득하게 공기업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비싼 문제집, 인터넷 강의로, 독서실 비용과 채용 시험을 위해 타 지역을 오가는 교통비는 모아 둔 돈을 야속하게 갉아먹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공기업 시험은 접어 두고 복지관 사회복지사로 먼저 취업했습니다.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며 보람도 느꼈지만 학생 때부터 원하고 준비했던 공기업 입사에 미련이 남아 퇴사 후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상황에서 이제는 더이상 해매지 않고 원하는 일을 하겠다 다짐했습니다.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해 경제적 지원을 받고, 생일에도 도서관을 가며 입사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면서도 구직 상태의 막연한 불안감은 매일같이 마음을 짓눌러 한숨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경험 없이 공부만 하다 보니 오히려 꿈과 멀어지는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조용하고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을 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체험형 인턴 채용 공고를 보았습니다. 3개월의 단기 인턴이었지만 원하는 공기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기회를 가지면서 돈도 벌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이었던 제가 근로장학생 근무를 통해 현장을 느끼고 진로를 택했던 것처럼, 체험형 인턴 근무가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Q 사회초년생의 준비운동, 청년인턴

인턴 근무지였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 직업체험, 취업연계를 진행하는 곳입니다. 제가 인턴으로 첫 출근했을 때는 개소한 지 몇 달 되지 않은 신생 센터였습니다. 이로 인해 인턴도 팔을 걷어붙일 만큼 할 일이 많았지만 그래서 좋았습니다. 발달장애인 직업체험을 위한 수업자료를 만

듣고 직접 발달장애인 학생들을 가르치며 비중 있는 일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체험형 인턴을 하면서 얻은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회초년생으로서의 경험입니다. 저는 출근이 좋았습니다. 알람 소리에 간신히 몸을 일으켰던 오늘 아침을 생각하면 출근이 좋다는 말을 취소할까 싶지만, 그때는 너무나 바라던 것이었습니다. 출근을 하면 사무실에 내 자리가 있고 사원증을 목에 걸고 함께 회의하는 순간이 좋았습니다. 업무하는 동안 실제 직원이 된 것 같은 소속감과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일을 한다는 건 단순히 주어진 과제를 수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근무하는 사람들과 이 집단에 적응하고 소통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물론 낮은 회사 생활이 매번 설레지는 않았습다. 하나의 업무가 주어지면 잘해보겠다는 열정과 긴장이 뒤섞여 마음만 앞서거나 실수할 때도 많았습니다. 꼭 문서를 올린 뒤에서야 잘못 쓴 숫자가 보이고, 사무기기 다루는 법을 몰라서 이것도 모른다고 할까 봐 물어 봐야 하나 고민하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직원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체험형 인턴은 우리 공단을 배우고 체험하러 온 학생의 느낌이 강해서 직원 분들이 친절하게 다시 알려 주시고 하나라도 더 경험할 수 있도록 챙겨주셨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신입사원을 ‘말하는 감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4년제 대학 나와 이런저런 자격증 있어도 회사에서는 걸음마부터 다시 배우는 것이 사회초년생입니다. 냉정하기만 할 것 같은 사회로의 첫발이 두렵다면 찬물에 들어가기 전, 가슴에 물을 묻히듯 체험형 인턴으로 회사를 경험해 보길 추천합니다.



현장이 아니면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것들

제가 체험형 인턴을 하면서 얻은 두 번째는 가장 가깝게 고객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고객이 장애인이라는 점에서 장애공감 능력이 중요한 역량으로 여겨지는데, 사무업무나 이론으로 쉽게 배울 수 없는 이 부분을 인턴 근무를 통해 몸소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풍선을 가지고 수업하던 중 자폐성 장애인 친구가 소리를 지르며 훈련실을 뛰쳐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흥분한 훈련생이 당황스러워 영문을 모르고 수업을 중단했을 때 다른 직원 분이 자폐성 장애는 터질듯한 풍선을 특히

무서워한다는 이야기를 해 주셔서 비로소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 특성을 잘 이해하고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세심함이 필요함을 배운 날이었습니다.

업무를 위한 지식은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지만 다양한 상황과 고객을 만나는 경험은 현장에서만 체득할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고객을 마주하며 내가 이들을 위해 일하게 된다는 사명감이나 동기를 찾기도 하고, 어떻게 더 친절하게 다가갈까 나의 태도에 대해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직원 채용 면접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전의 면접에서는 지원하는 곳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홈페이지를 꼼꼼히 보고 관련 기사를 읽어 보는 것이 면접에 대비한 최선이었지만 이제는 이야깃거리가 많아졌습니다. 체험형 인턴을 통해 고객과 대면했던 경험은 남들과는 차별화되는 사례로 이야기되었고, 합격이라는 결과를 만든 저의 한 수였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을 살아가는 과거의 '나'에게

3개월은 빠르게 흘러 체험형 인턴은 꿈처럼 끝이 났습니다. 저는 취업준비생으로 돌아갔고 도서관에서 보내는 하루도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래서 청년인턴이 희망고문이다 말하지만 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다시 취업준비생이지만 분명 제가 그전과는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이전에 저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막연한 불안감이었습니다. 체험형 인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목표가 가끔은 허상같이 느껴질 때, 나의 목표가 이렇게 가까이에 현실하고 있음을 체험하게 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공단과 잘 맞는다는 것을 느끼고 이 길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인턴 경험은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도 매우 좋은 주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인턴 때와 같은 근무지에서 일하며 동료가 된 직원들과 그때 그랬지 하는 좋은 추억으로 이야기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공단에 새로 채용된 체험형 인턴 직원과 1박 2일 출장에서 같은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해 전의 저를 보는 마음이 들어 지금의 인턴 근무가 참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느리고, 적고, 그래서 깊다

한국언론진흥재단 | 하ㅇㅇ



🔍 선택과 집중

“내가 가장 가고 싶은 곳을 놓자.”

취업준비생으로서도 오래보다 조금 늦게 출발선에 섰던 것 같습니다. 주위 친구들이 어딘가에서 인턴, 계약직 등을 하고 공채를 쓰고 있을 때 저는 그제야 진로를 정하고 스펙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취업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당시 가장 큰 고민은 “내가 이곳만을 목표로 해도 괜찮을까?”였습니다. 목표로 하는 회사만 바라보기엔 결과는 불확실하고, 전반적인 것을 두루 준비해야 빠르게 취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이 있었습니다. ‘선택과 집중’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모두가 목표회사를 하나씩은 갖고 있겠지만,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준이 너무 높거나 채용인원이 너무 적거나 하는 다양한 제약들로 인해 그 목표만 바라보기엔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최대한 많은 곳에 지원서를 내 봐라.”라는 조언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곳에 쓰다 보면 데이터가 쌓일 것이고, 그게 자료가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각자는 다른 성향을 갖고 있듯, 가장 잘 맞는 방향도 다릅니다. 멀티플레이를 잘 못하는 저는 양치기를 하는 것보다 ‘선택과 집

중'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조금은 더딜지언정 회사를 '깊게' 알아가고 나를 더 '잘' 보여 줄 방법을 택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자소서가 나왔습니다.

Q 더딜지언정 찬찬히 가보자

첫 번째 자소서를 통해 지망했던 회사에서 운 좋게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청년인턴은 '10개월'로 타 공공기관의 청년인턴에 비하면 긴 편입니다. 10개월이라는 긴 기간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에게는 회사와 직무를 '깊이 있게' 알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 10개월이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랬기에 청년인턴 동안은 업무와 대인관계 모두 잘 해나가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10개월간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면서 '마침표'를 잘 찍어나가려 했습니다.

저는 지금 그 마침표가 '느낌표'가 되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인턴의 경험은 부서의 일원으로서 소통하는 역량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근무하는 기간 동안 회사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사업들을 파악할 수 있었고, 혹은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직무역량을 키울 수도 있었습니다. 인턴직이라는 한계로 맡은 업무가 큰 틀에서 변하지 않더라도, 그 주변의 변화에 눈과 귀를 열어 뚝으로써 회사와 직무에 대한 정보를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Q 병행(並行)은 무섭다

긴 인턴 생활이 마냥 장점만 있다고 보긴 힘들 수도 있습니다. 회사와 직무 파악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취업준비생은 개인 공부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을 병행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활용할 시간이 적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대외활동이나 스터디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해 나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지망 분야와 관련된 회사에서 근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활동으로 다양성을 쌓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야의 회사라면 그 회사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활동'도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디어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맡은 업무 외에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진행하는 정부광고와 언론 분야의 사업에 두루 참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유관 분야의 스펙이 될 수도 있었고, 지방회사의 면접이나 자소서에서 저만의 차별점으로 쓸 수도 있었습니다.

한 걸음은 길이 된다

저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만 네 번의 도전 끝에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청년인턴을 하는 기간에도 계속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지원했습니다. 그 도전의 걸음이 쌓였기에 저의 간절함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패의 경험은 결국 저에게 '배움의 경험'이 되었고, 그 경험을 통해 채용 전형의 자료를 쌓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래보다 더디다고 생각했던 저는, 이 회사에 한정해서는 다른 지원자의 첫 도전보단 앞선 위치에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간절하면 이루어진다.”라는 식상한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취업 준비 기간에 청년인턴 생활에서 보인 저의 간절함과 관심이 저만의 차별점이 되었습니다. 면접을 준비하면서 그 점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계속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관심을 두고 준비해 왔기 때문에 면접에서 '나'를 보여 주는 것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나만큼 이곳을 바라보는 사람은 없을 거야.”라는 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었기에 최종면접에서 저의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느리더라도 묵직한 이야기

공공기관을 준비하다 보면 다양한 자격증, 다양한 스펙을 가진 지원자들과 경쟁합니다. 사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경험이 적진 않을까'하고 기죽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다양한 공모전이나 대외활동을 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하는 활동에 ‘깊이’를 갖고 꾸려 왔습니다. 한 번 시작하는 활동은 기본 1년은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한 조직에 있어서 여러 사업에 참여하려 노력하면서 저만의 ‘목직한 이야기’를 만들어 가려고 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과 경쟁하고 비교하다 보면 한정된 시간 속에 ‘조급함’을 느끼는 지원자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목직하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지원서를 써야지.”하는 양적 압박감에 휘둘리지 않고, 내 관심 분야와 직무에 맞춰서 타켓팅한 분야에 집중하는 것도 내 이야기의 진실함과 꾸준함을 보여 줄 좋은 방법입니다. 수많은 지원서를 써 보는 것도 분명 배울 점이 많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에게 맞는 정답은 따로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느리고, 적고, 그래서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느리고, 적고, 그래서 깊다.”

여러분은 모두 각자의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빛날 순간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저의 수기처럼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길을 통해 목표를 성취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입사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고졸 채용 | 블라인드 채용 | 장애인 채용
지역인재 채용 | 청년인턴

인 쇄 2023년 12월 27일

발 행 2023년 12월 30일

발행인 김 재 진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 044) 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 7. 15. 제2014-24호

인 쇄 경성문화사

ISBN 979-11-6655-238-0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